

이정호 인드라망 생협 상무이사
"공동체 가치는 삶의 큰 대안"
'연기적 삶' 생명 살림 20년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6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02호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룰수 없는 시대 과제"

4대 종교 성직자 17일 기자회견… 입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 이후 화합의 의미로 참여한 종교인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선 교무, 퇴휴 스님, 나승구 신부, 박승렬 상임의장, 정진우 목사

폭력적 선교행위 공감 못해
종교차별금지법 등 제정돼야
국민 60% 法 제정 찬성 입장

"불교계에 상처 입혀 죄송"
회견 참여 목사 사과 표명

공공영역에서 자행되는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화합 ·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차별금지법' 을 마련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그동안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의 태도를 견지해 온 기독교계에서도 입법추진의 입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교 단체 대표자들은 7월 17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공존을 염원하는 기자회견' 을 열고 정부당국의 종교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제안 ·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 7월 4일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기독교계의 일명 '땅밟기' 행위 등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웃종교에 대한 폄훼로 인한 종교갈등 상황을 우려하는 이들이 모였다.

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 신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박대선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상임의장과 개신교 목사들이 10여명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땅밟기' 등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행위는 그 누구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종교평화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함께 참여한 목사들은 최근 부다가야에서 이뤄진 '땅밟기' 에 대해 불교계에 사과하는 한편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선교관행을 고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또는 증오방지법은 민족이나 인종, 종교 등에 관한 편견이나 증오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이다. 프랑스에서는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는 동성애가 기독교 성서에 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기도 했다.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7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을 밝혔다.

이에 2013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기독교계의 반발에 결국 좌초됐다.

입법 좌초 후 '땅밟기' 를 비롯한 이웃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선교행위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인도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몽골 등 해외에서는 '말뚝박기', '찬송가 부르기' 등이 진행됐으며 국내에서는 동화사 · 봉은사 땅밟기, 화엄사 방화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이날 모인 4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최근 벌어진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선교행위는 자칫 우리사회의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종교차별법 도입과 함께 종교 스스로 상대 종교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번한 훼불과 폄훼 행위에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는 7월 17일 전근대적 선교 관행을 규탄하며 증오방지법 입법화를 촉구와 이와 관련된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불시넷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제는 이웃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증오방지법의 법제화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인 스님들 염불 삼매에 빠지다

염불은 불교문화의 꽃이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셔서 상 · 중 · 하 근기의 모든 중생에게 고루 설법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수행법이 염불이라고 기술돼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염불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제1회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개최했다. 전통 염불부터 새로운 창작 염불까지 학인 스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염불을 선보였다. 〈관련 기사 5면〉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종 · 선학원 연일 攻防… 내외적 갈등 심화

조계종 "법인 사유화 중단하고 공개 토론하자"
분원 종단 등록 허용… 소송전 우려도

선학원 이사회 열고 반박 성명서 채택해 발표
"이중등록, 선학원 해체 의도 다분하다"

법인 등록을 놓고 불거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다. 조계종은 선학원 임원진의 법인 사유화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또한 선학원 소속 분원의 종단 등록 허용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선학원이 조계종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임원들의 탈종을 통한 선학원 사유와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만 스님은 "선학원 측이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선학원을 고사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의 어떤 조문과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달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7월중에 종단과 선학원의 현안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니 화답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만 스님은 선학원 사찰에 대해 조계종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조계종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분원장들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선학원과의 이중 등록 문제가 발생해 법적인 소송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같은 날(15일) 오전에 열린 중앙종무기관 종무원과산하 기관 직원, 수덕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선학원에 대해 법인 창립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역시 종단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 분원장들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지협의회는 7월 18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종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학원 분원 장스님들과 종도들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교구본사주지들은 종단의 뜻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정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의 비판에 선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맞불을 놨다. 선학원 이사회는 7월 17일 회의를 열고 '선학원 해체음모를 경계한다' 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결의했다. 이후 이사회는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단은 더 이상 선학원 간여말라 △선학원을 조계종의 모태와 정화의 산실로 인정하는 집행부가 나온다면 대화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종단의 선학원 분원에 대한 이중등록 허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학원 임원진은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학원 사찰에 대해 '이중등록' 을 받겠다고 선언했으며, 선학원을 탈퇴하려는 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지원까지 하겠다고 공표했다"면서 "이는 선학원에 대한 종단의 공격은 선학원 해체음모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해체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계종이 제의한 법인관리법 관련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면서도 조건부 수용했다.

법진 스님은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는 법 제정 전에 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어떤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하려는 모르겠어서 난감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 법을 설명하고 객관적 패널이 참여하며 편집없이 공개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02호 INDEX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종합 2·3
기업 연수 템플스테이 매뉴얼 발표
세월호 100일 아픔 치유 나선다
세계 9점 고려 나전경함 귀환
팔공산 승시, 범불교 행사로 확대

신행 · 포교 6·7
포교원 지역불교 순회 간담회
불교계 모금 클라우딩 펀딩 인기

불교로 읽는 고전 24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용주사 주지 경선구도 가나

운영위 성관·월암문도 성월 지지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차기 주지 선출이 단일화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암문도회는 7월 14일 모임을 갖고 용주사 차지 주지 후보로 성월 스님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도회 일원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주사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했으며 9명의 운영위원들이 차기 주지후보로 성관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는 성관 스님과 성월 스님의 경선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주사는 그동안 전강문도회의 규약에 따라 투표 없이 주지 후보를 추천해 왔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를 결정하는 산중종회는 오는 8월 20일 열린다.

신성민 기자

백진순 교수 임용 탈락 소청심사위 부당 결정

지난 2월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에서 결정된 백진순 前불교학술원 조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성삼제)는 최근 "동국대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백 前조교수는 동국대와 2010년 3월부터 2년 기간의 연구전담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불교학술원에서 근무했다.

백 前조교수는 이 기간 동안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ABC사업)' 기획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심밀경소〉 3권의 번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불교학술원장 현각 스님은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논문을 연간 1편 이상 발표', '불교한문 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100단 이상 시행' 등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재임용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동국대 이사회는 번역 기준을 완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번 결정문에서 동국대의 재임용 거부처분에서 '불교한문문헌 번역과 증의 연간 100단'의 번역 대신 '해심밀경소' 3권을 번역한 것을 인정했다.

노덕현 기자

기업 연수, 템플스테이로 하세요

문화사업단, 감정 노동자 '기통산장' 프로그램 매뉴얼 내놔

세심 · 휴심선 등 명상 통해
직장인 스트레스 치유 담아
자율형 매뉴얼도 함께 공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근 선보인 기업연수 템플스테이 메뉴얼 2종

현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신 · 감정 노동자에 해당된다. 매일 두뇌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 노동의 생긴 부조화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과 심할 경우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이 같은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스님)이 정신 ·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 공개했다. 또한 기업 연수에 활용도가 높은 자율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

정신 및 감정노동자를 위한 기업연수용 템플스테이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산사에서 펼쳐지는 기펴기 법석-기통산장(氣通山場)' 이다. 정신 및 감정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및 여러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해 소통과 업무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초의차명상원 지장 스님이 연구한 '기통산장' 은 크게 휴식, 치유, 긍정의 마음 계발, 삶의 의미 찾기 등 4가지 주제를 토대로 자연환경과 명상수행, 전통문화를 활용해 8가지 수행프로그램으로 단계화했다.

숲속의 청량한 기운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는 세심선,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명상 휴심선, 과거와 현재 미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찾는 회심선, 자애명상을 통한 자기 존중감을 강화하는 자비선, 차와 명상을 활용해 심신 이완 및 행복을 체험하는 다향선, 긍정상상명상 활심선, 통찰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는 반야선, 생활 속의 명상실습 및 의미 실현의 방법을 알아가는 차담선이다.

불교문화사업단은 " '기통산장' 은 청정한 산사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감을 통해 휴식과 충전을 체험하고 전통문화와 불교수행의 원리가 접목된 실용적 방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심신 건강 회복,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 직무 만족도를 높이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발한 자율형 템플스테이 휴식이라는 참가자의 요구와 '행복의 씨앗을 찾아 가꾸자' 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철학을 반영시킨 것이다.

자율형은 아생여당의 기본 테마인 위로, 건강, 비움, 꿈을 기반으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참가자 이완 프로그램, 지도법사 스님이 진행하는 충전 프로그램의 유기적 운영을 권장한다. 대표 사례 템플스테이로 반야사, 도갑사, 수덕사, 법륜사 등을 소개해 일반 사찰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자율형 템플스테이 매뉴얼은 자율형에서도 사찰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됐다"면서 "이를 통해 참가자와의 관계 형성에 무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헌 개정안 다룰 임시 중앙종회 열린다

조계종 8월 12일… "15대 종회 원만회향" 참석 당부

8월 5일까지 종회 의안 접수
"절차상 하자 송구" 사과도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재차 다룰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7월 19일 공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앙종회는 공고문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종헌개정안' 이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돼 개최되게 됐다"면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발의된 중요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제15대 중앙종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종도들에 대한 의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원 스님들께서는 제15대 중앙종회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 14일 총무원 2층 회의실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중진의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임시회를 소집키로 결의한 바 있다.

중앙종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종헌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 조항을 어기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장 향적 스님은 회의 비공개 전 인사말을 통해 "종헌개정안 4건을 제19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원로회의 부의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려했다"면서 "15대 종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했으나 절차상 문제 발생했다. 종도들에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 법규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 등 제46차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 4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의안 접수기간은 8월 5일까지다.

한편,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199회 임시회에 앞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원로회의에서 건의한 입법안에 대서도 종헌종법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원로회의는 7월 10일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비구니 호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가 할 수 있도록 할 것 △원로의원의 징계는 원로회의 2/3의 동의를 받을 것 △사면 · 복권 · 경감의 대상에서 멸빈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종헌을 개정해 멸빈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중앙종회에 제안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황우여 의원 교육부 장관 자격 없다"

종자연, 황 의원 지명 철회 요구… "학교, 선교무대 전락 우려"

"참담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장관에 황우여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서 7월 16일 "교육현장이 종교차별적 선교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종자연은 황 의원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공사도 구분 못하는 신앙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를 시킬 인물"이라고 평했다.

황 의원은 이미 종교 편향 발언으로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황 의원은 2010년 12월에는 법조계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애중회 창립 50주년 축사에서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 신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며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종자연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 종교교육은 계속되고 있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막을 획기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황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교육 현장에서의 종교갈등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교육현장을 종교차별적 선교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강의석 씨가 기독교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강압에 저항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강씨를 퇴학 처분한 것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 한다"며 학교에서의 강제적 종교교육을 위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불공공덕 널리 베풀 수 있기를…"

진각종, 12일 해탈절 기념불사 거행

진각종은 7월 12일 해탈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부모님과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7월 15일 해탈절을 앞두고 열린 기념불사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주석처인 탑주심인당에서 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하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날을 우란분재를 베풀기를 권하였다"면서 "진각종은 양력 7월 15일을 해탈절로 삼고 선망부모와 고혼들의 왕생을 기원함은 물론 은혜에 보답하기를 서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진언행자는 크게는 온 인류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서원하고, 작게는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안녕과 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정을 서원해야 한다"면서 "해탈절 기념불사를 맞아 나와 더불어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불공 공덕을 널리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각종 8대 명절 중의 하나인 해탈절은 매년 7월 15일 신교도들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기수행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보은의 날이다. 특히 각 심인당에서는 원로스승 봉양기관인 기로원을 찾아 공양하고 법락회를 갖는 등의 보은행사를 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진각종은 7월 12일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 기념불사를 가졌다.

〈바로 잡습니다〉

7월 10일자 B4면 발췌문 끝 문장 가운데 "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 어떤 경계든 사량에 끄달리지 말고 남을 믿고 관하십시오"를 "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 게 관 어떤 경계든 사량에 끄달리지 말고 **나를** 믿고 관하십시오"로 바로잡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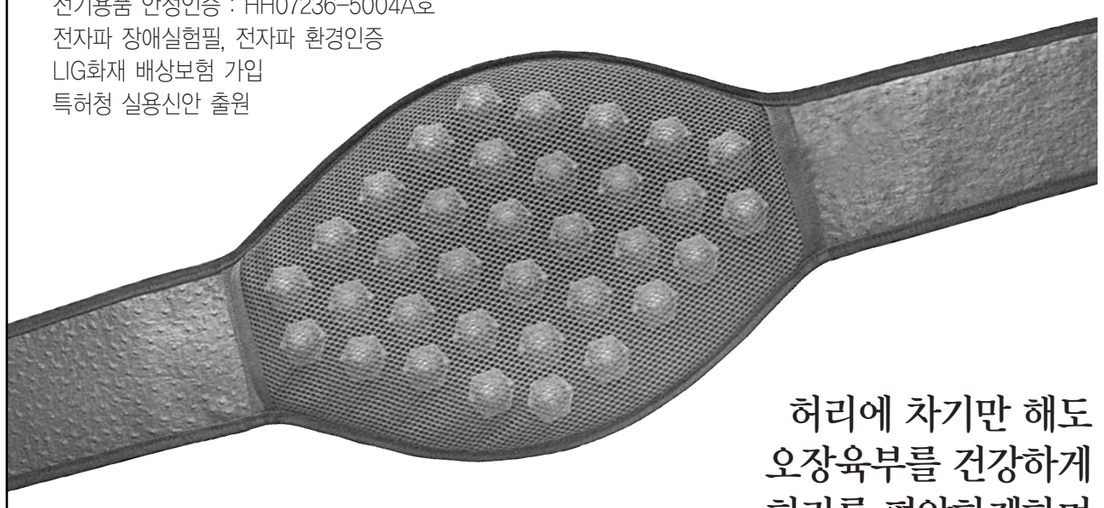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세월호 참사 100일

불교계 '아픔 치유' 나선다

오는 7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다. 위령재에는 유가족들의 헌화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추도사, 가족 대표의 추모사,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는 천도재 등으로 진행된다.

안산시불교연합회(회장 승현)는 태고종(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100일 추모재'를 개최한다.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날 추모재에서는 안타깝게 스러져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추모재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안산불교연합회장 승현 스님,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추모사를 낭독하며, (사)나누우리 회원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진도 팽목항에서도 귀환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린다.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본부장 법일)은 24일 오전 10시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귀환 특별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불교계는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미 정토회가 140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 서명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며, 조계종은 전국 교구 본말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7월 24일 서울 · 안산서 위령재
특별법 제정 위한 단식 이어가
향후 복지 대책 논의 세미나도
유가족 대표 "불교, 가장 도움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월 14일부터 시작한 단식 시위에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16일부터 동참했다. 현재 노동위원 도철스님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김병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노동위원과 집행위원 등 23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단식에 동참한다.

현재 조계종은 단식이 길어질 경우 종단 차원에서 여러 스님들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종단 복지 사업 등 실질적인 활동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3일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본 불교계의 역할-종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점검'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이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구자행 센터장이 자원봉사계에서 바라본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조계종단의 긴급재난구호 활동을 점검하며, 향후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복지사업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이 세월호 유가족의 편에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처를 보듬는 역할을 한 불교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기독교 인터넷 매체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명운동 요청에 제일 반응이 빨랐던 곳이 조계종이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자마자 국회 방문을 통한 정치권 협력 등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산의 한 교회 신도이기도 유 대변인은 법륜 스님의 정토회가 2주동안 140만 명을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법륜 스님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시만 듣고 의무적으로 따랐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유가족들은 숫자보다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그들의 태도에 더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가족 대표의 평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회와의 소통'이 불교계의 진정성있는 행보로 점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신성민 · 배현진 기자

"금강산 사업 재개 여러곳에 도움 요청"

자승 스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접견자리서 언급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대표가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끝까지 지켜준데 대해 현대아산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전면 중단됐다.

자승 스님은 "종교, 문화 등 민간교류는 핵, 정치, 경제논리와 분리해서 유연하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남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질감 회복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을 전후해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현정은 회장 역시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아진 데는 불교계 역할이 컸다"며 "남북공동 광복절 법회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은 "8 · 15 남북합동법회 추진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진 못했지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며 "그래서 '통일은 곧 공존'이어야 하고 '더불어 같이 살자'는 메시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통일의 씨앗이 싹트고 있으니 잘 이겨내라"고 격려했다.

현 회장은 "민간교류 만큼은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조 대표는 "6.29 만해스님 남북합동다례재는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다. 그러한 교류와 협력이 통일 과정이라고 본다"는 뜻을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이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불교방송 3개 지역 중계소 허가 취득

진주 · 대관령 · 강릉 등 3개소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지난해 7월 인천중계소(88.1MHz)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양양 중계소(97.1MHz)에 이어 7월 2일 경상남도 진주지역(88.1MHz)과 8일 대관령지역(90.9MHz), 강릉 괘방산지역(104.3MHz)도 중계소 허가를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허가취득으로 BBS불교방송은 서울본사와 6개 지방 방송국(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9개 중계소(안동 포항 창원 속초 인천 양양 진주 대관령 강릉괘방산) 등 전국에 16개의 주파수를 확보하여 전국 네트워크 강화에 일보 전진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추가 가청 가구수는 경상남도 진주가 10만 3천가구, 강릉괘방산과 대관령 중계소가 송출 가능한 강릉시, 동해시 일원, 평창군, 정선 일부지역의 13만 5천 가구이다. 이로서 해당 지역 불자들은 '우리동네, 불교방송 청취'의 오랜 발원을 이루게 되었다.

불교방송은 오는 8월 1일부터 오전 7시 BBS TV뉴스를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동시 방송하여 교계뉴스를 더욱 강화하고, 계속해서 라디오 난청지역의 중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세계 9점뿐인 고려 나전경함 '귀환'

국립중앙博, 15일 일반에 공개
불교 경전 보관용 제작 추정
모란당초 등 조각 2만5천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급 문화재 고려 나전경함을 기증받아 7월 15일 공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7월 15일(화) 고려시대 공예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보급 문화재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을 (사)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김정태)로부터 기증받아 공개했다.

경함(經函)이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함이다. 1231년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에서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대장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경함이 대량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나전칠기(螺鈿漆器)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며 남아 있는 고려시대 나전칠기 경함은 전 세계적으로 9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나전대모불자(螺鈿玳瑁拂子) 한 점만이 전해져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려 나전경함은 일본에서도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 나전경함은 2013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회 콜렉션위원회에서 여러 번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공동 확인을 거쳐 구입 및 기증을 확정하게 되었다.

나전경함은 높이 22.6cm, 폭41.9×20.0cm의 크기로 무게는 2.53kg이며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인 고려 나전경함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함은 고려시대 불화에서도 발견된다. 이 나전경함을 장식하고 있는 주무늬는 모란당초무늬이며 부수적으로 마엽무늬, 귀갑무늬, 연주무늬가 사용되었다. 기법상으로는 얇게 갈아낸 자개를 일일이 무늬대로 오려낸 줄음질 기법이 이용되었으며 마엽무늬와 귀갑무늬는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표현하는 끊음질 기법도 보인다. 이와 함께 꽃이나 원형의 무늬 안쪽에 다시 선각(線刻)을 하여 세부를 표현하는 모조법(毛彫法)도 나타난다. 또한 나전 조각만 2만5천개 이상 붙어있다.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에 따른 유물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상설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화사 팔공산 승시, 범불교 행사로 확대

자체 봉행위 결성…대구 불교 화합도 다짐

매년 동화사가 주최하는 승시가 올해부터는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범불교계 행사로 진행된다. 이에 동화사는 승시 축제 봉행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올해로 5회재를 맞는 동화사의 승시 축제는 장터 재현은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시연 등을 선보이며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잡아왔다. 승시축제를 시민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동화사는 대구 시내로 행사 장소 이전을 추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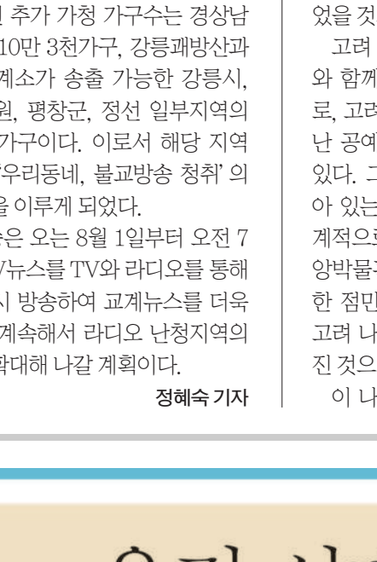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승시는 동화사의 대표 행사이지만 동화사가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교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내에서 행사를 주최하고자 한다. 현재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등을 축제 장소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동화사는 제5회 팔공산승시축제를 위한 봉행위원회를 결성해 조직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봉행위원회 위원장은 주지 덕문 스님이 맡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前집행위원장 능도 스님과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사무국장 영범 스님이 선임됐다.

승시는 10월 2일~6일 5일간 대구 동구 인근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범패, 발우공양,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들이 마련된다. 덕문 스님은 "대구가 불교 중심도시지만 요즘 지역 불교가 너무 가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내로 내려온 승시를 통해 흩어진 대구 불교가 하나 되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또 불교인들에게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우리 시대 왜 염불이 필요한가?
왜 염불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선화 상인 염불 법문

서방 극락이 그대의 집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 변형 신국판 288쪽 | 12,800원

근·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한 분으로 추앙 받는 선화(宣化)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 경전과 다양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염불 법문의 정수를 콕 집어 설한 책.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염불이 삶과 죽음의 고통바다 건너는 이치임을 깨닫게 한다. 참되게 염불하면 불보살이 감응하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피어남을 일깨워 준다.

"그대도 염불하고, 나도 염불하고, 그대와 나 무엇 때문에 염불하는가? 생사를 마치고자, 사바를 극락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니 그대도 없고 나도 없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물을 조용히 관하여 모든 것을 깨달으니, 번뇌는 끊어지고 무명은 깨지며, 거대한 사랑의 강물 삼계(三界)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행복한 삶과 죽음의 지혜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생이 먼저 올 수도 있음을 아는 눈 밝은 분들…
수행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가족과 친지, 이웃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분들의
뼈저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필독서…

죽음수업

■ 김영로 편저 | 변형 신국판 348쪽 | 15,000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감동과 치유의 책

"필자도 2010년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눈물이 나지만 대신에 저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게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귀한 스승님으로 가슴 속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중생들을 소중한 저의 가족,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죽음은 저의 아들의 죽음으로, 또한 저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 머리말 중에서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일 주 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대표 위촉

부산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7월 15일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로 위촉됐다.



행복한 여름 불교학교 열어

대구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26일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053)653-1572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월 15일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글로벌무역인턴쉽 합격

박성영 금강대 재학생은 7월 11일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정부지원해외인턴 프로그램 '글로벌무역인턴십 12기'에 최종 합격했다.

故 김종서 교수 49재 8월 19일 길상사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학자로서 불교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던 故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의 49재가 8월 19일 서울 길상사에서 진행된다.

7월 1일 새벽 별세한 故김종서 명예교수는 1924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나 1949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美조지비파디의대에서 교육학 석사, 1975년 서울대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한암 · 탄허 · 법정 스님 등 고승들과도 교유관계를 가졌으며 서울대 교수 시절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를 오랫동안 지도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길상사 길상선원에서 참선수행을 해왔으며 불교 자녀교육 방법론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여시아문 刊)를 펴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승무 예능보유 정재만 교수 별세



승무 예능보유자 정재만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7월 12일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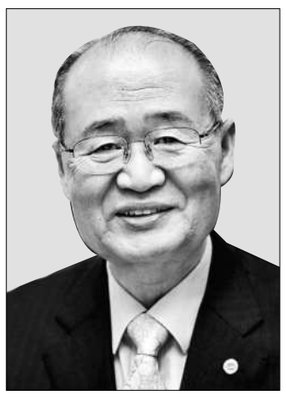
1948년 경기 화성 출신인 故정재만 명예교수는 한국춤의 대가인 한성준, 그의 손녀인 한영숙의 뒤를 이어 2000년 승무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2013년 정년퇴직까지 숙명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정재만무용단을 이끌었다. **노덕현 기자**

〈이전〉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7월 1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종로구 삼일대로 운현궁 SK허브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5-9949

"원 세우는 절차탁마 자리 될터"

제17차 정진대회 봉행하는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



8월 2~3일 철야염불, 좌선 · 행선
치악산 자연학습원 · 구룡사 일대서
회향 호마천도의식 및 축하공연도

전국염불만일회가 8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원주 치악산 자연학습원과 구룡사 일대에서 제17차 정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27년 5개월 간 진행되는 결사의 반환점이다. 이번 정진대회의 입재일은 1998년 8월 6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故김재일 법사 등의 주도로 전국염불만일회가 시작된 지 5840일을 맞는 날이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은 故김재일 법사와 함께 전국염불만일회를 이끌어온 결사의 산 증인이다. 변호사인 안동일 회장이 염불만일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3년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안동일 회장은 "불교를 접하며 평생 염불로 보리심 일으켜 중생의 행복을 이끌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며 "신행과 교육 그리고 포교가 함께 가는 불교에서 결사는 대중이 함께 모여 원을 새롭게 세우고 서로 절차탁마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회장은 당시 "염불만일을 발원한 것은 1만일만 염불하자는 뜻이 아니라 한 마디로 평생 염불하자는 것이었다"며 "염불 수행에서는 믿음과 함께 실천 수행을 강조한다. 신심을 가지고 발원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가짐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특히 염불결사가 많은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어 예부터 이어져 온 방법이었으며, 전국염불만일회의 만일결사는 한국불교에서는 6번째라고 말했다.

염불만일결사는 신라 경덕왕 17년인 758년 발징 스님이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진행한 것이 최초로 당시 스님 31명과 신도 1820명이 참여했다. 이어 조선 순조 2년인 1802년 건봉사에서 만일회가 구성돼 한국불교를 쇄신하기도 했다.

이번 제17차 염불정진대회는 그동안 2박 3일간 열리던 일정이 1박 2일로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안 회장은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번 전국염불만일대회는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가 캐치프레이즈"라며 "1박 2일 동안 염불정진 후에는 축하공연과 호마천도의식 등도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정진대회에서는 총 8시간 30분 동안의 염불 정진 뿐만 아니라 축하공연과 회향으로 호마 천도의식도 진행된다. 마지막날 새벽 3시 30분에는 자연학습원에서 구룡사로 이동하며 나무아미타불 행선염불이 진행되며 구룡사 대웅전에서 새벽예불과 함께 염불정진 후 다시 자연학습원으로 돌아오며 행선염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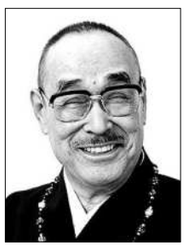
회향법회에서는 원주 성불원장 현각 스님이 법문하고, 대중이 발원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염불과 함께 육바라밀과 육염불 실천을 다짐하고, 나눔의 삶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자들의 정진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갈등분열 속에서 소통과 화합의 실천행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쟁으로 죽은 학생들 곁에…"

후지키 쇼겐 스님 49재, 제주 선운정사서 열려



"제 유골은 '제주국제평화공원' 조성지에 묻어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젊은 영혼들과 함께 잠들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별세한 일본 후지키 쇼겐 스님〈사진〉의 49재가 7월 18일 제주 선운정사에서 진행됐다. 스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학도병으로 참가해 1968년 오키나와에서 740명의 조선 학도병을 지휘했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인 그는 조선학도병 740인의 유골을 직접 수습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해 오키나와에 한국인 위령탑을 세웠다. 또 쇼겐 스님은 68년 전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에 사과를 하며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위령탑을 한국에 돌려주려는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 마음이 양국에 전달돼 'Lets Peace 한일공동기구'가 지난해 11월 출범하기도 했다.

쇼겐 스님은 생전 "유골을 평화의 섬 제주에,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740인의 한국인 청년병사와 함께 잠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언을 했으며 가족들은 이 유지를 받들었다. 6월 2일 스님의 유골은 동경 니혼바시에서 장례식을 거쳐 제주도로 건너왔으며 6월 7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선운정사에 안치됐다.

이번 49재에서 김원화 'Lets Peace 한일공동기구' 회장은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이며 사명"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스리랑카 진신사리 1과 이운

7월 20일~9월 15일 청련사에서 친견법회



장흥 청련사(주지 백우)는 6월 24~ 29일 불교문화 교류차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운 받아 한국으로 모셔왔다. 청련사는 이운해온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7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흥 청련사에서 봉행하고, 9월 20일 청련사 내 조성되는 호국 삼층석탑 복장에 봉안한다.

스리랑카와의 불교문화 교류 및 진신사리 이운을 위해 주지 백우스님과 교무 상진스님 등 청련사 스님들과 신도 30명으로 이루어진 불사봉행단은 6월 24일 스리랑카 대통령궁으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을 예방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당신의 옆에 자리를 만든 후 청련사 주지 백우스님을 앉게 하고는 미리사웨띠야 다가바(Dagaba : 진신사리를 모신 탑)에 봉안되었던 부처님 진신사리 1과가 들어있는 작은 탑을 경건하게 백우스님에게 이운했다. 이어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불치사리 이운의 역사가 담긴 액자도 선물했다. **김주일 기자**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비 모아 기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문화진흥팀은 7월 1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42만 5천원을 전달했다. 1년 동안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로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이다. 본래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자 진행하고있는 인경과 전통문화체험은 무료다. 모금액은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에 적립된다. **배현진 기자**

동국대, 안전교육 멘토링 협약



윤성이 동국대 미래인재개발원장과 윤소식 서울 중부경찰서장은 7월 18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인,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어린이 등 중구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국대 윤성이 원장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의 책무이자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책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위한 경찰과 대학간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구촌공생회, 케냐초교 펌프 완공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케냐 카지아도주 올마피테트 마을의 만해초등학교에 15번째 핸드펌프를 완공했다. 올마피테트 만해초등학교는 2012년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의 만해평화대상 상금을 기반으로 건립됐다.

2013년 4월 30일 기공한 만해초등학교는 120여 마사이족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만 건기에 왕복 7시간을 걸어 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핸드펌프는 영화사 방생회의 후원금 1400만 원으로 설치했다. **배현진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4년 동산불교대학 45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9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통신반

1년차	과 목	1. 근본불교 2. 반야사상 (반야심경 · 금강경) 3. 유식과 명상 4. 불교사의 전개 (인도 · 중국 · 한국) 5. 대승불교총론 6.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주명철교수
2년차	과 목	7. 밀교사상과 천수경 8.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9. 화엄경 10. 불교개론 11.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 · 다도) 12. 선불교
	교수진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김형준교수, 정엄스님,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활안스님, 김호귀교수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2일, 불교미술학과 9월4일, 선·명상학과 9월4일]

✲ 불교 대 학 원 개강 [9월2일, 9월4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6일, 범패의식반 9월3일]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4년 7월 1일부터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 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선정대학 개설 학인 모집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제천 금강사에 불교선정대학을 개설하여 활안큰스님을 모시고 선학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나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분, 선지식을 찾아뵙고도 문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사랑스런 상담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저희 불교선정대학을 찾으십시오. 반듯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

■ **교육 기간 :** 2년 (수시입학 – 원서 제출 후 교재 교부) **9월 12일 오후 2시 개강**

■ **교육 방법 :** 통신교육으로 이수 (년 4회 특강 및 수련 실시)

■ **교육 내용**

① 부처님께서 실천한 위빠사나와 자비선 (慈悲禪)	② 직지인심의 달마선 (達磨禪)
③ 육조대사의 반야선 (般若禪)	④ 천태대사의 지관선 (止觀禪)
⑤ 화엄경의 무애선 (無碍禪)	⑥ 한국불교의 간화선 (看話禪)

※ 거리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기숙사에 들어와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인은 실비의 비용으로 공양 제공 및 독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1-14번지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4981
홈페이지주소 : http://kumgangnet.com (한글주소 : 한국불교금강선원)

■ **제천연락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금강사 내 한국불교선정대학 ☎ 043)646-3800



조계종 교육원은 7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사 승가대학 단체팀의 '대령소' 시연 모습.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원 학인 스님들의 '영가 전에 경전합송'.



청암사승가대 학인 혜강 스님의 랩 반야심경. 대중 호응은 최고였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의 '불러요 다라니' 시연 모습.



승가대학 간 열띤 응원전도 이번 대회의 볼거리였다.

한 여름, 학인 스님들의 염불에 매료되다

조계종,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 대상 보경 스님 · 청암사승가대학

"젊은 그대들이여! 이 세상은 무한한 에너지요, 중생들의 수행바다!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흐르며 희망 속에 있느니라."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고우 스님의 창작 염불 中〉

일선 사찰에서 흔히 듣는 염불 의례가 아니다. 내용도 어려운 한문이 아닌 순 한글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던지는 발원들이다. 형식은 파격이다. 세속의 대중음악과 염불이 자유롭게 크로스 오버되며 어깨춤이 절로 들썩이게 한다.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세대 스님들이 하면 랩도 염불이 된다.

염불 대중화의 다양한 시도를 7월 17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염불시연대회'는 보여줬다.

종단 사상 최초로 열린 이번 학인염불시연대회는 전국 15개 승가교육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오전 예심을 거쳐 본선에 개인 12명(사미 6명, 사미니 6명), 단체 8팀이 진출해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당초 대회는 총무원 지하 공연장 실내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승가대학 학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조계사 야외 특설 무대로 자리를 옮겨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사미니 스님의 창작염불 호응 최고

오후 2시 시작된 본선은 사미 · 사미니 스님이 뚜렷한 경향 차를 보였다. 사미 스님들이 전통 염불 시연에 중점을 뒀다면 사미니 스님들은 창작 염불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에 임했다.

특히 사미니 스님들의 창작 염불은 신세대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여 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처음으로 시연한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고우 스님은 '2600년 전 부처님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소통의 발원문'을 창작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대중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으면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고우 스님의 창작 염불은 문답에 강약을 둬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했고, 현대적인 리듬을 가미해 눈길을 끌었다.

6번째 시연자로 나선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혜강 스님은 전통 염불과 랩이 어우러진 새로운 반야심경을 시연했다.

"아~ 마이크 테스트합니다"라며 발랄하게 등장한 혜강 스님은 바로 "편하게 손뼉 치세요"라고 대중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랩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광장한 지혜, 완전한 지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법문. 관자재보살님 완전한 지혜 향해 수행하실 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각, 나라고 할만한 것 없다는 것 바로 보시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셨다구."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견 스님은 광명진언과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을 창작 염불로 묶어내 눈길을 끌었다.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를 타야 훔"의 광명진언에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이 믹스되니 요즘 말로 '중독성'이 높은 염불로 재탄생하게 됐다.

아예 어린이 · 청소년용 염불을 새로 만들어 시연하는 단체도 있었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은 '불러요 다라니'라는 제목의 창작염불을 시연했다. 기존의 신묘장구대다라니에 앙증맞은 바라 율동과 쉬운 운율을 가미해 누구나 즐겁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15개 승가 교육기관서 300여명 참가
예심통해 개인 12명, 단체 8팀 진출
랩 이용한 창작 염불 등 새로운 시도
일반인 이목 집중…염불 대중화 기대

본심에 오르진 못했지만 아미타부처님을 만나 극락세계로 간다는 내용으로 '임종염불컬'을 준비해온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은 별도로 시연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수상 결과에도 창작염불은 강세였다. 4시간여의 경합 끝에 대상에는 개인 부문 운문사 승가대학 보견 스님(광명진언+이산혜연선사발원문)이, 단체 부문 청암사 승가대학(불러요 다라니)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와 단체에는 각각 상장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에는 개인 부문 청암사승가대학 고우 스님(2600년 전 부처님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소통의 발원문)과 송광사 승가대학 혜공 스님(복청게)이, 단체 부문에는 운문사승가대학(대령소– 착어, 전령게)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설정 스님 "염불발전위원회 만들자"

학인 스님들의 불교의례의식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배양하고 염불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학인 스님들의 열정에 감탄했다.

시연대회의 고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염불은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이라는 견성의 가치를 이루는 방편이자 불교문화의 꽃"이라며 "오늘 시연대회는 옛 것과 창작이 잘 어우러져 앞으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음을 가늠케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종단에서 '염불발전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하며 "위원회는 어산 스님을 중심으로 고전, 시, 국문학 전문가들로 구성해 옛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염불을 창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은 "아직 염불이 성글지 않았지만 학인 특유의 풋풋함이 살아있어 보기 좋았다"면서 "학인들의 시도처럼 전통과 창작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면 한국불교의 염불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염불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한다"면서 "대회를 계기로 모든 분들이 일상에서 염불을 생활화해 몸과 마음이 부처님을 닮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대상 수상자 인터뷰

"모든 것이 도반 스님 덕분입니다"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견 스님



"1회 대회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수상할 것으로 생각 못했는데 막상 수상하니 매우 기쁩니다."

광명진언과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을 섞어 새로운 형식의 염불을 보여준 운문사승가대학 학인 보견 스님〈사진〉은 대상 수상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보견 스님은 이번 창작 염불의 특징을 '중독성'이라고 했다. 애초 중독성이 높은 광명진언에 빠른 템포로 이산혜연선사발원문이 엮어내니 몰입도가 높아졌다. 실제 경쾌한 염불과 북소리에 대중들은 시종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연습에 매진했다.

대상 수상의 기쁨에 상기된 스님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즐거워야 대중도 즐겁다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



청암사승가대학 단체팀〈사진〉은 시종일관 유쾌했다. 수상직후 기념촬영에서도 '긍정 에너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신나고 즐겁게 하자'는 게 우리 팀의 모토입니다. 결과가 어쨌든 신나게 모든 것을 보여주려했습니다. 우리가 신나야 재가자들도 쉽게 염불을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명의 스님들이 한 몸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창작 염불 기획은 3달 전에 시작했고, 연습은 매일 3~4시간 씩 2달에 거쳐 이뤄졌다.

청암사승가대학 참가자들이 색다른 창작염불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학인 스님들은 어른 스님들의 배려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다음 시연대회가 열리면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염불을 하고 싶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청암사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처님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염불을 창작하고 싶습니다." 신성민 기자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소중한 그리움으로 함께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족에게 영원의 안식처를 제공해 드리는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 봉안



천혜의 명당 [수락산]에 자리한 [천운사]는 기존의 납골함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골의 부패와 악취, 해충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끝에 [천운사 자성사리 결정체]를 개발했습니다.

[천운사 자성사리]는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결정체로
혐오감이나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고인의 영가를 명예롭고 소중하게 모시는 [천운사 자성사리]는
화장된 고인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고인의 유골만으로 생성하는 자성사리이며
수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어도 잘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이제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하실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벌초, 성묘, 제사 등 시간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중한 고인을 [천운사 지장전 자성사리]에 봉안 하시면
지장부처님의 월력으로 극락환생 발원.
잘못된 묫자리 또는 화장 후 유골의 부패와 해충으로 인한
집안의 우환과 부정적 악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운사 자성사리]는 가정집, 교회, 성당, 사찰, 납골묘, 남골당 및
문중사당 재실 등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천운사]는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 입구에 자리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의정부 IC에서 2km거리에 있으며,
수락산 전철역 3번출구에서 700m에 있어 찾아 오시기 아주 편리합니다.

국제선불교 조계종 천운사 지정전에 지장부처님 안에 자성사리로 봉안하시면
매일 영가 축원과 재수음식을 차려 정성껏 축원을 해 드립니다.



국제선불교조계종 천운사 TEL.02)952-9918 / HP. 010-3566-3019 분양문의 (주)천운효행 TEL.02)935-0521 ※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00-6 (수락산)

신행 단신

파라미타·병불련, 인도 봉사 펼친다

8월 18일까지 인도 아삼지역서 빈곤주민 진료·교육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진섭, 이하 병불련)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도 아삼 지역에서 '아삼 인디아 국제 공익활동'을 펼친다.

안전행정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는 단장 정여 스님, 부단장 선보 스님(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과 파라미타, 세종파라미타 소속 청소년 25명과 파라미타 지도교사 3인, 병불련 및 동국대의료원 의료진 등 3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아삼 현지 의료진과 연계활동을 통해 아삼 빈곤지역 청소년 및 주민을 진료하고 건강관리 교육 지원 활동에 나선다.

파라미타는 "한국의 선진 의료팀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구촌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국제 성장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제16회 산사워크샵

8월 16~17일 성림사서, 데이비드 브레이져 박사 초청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제16회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상담개발원을 비롯해 불교심리치료학회, 불교상담학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8월 16~17일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 진행된다.

행사에는 데이비드 브레이져(David Brazier)박사를 초청, '응용불교심리학으로서 선 치료 – 원리와 방법'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코스에서는 인간관계 상황에 불교심리학을 적용한 선 치료의 기본적 원리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브레이져 박사는 영국 아미다 트러스트(Amida Trust) 창립자로서 불교수행지도자이자 불교심리치료사 및 임상감독자, 타자중심치로의 공동창시자다. 국제 선치료 연구소(ITZI)를 설립해 영국, 스페인, 벨기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불교심리학에 뿌리를 둔 심리치료와 불교심리학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워크숍 참가자에게는 선치료 연구소(ITZI)와 아미다 아카데미의 기본교육과정과 선치료·불교심리학의 전문가 자격증(diploma) 프로그램을 위한 이수시간(2일 10시간) 제공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선착순 60명 모집이며 참가비는 주최단체 회원 및 스님은 10만원, 일반인은 15만원이다. (02)334-6465

이나은 기자

"힐링캠프로 가족의 소중함 발견"

법주사, 가족 힐링캠프 2회 실시

법주사(주지 현조)는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법주사 연수국은 "올해는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하기 위해 '쉼과 행복이 있는 법주사 2014 가족 힐링 캠프'를 주제로 진행한다"며 "다소 위축됐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캠프는 1차 8월 1~2일, 2차 8월 8~10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현조 스님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주제 법문 외에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나눔을 통한 행복 줍기? '가족 간의 이 한마디 인생 빚을 갚는다' △물놀이 등으로 마련됐다. 이밖에 '기적을 만드는 사랑 그리고 용서'라는 테마로 가족 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세족식을 마련해 그동안 소연했던 가족 간의 소통과 위안을 선사한다.

현조 스님은 "이번 가족 템플스테이는 빡빡한 일정 보다 가족이 함께 대자연속에서 여유를 누리며 깨어있는 휴가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캠프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법주사 템플스테이 사무국 또는 이메일(beopjusa@gmail.com)으로 하면 된다. (043)544-5656

이나은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약 다짐"

조계종 포교원, 지역포교 활성화 위한 순회 간담회 잇달아 열어

지역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순회 간담회를 시작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7일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자비나눔 공동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128개 팀으로 조직된 619명의 인천시민이 참석, 오는 9~10월 개막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 회장 종호 스님, 자비명상대표 마가 스님, 소프라노 정행 스님을 비롯한 인천지방청 라성린 불자회장,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이인희 사무차장 등 주요내빈도 참석했다.

축사에서 인천사암연합회 회장 종호 스님을 대독한 고문 선일 스님은 "전법 확대의 모범이 될 자비나눔 공동체가 인천에서 첫 탄생을 한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으로 인천 자비의 빛을 밝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장 종연 스님은 축사에서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것도 포교의 일부"라며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인천불교가 진일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호 스님은 구역별 팀장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교 홍보대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7일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자비나눔 공동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알렸다.

충남… 13일 수덕사서 연찬회
언론사불자연합회 16일 힐링법회
인천… 17일 자비나눔 발대식

발대식 이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진행하는 '국민힐링 콘서트'도 마련됐다. 지원 스님은 강연에서 네 가지 자비심인 '사무량심'에 대해 강조하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마가 스님과 정행 스님도 행복명상과 음악명상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포교원은 "자비나눔 공동체 활동을 구심점으로 인천 전법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지난 7월 13일 순회간담회 일환으로 예산 수덕사에서 '충남 내포 지역의 포교현황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이 '충남 내포 포교,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수덕사 포교국장 경학 스님이 '충남 내포지역의 포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휴 스님은 "내포지역 전체의 포교활성화를 위해 교구와 지역사찰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곳은 내포신도시"라며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은 물론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포교인력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신도시 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학 스님은 제7교구가 담당하고 있는 충남과 내포지역 포교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농어촌 사찰에서는 초하루법회마저 지역주민들이 일터로 향하는 관계로 법회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많지만 교구는 각 지역 주지협의회 모임과 월1회 교구 확대 종무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많은 포교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산중사찰과 도심사찰의 차별있는 포교정책을 종단에서 모색해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언론인들의 행복을 위한 명상과 차 콘서트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정일태)와 KBS 불교연구회는 7월 16일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명상과 차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마가 스님, 정행 스님과 여의도 포교원장 현진 스님을 비롯해 KBS, BBS, 조선일보 등 언론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지혜로운 생각은 행복을 부르고, 어리석은 생각은 불행을 부르는 등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이뤄지고, 세상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원 스님은 "생명의 에너지는 호흡으로 이뤄진다"며 현대인들의 건강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호흡법을 전수했다.

이어 동국대 음대 강사인 정행 스님의 공연과 마가 스님의 명상체험도 마련됐다.

마가 스님은 "마음 속에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귀하게 행동하면 귀한 대접을 받고, 천하게 행동하면 천한 대접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 회장은 "오늘 배운 명상으로 평소에도 행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라역사와 문화 체험하러 떠나자"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신라역사캠프' 7월 28~31일 경주서

여름방학을 맞아 신라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열린다.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7월 28~31일 위덕대학교 경주일대에서 '신라역사캠프'를 개최한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진각종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종단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진언행자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신라역사캠프'는 법우애를 만들고, 키우고,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포크댄스와 지도자들의 공연,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캠프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법우애를 만드는 한편, 경구 암송과제 등 조별 미션수행 프로그램으로 종단 관련 기본교육과 함께 법우애를 키울 수 있는 팀웍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 캠프를 통해 배운 서원가와 율동 및 다양한 형태의 조별·개인별 장기 발표시간으로 법우애를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도 삼밀수행 및 명상으로 '자성찾기', '인연의 고리 마라톤' 등을 통해 수행과 인연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은 물론 풍등만들기, 신라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대동제, 체육활동, 물놀이 등을 통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나은 기자

비로자나국제선원, 선무도·명상 교육 실시

어린이·청소년·일반인 위한 프로그램 진행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선무도 명상 수련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금 오전반(10시~11시 20분)과 오후반(7시~8시 20분, 8시 30분~9시 50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어린이반은 수·금요일 오후 4·5시에 진행된다. 명상 프로그램은 어린이·청소년반(목요일 오후 4시 50분, 5시 50분), 일반인반(목요일 오후 7시 50분, 8시 50분), 일요반(오후 3~4시 3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우 스님은 "선무도는 1700년 된 한국전통의 심신 수련법으로 신심안정과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 및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5-5349



선무도는 1700년 된 한국전통의 심신 수련법으로 신심안정과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 및 다이어트에 좋다.

이나은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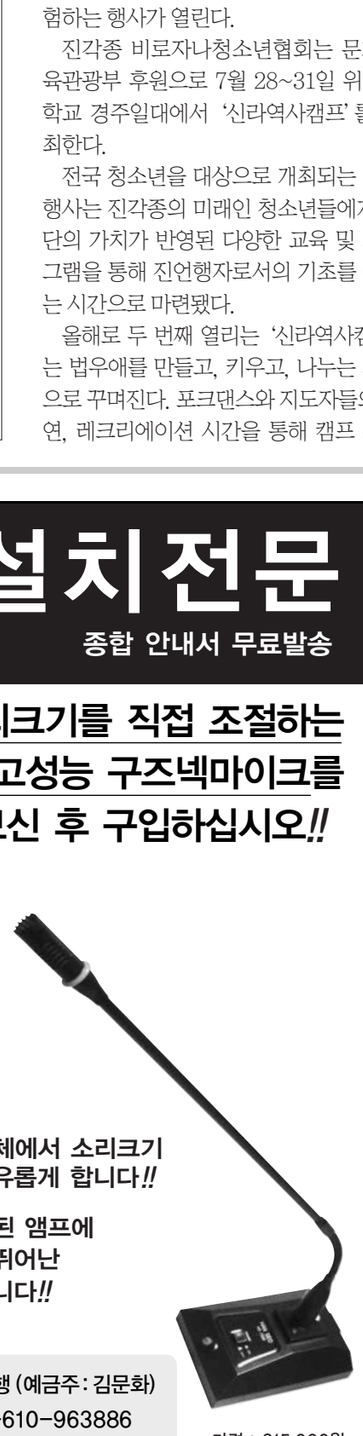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7월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중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통 큰 기부보다 소소한 개인 후원 대세”

교계 모금 크라우드펀딩 인기
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등
사업이나 모금방식 다양화 장점
공익후원 · 문화창작 지원도 가능

2013년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의 숫자는 1만1579개. 저마다 필요성을 내세우며 진행하는 사업 틈에서 일반인 눈에 띄어 후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든든한 정기 후원금이 뒷받침돼 준다면 걱정 없지만 한 교계 NGO 단체의 경우 1년 사업비 중 10%만이 정기후원금으로 충당된다. 나머지는 거의 캠페인별로 모금 사업을 따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아직 기부문화가 자연스레 자리잡지 않은 교계 정서상 개인에게 많은 후원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크라우드펀딩이 국제구호단체나 소외계층 지원의 주요 기부수입원으로 떠올랐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전문 자본가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금액의 기부, 후원을 얻어내는 온라인상의 모금 활동.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소외계층 지원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 공익후원 뿐 아니라 문화창작지원까지 아우른다.

기업이나 시민들의 후원으로 꾸려가는 NGO 단체 입장에선 활용에 따라 사업이나 모금 방식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일종인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 희망해 등은 여전히 후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요한 모금 창구가 된다.

네이버 해피빈은 2005년 개설이후 올해 누적기부자 1천만명과 누적모금액 390억원을 넘었다. 다음 희망해 역시 누적기부자가 약 500만명이다. 소외계층 지원부터 공익이슈 등 다용도로 모금을 제안할 수 있다. 외규장각 도서 환수 모금 캠페인과 독도 광고비 모금 캠페인 등이 이루어졌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지는 기부덕분에 100원 단위의 소액기부가 주를 이루지만 푼돈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stop! hunger!’라는 캠페인을 7월초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탄자니아 학교 학생 300명에게 한달동안 옥수수죽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영양지원 프로젝트였다. 8일간 짧게 진행된 모금에 96명이 참여해 24만 7800원을 모았다. 많게는 3만 6800원부터 적게는 100원의 기부까지 네티즌들의 십시일반 참여로 당초 목표금액이었던 23만 4500원을 무난히 달성했다.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네이버 해피빈에 가입한 이후 총 모금한 금액은 3천8백여만원. 모금횟수는 43회에 이른다.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곳은 NGO 단체뿐만이 아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은 뇌성마비에다 산소발생기로 호흡보조를 받아야 하는 중도지체 장애인인 최진석 군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해피빈을 통한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첫 10개월간 모금된 금액은 1천만원. 그 다음 해에는 990만원이 모연됐고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모금함에는 이미 495만원이 적립됐다.

최진석군 어머니는 “해피빈을 통해 치료비만 지원받은 게 아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스스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 격려와 지지를 모으는 기반이 된 것이다.

전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한 모금도 실시되고 있다.

와디즈(www.wadiz.kr)는 자금이 필요한 곳에 대중의 참여를 연결해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로터스월드에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모금 캠페인. 오른쪽 부분을 보면 현재 모금 상황이 그래프로 제공된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와디즈를 통해 한국 동화책을 미얀마에 지원하는 사업 ‘책 읽어주는 코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출판의 자유가 제한돼 있던 탓에 미얀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거의 전무하다. 8천원부터 10만원까지 후원을 받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금액별로 엽서세트, 파우치, 에코백 등을 제공한다. 모금사이트가 아닌 전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터스월드측은 일방적으로 금전을 주고 끝나는게 아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기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한 달 기한으로 시작된 모금함에는 일주일만에 1백18만원이 쌓였다. 목표금액 300만원의 40%를 달성한 것이다.

로터스월드측은 5명으로 이루어진 자원활동가들의 개인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겠냐고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가 유의미한 것은 NGO와 NGO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로터스월드는 모금을 맡고 따비에라는 미얀마 NGO단체가 동화책 제작을 맡는 협업 프로젝트인 셈이다. NGO 뿐 아니라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교계 어느 단체에서도 활용만 잘 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효과는 모금에 머물지 않는다. 한 네티즌은 “꼭 알아야 하는 사회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일컬어 돈보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며 대중으로부터의 좋은 평판이 성공의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예술적 끼 충만한 청소년 찾아요

마을사진 동아리 · 문화축제 참가자 모집

서울가양7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민)에서는 사진 동아리 ‘마을알리미’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양동에 대한 마을 사진 교육 및 촬영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구성해본다. 차후에는 사진 공모전, 현장학습,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모집은 7월 21일까지다. (02)2668-8600

이와 더불어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만들기를 위한 ‘2014 부천청소년문화축제 Fantastic Youth’ 행사를 개최한다. 부천지역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밴드, 댄스, 노래 분야 경연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8월 16일 오후 6시부터 오정대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본선은 9월 27일 석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예선 수상자들에게는 문화상품권과 상장이 수여되며 본선 수상자에게는 부천시장상, 교육장상 등의 상장과 문화상품권이 시상된다. 본선 대상 수상자는 9월 27일 행사 당일 부천시민음악회 출연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기간은 8월 1일까지다.(032)681-0110

배현진 기자

손수건 직접 만들어 어르신께 선물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에코아트 나눔 캠페인

대전 보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한화그룹,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한화 예술더하기’ 에코아트 나눔 캠페인을 7월 17일 진행했다.

한화예술더하기 사업은 문화예술과 접목해 환경인식을 높이고자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온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2~6학년 아이들은 환경캠페인을 직접 기획해 보고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이날 친환경 손수건을 제작한 아이들은 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든 손수건이 전달된 곳은 인근에 위치한 새출발 축복의 집 노인요양원이다. 양희옥 원장은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손수건을 제작했다는 데서 기특함과 고마움을 느꼈다”며 “손수건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예술더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손수건에 글씨를 써 넣고 있다.

보문종합사회복지관측은 “그동안 받는 것에 익숙했던 아이들이 직접 캠페인을 준비하고 공예품을 만들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리는 과정을 통해 환경사랑 실천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사랑의 안전 울타리’로 고독사 예방

광진복지관, 홀몸 노인 비상연락체계망 구축

서울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망 구축에 나섰다.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는 사랑의 울타리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직원이 동원돼 광진구 내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 대상 어르신은 759명. 25명의 전 직원이 하루에 평균 2명의 어르신을 담당한다.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확인했을 경우나 2회 이상 안부확인이 불가할 때는 주변 사람이 일차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운 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직접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측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폭염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안부전화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정서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 안전 울타리는 독거어르신의 안전망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알콩달콩 친해졌어요”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 이용 어르신들이 7월 16일 인근 유원지로 소풍을 떠났다. 알콩달콩 사람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요리, 다도, 건강체조 동아리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별로 모임을 가져왔지만 한꺼번에 17분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서로 어색함도 잠시, 계곡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랜만에 물놀이를 즐긴 덕분인지 노래와 춤이 저절로 나왔다.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한결 친해진 어르신들이 ‘우리 친해졌어요’라는 문구를 든 채 활짝 웃고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문화시설 수시대관

공공시설 활성화로 시민 편의 제공

서울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에서 하반기(8월~12월) 문화시설 수시대관을 예약 · 진행한다.

대관 가능 시설은 5층 체육관(농구연습, 체육활동) 150석, 소극장 53석(세미나, 강연, 연주회), 4층 음악실(오케스트라연습, 합창) 40석, 댄스연습실(댄스, 발레, 댄스스포츠), 세미나실 20석(워크샵, 회의)이며 각 시설마다 소정의 대관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 보련 스님은 “지역 내 기업들과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관 신청을 원하는 각 기관 및 단체, 희망자는 전화를 통해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1시간 기준으로 1만원부터 10만까지다. 청소년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육관의 경우 5만원에 대여할 수 있다.

사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02)550-3632

배현진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 정부는 2014년 6월 15일 발표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4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사 1부
- 최종석적증명 1부(영문)
- 여권용사진 10매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8월 15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미래에 부처가 되겠다는 범부들 등장

화쟁아카데미 · 시민행성
조성택 교수(고려대)

1강 '샤키야무니 붓다 등장의 역사적 배경'
2강 역사적 붓다의 재구성
3강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4강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5강 무불시대의 붓다들
6강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대승불교적 요소는 일찍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자체는 상당히 뒤에 나타납니다. 기원전 50년에서부터 대승교단이 성립되는 400년 경까지의 500년 정도의 시간을 보살시대, 무불(無佛)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살시대에는 상비(常悲)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늘 울고 다니는 보살이라는 뜻이죠. 저는 〈반야경〉을 읽으며 늘 울고다닌다는 그 뜻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보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울고 다닐 수 있는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상비보살이 어떻게 진화해왔나를 살펴보면 대승불교의 등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보디사트바의 보디는 깨달음의 지혜 '보리'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보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살이 여성신도를 가르키는 용어지만 원래 '보살'은 부처님 전생을 일컫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등불수기〉에서 보살의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보살은 미래의 성불이 확정된 존재를 말합니다.

〈마하바스투〉에서는 보살 이전의 예비적 단계를 자성행, 원성행, 순성행으로 나눠어 부처님 과거 전생이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자성행은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이며, 원성행은 발심한 단계를, 순성행은 서원대로 순조롭게 수행하는 것을 뜻하죠.

대승불교에서는 범부보살의 등장도 흥미롭습니다. 대승불교인으로서 성불하겠다 서원을 세운 사람이 범부보살입니다. 이는 오직 대승불교에게만 있는 개념입니다. 종교적 의미로 보면 부처님 전생의 용어를 자신의 현생에 사용한 것이 됩니다. 나도 현생에서 부처님 전생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부보살이 중요합니다. '발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먼훗날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로 능동적 주체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발로부터 모아진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상으로서의 대승과 교단으로서의 대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일교단으로서 대승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승사상을 가진 경전들은 기원전 50년 경 〈반야경〉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 대승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어떤 정체성은 갖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폴윌리암스는 〈Mahayana Buddhism〉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승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결코 하나의 단일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파도 종파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정신적 운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른 정신적 운동들과 구별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획득하는 그러한 것이다."

대승불교의 출발점을 사상적 철학적 개념으로 찾지만 저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즉 종교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내적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근원적으로 문제의식이 있고 이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대중들의 내적 동의 말이죠. 지금도 다양한 불교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뚜렷한 근원적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지만 구심점은 없죠.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현상들을 역사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원전 50년에서부터 대승교단이 성립되는 400년 경까지의 500년 정도의 시간을 보살시대, 무불 시대를 일컫는데 사실 이 시대는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비보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불시대의 '울고 다니는' 보살을 뜻합니다. 상비보살은 꿈에서 부처님을 보고 수행을 시작하고 제석(帝釋)과 만나 길을 떠나고 선정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비보살의 내러티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육도집경(六度集經)〉에 편찬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살이었을 때 이름이 상비였다. 상비보살은 늘 울고 다녔다. 그때는 무불(無佛)의 시대였으며, 경전은 다 없어지고, 사문도 성인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살은 부처님을 뵙고 오묘한 가르침을 듣는 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더럽고 탁하였으며, (사람들은) 옳은 것을 거슬러 악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살은 근심이 되어 슬피 울며 다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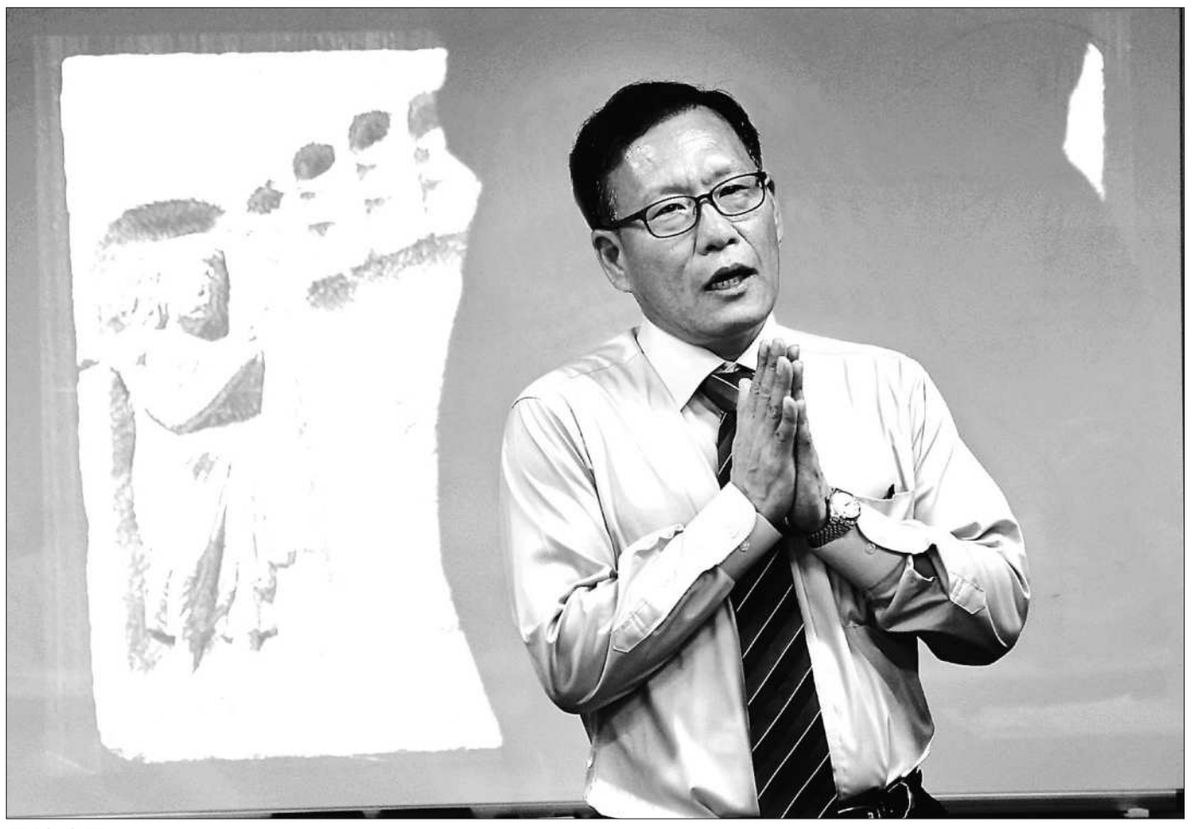
여기서는 부처님을 찾아 헤매는 상비 보살의 모습도 묘사해 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삼계가 다 공한 것이다. '나타난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환(幻)과 같은 것이다. 한 번 나타나고 한 번 멸(滅)하는 것이 마치 물거품과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경을 설할테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잘 들어라. 여기로부터 동쪽으로 이 만리(二萬里)를 가면 간다바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모든 보살들의 성(城)이다. 여러 보살 가운데 가장 귀하고 덕이 높은 보살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법래보살이다. 그 보살은 모든 경전을 다 품어서 그 지혜가 무한한데, '반야바라밀의 경전'을 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각기) 그 경을 '받는 자' '독송하는 자' '쓰는 자' 그리고 '경의 근원을 정하는 자' 들이다. 가 보아라. 반드시 너의 스승이 되어 네게 부처를 찾도록 권할 것이니 빨리 달려가라. 너를 위하여 '내외'의 '지혜바라밀'의 밝은 덕을 설할 것이다."

여기서 삼계가 다 공하고 실제하는 것은 환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는 데카르트에 와서야 자신의 감각 경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빠른 것이라 할 수 있죠. 불교의 출발점 자체가 모든 것은 환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정에서 깨어 보살은 주위를 살폈으나 부처님들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 슬퍼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들의 신령스러운 빛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간 것인가?"

이 대목은 상비보살 이야기의 핵심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살시대의 한 전형이 상비보살이며 이후 4~5백년간 상비보살은 여러 불교 텍스트에서 계속 진화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상비보살은 대승불교를 발전시킨 존재입니다. 보살시대 정점인 대승을 완성해 가는 존재가 상비보살입니다.



조성택 교수는 … 1957년 부산에서 출생했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했으며, U.C 버클리에서 인도 초기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 비교종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계간 〈불교평론〉,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 단장,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철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불이상(학술 부문), 2011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B.C 50~A.C 400까지 무불 시대
보살시대 한 전형 상비보살 탄생
대승불교의 진화와 밀접한 연결
"대승불교 출발 종교성에서 찾아야"

이 시대 미술작품들은 불상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발만 그려 넣는다거나 법륜을 그려 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부처님의 부재를 설명했습니다. 무불의 시대는 위기 사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육왕경〉에서는 왕자(푸샤미트라)의 치세하에 불교도들이 무자비하게 처형당했고, 스투파와 사원들이 파괴되었으며, 심지어 승려의 목에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쇼카 왕 이후에 불교의 탄압이 시작되고 중앙아시아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여러 혼란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열반했는데 화장이나 매장을 안 하고 숲속 어딘가에 숨어 부처님의 가사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뒤를 이을 누군가가 나타나면 가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무불시대 붓다를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소리로 듣는 경우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하느님을 목소리로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상비보살은 이런 목소리의 모티브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불교의 무대가 도시로 바뀌게 되고 경전을 부처님의 몸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불교 경전을 법신이라고 하죠. 불교의 근본 신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3승려들이 머무는 곳에는 사리불탑(舍利弗塔)·목련탑(目連塔)·아난탑(阿 難塔)·아비담탑(阿毘曇阿毘曇) 그리고 율탑(律塔)과 경탑(律經塔)이 세워져 있었다. …설법이 끝나면 사리불탑에 공양을 하고…비구니는 아난탑(阿難塔)에 공양을 하고 … 사미(沙彌)는 라훌라탑(羅云 塔)을 공양한다. … 아비담 논사들은 아비담탑을 율사들은 율탑을 공양한다. 대승(摩訶衍人)의 사람들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문수사리·관세음을 공양한다. 4세기 법현, 〈불국〉

대승을 믿는 상좌부는 대중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세기경 대승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빛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인가 여기에 다양한 답을 하는 대승불교가 있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저에게 위로와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고 홀연히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 이제 이 모든 부처님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저에게 일러 주소서"라는 상비보살의 간청에 대해 담무갈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여(如如) 함은 움직임이 없으니 여여(如如)함이란 곧 여래이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생겨남이 없는 것'(無生)은 오고 감이 없으니, '생겨남이 없는 것'(無生)이란 곧 여래입니다. '실제'(實際, reality)란 오고 감이 없으니, '실제'(實際, reality)란 곧 여래입니다. 공(空)이란 오고 감이 없으니 공이란 곧 여래입니다."

보살시대에서 대승이라 하는 경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상비보살의 진화는 대승불교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살시대를 통해 대승불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불시대는 미래의 부처가 되겠다는 존재들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향도는 21세기 새로운 정신문화 운동"

7월 18일 '문향' 창립 및 기념학술세미나 개최


박희준 동국대 교수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불법이 구현된 세계를 의미하는 '향'(香).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 중 향공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엄경〉 25개 수행법 중 향과 관련된 수행법이 3가지에 이를 정도로 불교와 향의 관계는 깊다.

이런 불교향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현대인에 맞는 새로운 향기법을 보급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연구활동을 진행해 온 '우리전통향문화를 찾는사람들 문향(聞香)' 이 공식창립과 함께 첫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문향은 〈유마경〉의 향적불품에 나오는 문사묘향의 줄임말이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문향 대표 능혜 스님은 "현재 향문화는 외형에만 치우쳐 있다"며 "우리 차와 향문화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주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단절된 우리 향문화를 살리고, 향약재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살피려고 한다. 또 향도(香道)로 불리는 향문화를 제대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향도는 21세기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향이 우리시대 삶과 혼을 맑히는 새로운 정신문화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향 대표 능혜 스님이 창립을 고하는 흠향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 이후 문향은 전통향 보존을 위한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향문화 인식부터 새롭게 하자"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희준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우리 향문화의 기원을 밝히고 향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불교전래와 함께 향문화 발달

고려시대 매향 통해 침향문화 꽃펴

향로 쓰레기통 전락 현실 아쉬워

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향은 고대 동북아 제천의식 전통에서 비롯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환웅이 세상에 내려온 산을 묘향산이라 하고, 우리 민족이 향기로운 나무를 신단수로 삼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기원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불교전래를 거쳐 향문화는 활짝 꽃을 피는데, 〈삼국사기〉 등을 보면 신라시대 향이 질병치료, 기원의 매개체로 활용됐다. 화랑의 다른 말인 용화향도는 향을 매개로 뭉친 조직이었다. 이런 활발한 향문화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고려시대에는 미륵신앙이 보급되며 땅에 향을 묻는 매향이 발달했는데, 이를 통해 침향 문화가 꽃피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문화유산 현장에 가면 향로가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인 향로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현실은 우리가 아직 문화를 가꾸는 안목이 성숙하지 못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향나무의 대표 자생지인 울릉도의 경우 일제시대, 해방 등을 거치며 마구잡이로 벌목돼 1980년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300년이 지나야 예전의 면모를 찾을 수 있을 정도"라며 "지금부터라도 향나무를 배양하는 등 생태를 복원하고, 영세한 향제조와 유통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백 금속공예가의 '백제금동대향로 복각', 김종진 건국대 교수의 '향과 향나무', 한기승 한의사의 '동의보감에 나타난 향처방의 효능', 김성태 문향 연구원의 '향로 기원과 변천을 통해 본 동양 향문화 본질' 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변화 전제하는 주역, 불교와 맞닿아"

성태용 교수,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흔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주역. 중국철학의 대표적인 주역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성태용 교수가 7월 17일 논사로 나선 〈불교평론〉 열린논단은 '주역과 불교'를 주제로 길흉화복의 점복과 불교의 관계 등을 고찰했다.

성 교수는 이날 "주역을 이해하는 태도에는 의리와 상수와 점복의 삼역(三易)이 있는데 이 중 철학적 논의인 의리역은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기에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차이점은 주역에서의 변화는 음양의 감응에서 일어나는 반면, 불교는 인과법에 의한 것"이라며 "음양의 상응관계에서 변화를 말하는 사유는 바로 관계론적 사유로 나가게 되며, 이 점에서 또한 불교와 연결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주역의 태극 · 음양 등은 실재가 아닌 만물과 만사를 대입해 해석할 수 있는 부호로 불교의 연기설에서도 말해질 수 있다"고 말햇다.

하지만 성 교수는 "점복과 상수역은 부처님께서 점복에 대한 엄격한 배척을 생각해볼 때 불교와 연결되기 힘들다"며 단순히 점을 보는 것으로 주역을 풀이하는 것을 경계했다.

노덕현 기자

만해 7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만해학회(회장 한계전)는 7월 25일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만해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만해와 근대 지성의 교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만해와 심우장'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장영우 동국대 교수의 '심우장 시절의 만해문학' 이 발표된다.

2부 만해와 근대지성과의 교류에서는 △서승석 前서울대 불문과 겸임교수의 '시적 상상력과 독립운동' △고재석 동국대 교수의 '만해 한용운과 석전 박한영, 그 영혼의 도반' △조미숙 건국대 교수의 '만해와 계초, 신문연재소설 속 말하기'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만해와 지훈' 이 발표된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정화 당시 시대상황 면밀히 살펴야"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주관, 정화운동 60주년 학술세미나


7월 12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정화운동 6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화운동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회장 홍선)는 7월 12일 부산 범어사에서 정화운동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범어사와 동산문도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점숙 동서대 강사의 '근대기 대처승 문제를 둘러싼 한일불교계의 동향' △이재헌 금강삼종대 교수의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와 불교정화운동의 전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동산의 법맥과 전법 용성 · 성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불교교단사연구소장 덕산 스님의 '4 · 10 승려대회 식순-기록의 분석과 사법부 판단' 이 각각 발표됐다.

세미나에서 제점숙 박사는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대처문제를 두고 입장이 달랐다. 조선불교 내에서 이런 입장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일본불교의 대처제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화 운동 당시 이승만 정권의 유시를 정리한 이재헌 교수는 "이승만 정권은 유시를 통해 대처승을 배제함으로 인해 비구중심으로 승단을 구성하고 그 명분으로 불교계의 종권을 획득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성철 스님은 용성 스님과 동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1970년 범어사 원효암에 주석하고 도반인 향곡 스님이 성철 스님을 운봉문도로 편입시키려했으나 거부한 점이 있다. 성철 스님이 용성-동산 스님의 선맥을 이었음에도 그 전법에는 후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은 한국불교 정화 초조로 칭해도 마땅하다"며 "동산 스님은 용성 스님의 수법제자로 그 정화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회장 홍선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3회 에 걸쳐 불교정화운동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로 스님 현해, 도문, 정관,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장 홍선, 고심정사 주지 원택, 범어사 주지 수불, 화엄사 한주 도경,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임란 · 호란 전후 사회상과 불교상'

한국불교사硏, 집중세미나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7월 27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제8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임란 · 호란 전후 사회상과 불교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집중세미나에서는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이정철 안동국학진흥원 교수의 '광해군의 대동법 시행과 수취체계 변화'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임해군의 생애와 일본 출가' △오경후 선리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임란 · 호란 전후 승역의 실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조선후기 승려의 행장기술과 비문조성' 등이 발표된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은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주요한 사건으로 양란 전후의 급변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 백성들이 겪었던 사회상과 불교상 및 불교와 유교가 서로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궁예 몰락은 불교계의 반발 때문"

이재범 경기대 교수는 신라사학회(학회장 김창겸)가 7월 19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개최한 제137차 학술발표회에서 "궁예의 '치성광여래 사상'을 표방한 '왕즉불' 사상은 왕건과 승려들이 주장하는 '승려즉불' 사상과는 많은 대립을 보였으며 이러한 대립이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치성광여래는 천문에서 북극성을 부처로 바꿔부르는 이름으로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나 치성광여래의 강림으로 칭했다.

이 교수는 "궁예의 종교사상에는 불교의 화엄 등과 함께 도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던 치성광여래사상이 상당히 풍미했다. 궁예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을 죽인 이유도, 경전에 입각해 불법을 펴기를 바라는 참언이 거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궁예의 치성광여래사상은 선종과 교종의 결합을 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불교계의 지지를 받은 왕건에 의해 그는 몰락하게 된다"고 풀이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문화재 · 상담심리 전공 신설

중앙승가대는 9월부터 문화재와 상담심리 전공 과목을 개설 · 운영한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2011년 제92차 이사회에서 문화재학전공과 상담심리학전공을 신설하고 학부제로 개편, 2개 학부 6개 전공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화재학과는 불교학부에 상담심리학은 불교사회학부에 소속돼있다. 특히 문화재 학과에서는 불교문화재학, 미술 및 건축, 성보보존처리실습, 성보박물관 운영, 무형문화의 이해, 금석학, 사지 현황과 정비 까지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한다. 상담심리학은 불교상담개론,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등 기초과목 위주로 배우고, 향후 대학원에 전공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과목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여행 추억보다, 젊은불자 양성 더 중요”

전주 금선암 불자부부 12쌍 회갑여행비로 수계법회 지원

“회갑을 맞아 여행으로 추억을 쌓는 것 만큼, 젊은 불자들을 키워내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계를 받으며 불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젊은 장병들을 보니, 여행가는 것 보다 백배 천배 낫다고 생각되네요.”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 여행경비를 모은돈으로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의 수계법회를 열어 화제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십선회 회원 중 올해 회갑을 맞은 갑오생 불자부부 12쌍은 7월 1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조계종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서 신병교육중인 훈련생 3500여 명에게 계를 내렸다.

금선암 신행단체인 십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봉 중부대 교수 등 12쌍의 갑오생 불자부부는 회갑여행을 계획했지만 최근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GOP총기난사 등으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줄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수계법회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김세봉 십선회 회장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수계법회를 열면 힘든 군생활에서 장병들이 불심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는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 법문도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계법사 도영 스님은 법회에 앞서 최근의 군부대 사고로 인해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훈련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수계법회에서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나라를 빛내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지도법사로 나선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및 십선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중 웃고있다.

수계법회에서는 수계뿐만 아니라 훈련병들이 힘든 훈련생활 중 잠시나마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법회 후 댄스그룹과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법회 후 덕산 스님은 수계법회를 지원해 준 불자부부들에게 작은 소연을 베풀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는 공주 동학사 강원학인 스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사, 불교어머니회 회원, 금선암 십선회 회원과 불자 등 200여명도 함께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외국인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송광사는 7월 1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 완주 국가 3공단과 익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미얀마 근로자 45명를 초청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예불, 운력, 참선, 발우공양, 108염주 만들기, 연꽃 명상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랜 타향살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오랜 신행활동을 하지 못한 갈증을 해소하며 오랜만에 고국의 동료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묘엉(38세, 익산공단 근무)씨는 “한국에 와 오랫동안 절을 찾지 못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고국의 친구들과 함께 불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7월 11일 개막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하소백련지’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가 개최하는 제13회 하소백련축제가 7월 11일 열렸다.

‘사랑, 이별, 고통, 정토 세월호에 묻다’를 주제로 8월 17일까지 열리는 하소백련축제는 매 주말마다 시낭송, 아코디언 연주, 통기타 연주, 택견 시연, 전통무용, 노래마당 등 차별화된 각종 공연이 열린다.

11일 개막식에는 판소리 인형극 ‘춘향’, 김광석 시인의 시낭송, 소프라노 정수희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12일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무용으로 녹여낸 행위예술 공연 ‘세월호에 묻다’가 공연됐다.

이밖에 선동철 작가의 전통창호 작품전과 부채만들기, 어린이 캠프마을, 전통 활만들기 등의 체험코너가 마련됐다.


세월호의 아픔을 퍼포먼스로 표현한 ‘세월호에 묻다’ 공연장면

도원 스님은 “사회적으로 세월호 참사 등 여러가지 혼돈이 있어서 축제의 주제도 ‘사랑, 이별, 고통, 정토’로 정했다” 며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축제로 꾸몄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고창 뉴타운에 불교회관 세운다

7월 14일 교구 운영위원회서 발표, 토지 매입해 지난 5월 등기완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7월 14일 대웅보전에서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고창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회관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다.

주지 법만 스님은 고창 뉴타운 내 불교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해 5월 27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만 스님은 또 토지 매입에 따른 4억원의 기채 중 일부를 상환했으며 나머지 부채도 금년 중으로 모두 변재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창 뉴타운 내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고창지역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창불교회관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올해 연말 건립 예정인 고창, 정읍, 부안의 광역 보육지원센터도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고창 뉴타운 불교회관을 비롯해 광역보육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 기존 승려노후수행마을, 고창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과 더불어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귀농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을 불교계가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선운사 선거관리위원 5명중 임기가 만료된 4명의



선거관리위원 유임을 결의했다. 이로서 24교구 선운사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에 원공 스님, 위원에 종명, 지공, 지안, 성락 스님 등 5명이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 앞서서는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1주기 추모다례재도 열렸다. 이날 다례재에는 남곡스님의 문손 재곤, 재석, 재정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곤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지녔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 스님은 1963년 불교정화운동 당시 비구대처간 화합에 노력했으며 1966년 24교구 선운사 초대 주지로 선운사 가람을 새롭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첫 음반 낸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

첫 음반 ‘길을 떠나며…’ 발표… 총 10곡 수록

노래하며 포교하는 수안 스님<오른쪽 사진>이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표하고 음악포교에 나섰다.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은 타이틀곡 ‘그랬구나’를 포함해 10곡이 수록된 정규음반을 발표했다.

음반에는 수안스님 작사 9곡에 광주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인디언수니, 곽우영 음악감독이 곡을 붙여 만들었다. 마지막 곡은 류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다. 음반의 자켓은 스님이 솟대를 만드는 모습을 담았고, 단청작가 조혜영 씨의 단청과 산사의 사진들로 꾸며졌다.

“포교활동을 하다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불교를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 노래말속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번 음반은 포교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 수안 스님의 2년 간의 고민 속에 나왔다.

‘가녀린 가지마다 소복히 쌓인 눈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눈도 시려웁다. 그랬구나<그랬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노래에 나오는 가사말은 스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다.

그래서 스님의 노래는 이야기와 함께 한다. 가사말을 이야기 하고, 삶의 즐거움, 슬픔 등 불교적 이야기로 풀어내어 관객과 호흡을 한다.

수안 스님의 노래 포교는 지금 하는 직책이 말해준다. 이미 조계종포교원 산하 대학생전법단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백양사 포교국장과 템플스테이 담당 그리고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작비도 직접 솟대를 만들어 마련했다. 음반 판매의 수익은 대학생 장학금과 해외불교봉사활동 지원금에 사용된다고 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 “편안한 토크 콘서트를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다. 사찰, 템플스테이를 포함해 젊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음악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증심사, 수불 스님 초청 특별법회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의 특별법회가 광주 증심사에서 개최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7월 11일 취백루에서 ‘2014명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연광 스님,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해 증심사, 범어사, 안국선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 수불 스님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가치와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법과 자세에 대한 자세한 법문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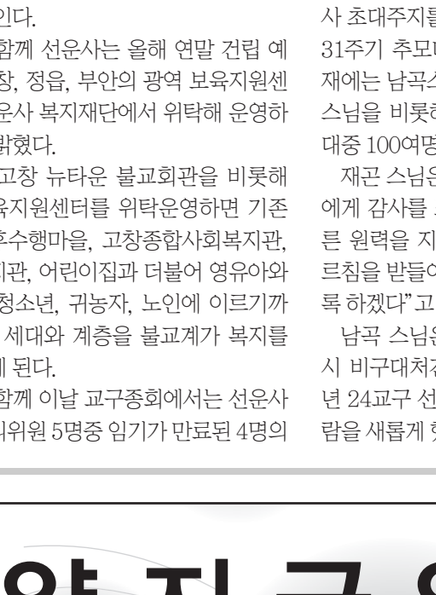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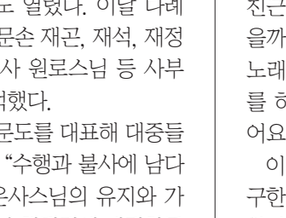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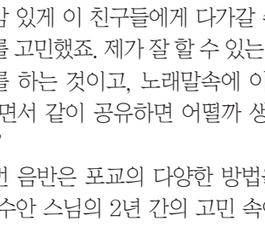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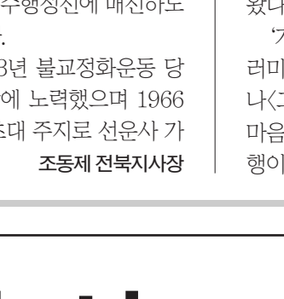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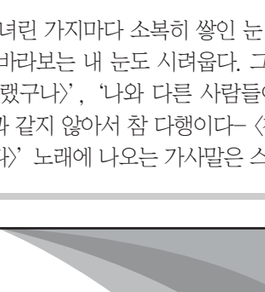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핵심은 포용이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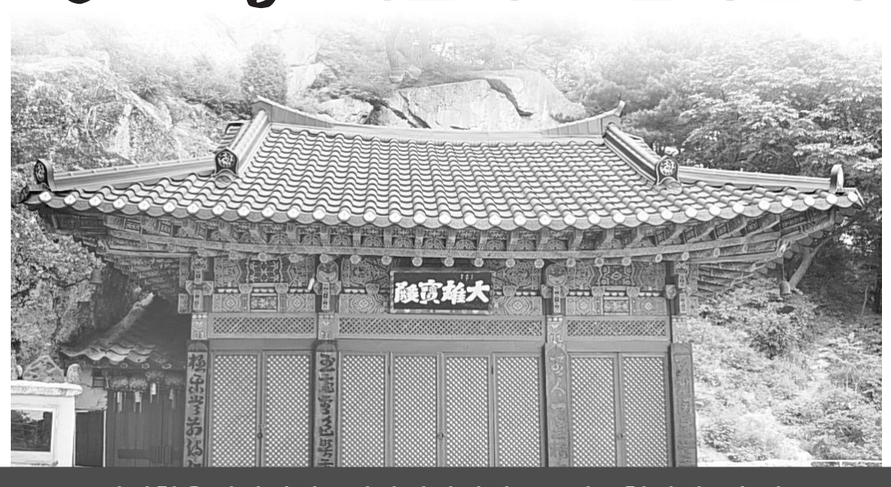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강대-논산고 교육연계 MOU협약

금강대가 논산지역 교육 체계화에 나섰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과 논산고 조익수 교장은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금강대 회의실에서 MOU 체결을 통해 양교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지역대학과 고교 간 MOU 체결로 상호 연계교육을 통한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협약을 통해 양교는 연계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및 교육자료 교환, 진로 및 진학을 위한 교수진 특강지원 등에 합의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협력체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부산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새둥지 마련

사하 괴정동 보훈회관으로 장소 이전

부산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법인)가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를 확장 · 이전했다.

7월 10일 개소식을 가진 사하불교연합회는 넓고 쾌적해진 공간과 오픈주방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자비행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하지역을 대표하는 스님 및 지역인사들을 포함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대거 참여해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앞날을 축하하기도 했다.

새로 이전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264㎡의 면적으로 사하 괴정동 보훈회관에 새 둥지를 틀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설립된 이곳은 10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소규모 도서관이 구비돼 있어 사하지역 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서 회장 법인 스님은 "가깝게는 용두산공원, 멀리까지는 동래까지 소외된 지역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고자 노력해왔다. 사하구에 계시는 스님과 신도님들의 원력이 부처님께 닿아 오늘 이렇게 확장 개원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법인 스님은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편협한 기준으로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다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와 같은 사람



회장 법인 스님과 내빈들이 사하사암무료급식소 개소를 축하하며 떡 컷팅식을 가졌다.

1996년부터 사하구 스님들 운영

"봉사와 자비로 진정한 나눔 실천"

이다' 라는 심정으로 급식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인사말에 대신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이면 불가능한게 없다고 믿는다. 이곳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사하구의 희망이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가 있어 든든하다"며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기틀을 마련한 사하구 지역 내 사찰들을 치하했다.

조경훈 국회의원도 "불교의 가르침 중 으뜸인 것은 바로 '자비' 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행을 실천하는 사하불교연합회 스님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에는 사하사암무료급식소의 새 출발을 알리는 떡 컷팅식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1996년부터 지난 19년 동안 사하구 사찰 소속 스님들이 십시일반 보시금과 살림살이를 내어 운영해온 곳으로 공양이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자비를 실천하여 왔다. 2003년 사하구 괴정동에서 시작한 이전 무료급식소는 지하 90㎡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30여명이 찾을 정도로 소외계층에게는 큰 힘이 됐다. 또한, 약천사, 약수사, 성불사, 해장암 등 부산 사하지역 내 총 14개의 사찰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번 순번을 정하여 무료 급식에 동참해오고 있어 오로지 봉사와 자비만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하사암무료급식소는 매주 월, 화요일 오전 11시에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창원 성주사, 범어사와 주지 임명 건 '갈등'

역대 주지 원정 스님 안국선원 관련 질의서 제출

경남 창원 중심 사찰인 성주사의 새 주지 임명 건으로 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와 성주사 신도들이 대립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역대 주지 원정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에 안국선원사찰 등록 절차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원정 스님은 7월 17일 인사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다.

원정 스님은 "질의서는 수불 스님이 선원장으로 있는 서울과 부산의 재단법인 조계종 안국선원이 종헌종법에 따른 조계종 선원으로 사찰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등록되어 있는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22년간 주지 소임을 맡았던 원정 스님은 범어사 주지 선거에 낙마한 이후 주지에 재선임 되지 못했고 이후 사제인 원일 스님이 교구본사 범어사의 추천으로 주지에 임명 됐지만 1년 반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조계종은 범어사의 추천을 받아 무관스님을 주지로 임명했지만 무관 스님은 현재 성주사 신도회의 반대로 경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정 스님은 동산문도 직계 상좌 모임을 결성하고 10여명 스님의 서명을 받아 질의서와 함께 총무원에 제출했다. 원정 스님은 "본사 화합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염려해 동산 대종사 직계 상좌들이 모여 금정총림의 질서와 문중의 화합을 위해 의견을 모았다"며 취지를 전했다.

또한 성주사 신도회 측은 前주지 원일 스님이 사찰 운영 중 7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성주사 신도들이 새주지 무관 스님의 성주사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성주사, 원일 前 주지 고소

신도회 새 주지 진입 막아

범어사 "주지 임명 절차 적법"

고소한 상태다. 성주사 신도회 측은 원일 스님의 인수인계 과정 중 옳지 않은 행정 운영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범어사가 무리하게 새 주지 임명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성주사 측은 "前주지 원일 스님의 횡령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범어사측에서 성급하게 무관 스님을 주지로 추대했다. 범어사의 일방적인 주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임 주지는 원일 스님의 부도덕한 행정을 밝히고 나서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무관 스님은 범어사 주지인 수불 스님과 같은 문중이다. 사찰을 소유하기 위해 품신을 하고 발령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무관 스님은 "성주사 신도와의 갈등은 성주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품신을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갈등은 성주사 안에서 대화로 이뤄져야한다"며 성주사 진입을 다시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범어사 측은 "적법한 절차로 무관 스님이 주지로 임명됐다. 신도들이 주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또한 원일스님의 횡령의혹은 감사국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前주지인 원일 스님은 7월 18일 조계사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원일 스님은 "공금을 횡령한 적도 없으며, 잠적하거나 국외로 도망간 적도 없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원 감사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前신도회장과 몇몇 신도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스님들이 주지 자리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모함 등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혜숙 · 김나영 기자

고운사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식

16명 수강생

사찰 음식 전파 나설 예정



고운사가 7월 12일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고운사(주지 호성 ·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 이사장)가 7월 12일 사찰음식지도자과정 첫 수료식을 가졌다. 고운사는 지난 5월 전통사찰음식의 전문지식과 사찰음식 저변확대를 위해 사찰음식지도자 과정을 개설 3개월 교육을 거친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고운사는 "수강생들은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요리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앞으로 사찰음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운 메뉴 개발, 기술 교육 등은 물론 사찰음식 전수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나아가서는 사찰음식전문점 개설 컨설팅을 담당하는 리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수료생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합격자에 한해 조계종16교구 고운사 및 사단법인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가 발행하는 사찰음식 교육강사 자격증과 수료증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한불교16교구 고운사는 부설 사찰음식문화연구소를 (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로 확대 개편, 현재 스님 대학교수 등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사)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는 산야채류 등을 이용한 농식품 및 사찰음식에 대한 연구 개발사업, 학술연구활동과 전통사찰음식의 보존 ·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및 전시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추진 산야채류 등을 이용한 각종 외부 연구개발 용역 · 컨설팅 · 외식사업 및 홍보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부산불교연합회

2014부산연등축제 평가

2014년 부산연등축제를 회향하고 내년 연등축제를 계획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는 7월 16일 코모도호텔에서 2014부산연등축제 평가와 회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연등축제가 세월호 참사로 대폭 축소되면서 준비했던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세월호 희생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행사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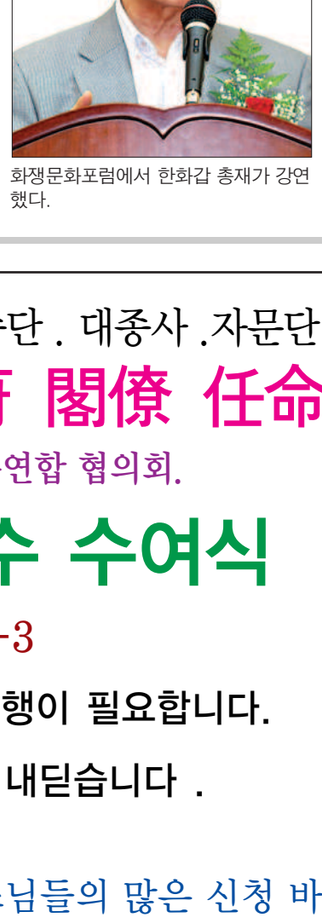
또한 2015부산연등축제를 부산지방무형문화재 등재는 물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의 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불교연합회는 "연등축제의 전통성과 축제성을 살려 새로운 불교문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화쟁"

화쟁문화포럼 제5회 대강연회 개최

(사)화쟁문화포럼(회장 류진수, 이사장 법산)이 원효의 화쟁사상으로 국민화합을 발원하는 제5회 대강연회를 7월 15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화쟁문화포럼은 2009년부터 국내 유명인사를 초청해 화쟁 사상 중심으로 강연을 개최 국민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평화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진정한 화쟁사상은 대립된 상태 그대로를 긍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발전


화쟁문화포럼에서 한화갑 총재가 강연했다.

이 있다. 우리가 화합해야 국가가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화쟁사상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의 강연자로 나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는 '위기극복과 국민화합' 이라는 주제로 "시간을 거슬러 보면 우리는 지역과 계층간의 대립이 확연했었다. 하지만 국민화합으로 우리만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잘 보존해왔다. 대립 속에 하나 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화합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사부대중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대한불교 종정단 . 고승단 . 종단 . 대종사 .자문단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대한불교 종단총연합 협의회.

제 6회 7월 29일 각료 임명식 & 대종사 품수 수여식

오후 3시 정각 / 하림각 : 02)396-2442 종로구 부암동 162-3

각종단 종정큰스님, 총무원장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행이 필요합니다.

승려들의 수행 풍토 쇄신을 도모하여 불교의 질적 성장과 정화와 개혁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
1080명의 숨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각료 임명과

※ 350여 군소종단이 하나되어 합동 금강계단 품수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자하니 뜻이 있으신 스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장관급 각료 명단

불원 보각 혜승 대붕 도명 혜선 대풍 성각 지암 도암 혜월 현담 경오 영각 남륜 청운 돈조 보현 대경 도안 법상 도월 대연 혜운 송현 진관 지우 종선 도암2 능허 택봉 청산 성군 정오 법현 지암2 향운 보성 법성 송운 도언 경현 동월 법인 법광 제성 법지 송몽 법주 도일 구암 심오 혜광 석담 원광 청광 혜상 혜관 도경 성보 보명 현덕 보운 무량수 혜정 법조 해공 성범 지연 다정 구암 혜일 석장원 보현2 법용 지훈 법상2 각운 정음 선명 혜륜 혜진 이한규홍보실장 금조 목성 만근 외 500인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합장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법왕청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02)733-5671. H·P 011-229-6061

깊은 산속 원효대사의 숨결이 머무는 곳



소요산 중턱에 위치한 자재암 전경. 우측에 보이는 바위굴이 바로 '원효샘' 이 있는 나한전이다. 대웅전에는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가 모셔져 있다. 나한전 우측으로는 작은 폭포와 계곡이 있어 도량 전체에 청량감을 준다.



자재암 대웅전에 모셔진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원효 스님이 정진했다는 원효굴과 원효폭포.



속리교를 지나 108계단을 오르면 해탈문이 나온다. 종을 치면 마치 고된 산행에서 해탈되는 듯 하다.

암자를 찾아서

②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천천히 생각하며 걷는다' 는 뜻을 가진 소요산(逍遙山) 기슭. 이 곳에는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자재암(自在庵)이 있다. 원효 스님은 잘 알려진 것처럼 무애자재(無碍自在)의 경지를 몸소 보여줬던 이다. 속세를 뒤로 하고 출가했던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를 만나 설총을 낳고는 또 다시 뜻을 세워 이곳 자재암에서 정진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파계승을 자처하며 거지 행세로 세상의 저잣거리를 구석구석 떠돌았다.

원효 스님은 세속의 더러움에 발 디디더라도 일미(一味)의 맑고 깨끗한 행을 잃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처녀상정(處染常淨)하는 연꽃처럼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요산을 자유롭게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듯 하다.

일주문에서 한참 들어가면 등산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원효폭포와 원효굴이 있다. '원효굴' 은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를 잊으려, 이 굴에서 참선을 하며 정진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작은 동굴 속에 모셔놓은 불상의 모습이 마치 당시 굳은 마음으로 가행정진했던 원효 스님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옆 '원효폭포' 는 몇해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물줄기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는데, 지금은 물이 말라버려 냇물같이 가느다란 물줄기 만이 폭포였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원효굴서 자재암으로 가기 위해서는 굴 옆으로 난 속리교(俗離橋)를 건너야 한다. 속리교는 다리를 건너면 속세를 떠나게 된다는 의미로 옛날에는 속세를 떠나는 큰 마음을 먹은 이들이 건넜을 법했다.

속리교를 지나 소요산 등산 안내판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면 소요산 전망대가 있는 공주봉, 왼쪽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자재암으로 갈 수 있다.

자재암으로 향하는 이 계단은 108계단이다. 매 계단을 디딜 때 마다 참회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끗이 하라는 이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계단을 모두 오르면 해탈문이 반긴다. 번뇌의 속박을 떠나 삼계(三界: 欲界 · 色界 · 無色界)를 탈각(脫却)해 무애자재(無碍自在)의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하며 문루에 달린 종을 쳐본다.

해탈문을 나오면 예전 조선 태조가 즐겨 찾았던 백운대(白雲臺)와 폐정(廢井)이 있고, 백운대 밑에 있는 폭포는 원효 스님이 노닐던 곳이라고 하여 원효대(元曉臺)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소요사(逍遙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효 스님이 정진의 성과가 없자 죽을 각오를 했을 때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원효대에서 보이는 봉우리가 관음봉으로 불리는 것이 재미있다. 원효대에서 계속 산길을 걸으면 얼마 가지 않아, 백운암이 있다. 백운암은 추담대종사사리탑 위쪽에 자리한 건물로 자재암의 선방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높다란 석축 위에 지었다.

신라 선덕여왕 14년 원효 스님 창건
〈반야바라밀다심경〉 대웅전에 보관
폭포, 샘, 동굴 등 원효대사 흔적 곳곳에

다소 가파른 계단을 계속 오르면 자재암이 길손을 반긴다. 자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인 645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고, 고려 광종 25년(974) 왕명으로 각규 대사가 중창했으며 의종 7년(1153)에 화재로 소실돼 이듬해 각령선사가 대웅전과 요사 일부를 중건했다. 조선 고종 9년(1872)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퇴락된 이 사찰을 44칸의 건물로 복원하고 영원사라 개칭하였다. 순종 융희 원년(1907) 의병들의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근거지였던 이곳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태워졌다. 그후 2년 뒤에 제암, 성파 양사가 복원하여 원래의 이름인 자재암으로 고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됐다. 이후 1961년에 대웅전을, 1971년에는 동 · 서승방을, 1974년에는 포교당과 원효대를, 1977년에는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자재암 인근에는 원효 스님이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와 머물렀다는 요석공주 궁지와 사자암지, 소요사지, 현암지, 원효사지,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현재 알 수 없다. 〈조선지지(朝鮮地誌)〉에는 자재암에 요석궁(瑤石宮)이 있었다고도 전한다. 나중에 원효 스님은 이곳에서 설총(薛聰)을 길렀다고도 한다.

자재암 대웅전에는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 언해본이 있다. 대웅전의 석가모니 삼존불 옆에 고이 모셔져 있는 이 경전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에 송나라의 중희가 자신이 만든 〈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찬한 주석서다. 세조 10년(1464)에 〈금강경〉과 함께 간경도감에서 발간했다.

대웅전 오른편의 나한전에는 원효 스님이 마셨다는 '원효샘' 이 유명하다. 원효 스님이 주석한 절터에는 꼭 약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 자재암의 '원효샘' 의 석간수는 찻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수로 이름이 나있다. 높은 계단을 오르느라 송글송글 맺힌 땀과 열기가 석굴로 된 나한전의 시원한 기운과 상큼한 물맛에 저절로 달아난다.

자재암을 뒤로하고 돌아나오는 길, '극락교' 라 이름 붙여진 작은 다리가 배웅을 하는 듯하다. 원효 스님이 정진했던 극락정토를 뒤로하고, 다시금 속세로 향했다.

동두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효대사와 얽힌 등산로

자재암 대웅전과 나한전 사이에 있는 가파른 계단길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소요산 산행이 시작된다. 경기지역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은 그 멋스러운 산세만큼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산행을 즐길 수 있다.소요산에는 청량폭포(淸凉瀑布)와 원효폭포가 있는데, 이 지대를 하백운대(下白雲臺, 500m)라고 한다. 그 오른쪽에 원효대(元曉臺)라 하며 옥로봉(玉露峰)을 넘어 북동쪽으로 나한대(羅漢臺, 510m) · 의상대 · 비룡폭포가 나온다. 또 원효대에서 약 30m쯤 되는 절벽 위를 상(上)백운대라고 하며, 그 밑으로 선녀탕(仙女湯)을 볼 수 있다. 소요산 정상은 의상대로 그 옆에는 원효대사가 요석공주를 두고 이름을 지었다는 공주봉이 있다.

산중턱에는 자연석굴인 금송굴도 있다. 산 입구에는 구한말에 독립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홍덕문의 추모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코스는 자재암에서 하 · 중백운대와 선녀탕을 거쳐 다시 자재암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중백운대에서 선녀탕을 거치지 않고 상백운대와 나한대 그리고 의상대를 두루 거치는 완주코스를 선택할 경우에는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원효 스님 대중포교 원력 이어갈 것"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



원효 스님이 수행정진한 소요산 자재암에는 현재 독특한 기도법회가 진행된다. 바로 자비수참기도다. 매달 셋째 금요일 오후 8시, 자재암 나한전에서 열리는 자비수참 기도는 주지 혜만 스님이 부임하며 도입됐다.

혜만 스님은 "기존의 자비도량참법은 양이 많고 현시대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해인사 율원에서 보다 쉽게 바꾼 것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재암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도로서 원효 스님이 정진했던 그 가풍을 잇고 있다.

꾸준한 기도정진과 함께 자재암은 포교활동에도 열심이다. 특히 혜만 스님은 동두천 자재암 주지로 부임한 이후 동두천사암연합회장과 동두천경찰서 경승실장, 경찰청 경승, 경희의료원 지도법사, 태릉선수촌 지도법사,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등을 맡으며 신도들과 함께 활발한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원효 스님이 무애자재함을 보인 것은 결국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하기 위한 서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스님과 같이 대중포교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미래입니다."



新 사찰 건축
12. 천안 황룡사

전통·현대 모두 살린 '상생'의 가람


황룡사는 전통 양식의 대웅전과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형태의 가람이다.

"불자든 아니든, 저희 절의 신도든 아니든 누구나 지나가다 쉽게 들어갈 마음을 낼 수 있는 절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이 종교적인 의미와 더불어 생활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대적인 건축을 선택했죠."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에 자리한 황룡사다.

숙제 '전통과 현대'

1960년대 터를 닦은 황룡사는 작은 인법당으로 시작했다. 2001년에 전통 양식으로 지은 대웅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4년 현대적 건축으로 도량을 재정비하며 가람을 완성했다. 현대 건축을 선택한 현 주지 스님은 건축의 설계를 건축가 김개천(국민대 조형대학) 교수에게 의뢰했고 1 년여의 불사 끝에 가람을 완성했다. 앞서 말했듯 스님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절,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절을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는 불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절이 신행활동을 위한 공간과 더불어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절이라는 공간이 새롭게 인식됨으로써 '불교'의 인식도 더 넓어지고 결국 포교의 저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그런 원력으로 세워진 황룡사다.

하지만 불사 과정에서 한 가지 숙제가 있었다. 2001년 지은 대웅전이 전통방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건축을 결정한 스님으로서는 새로 지어질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대웅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숙제였던 것이다. 숙제는 설계를 맡은 김 교수의 숙제가 됐다.

새로운 시도

연면적 약 350㎡, 건축 면적 약300㎡의 황룡사는 전통적인 건축과 현대적인 건축이 뚜렷하게 양분된 구조를 하고 있다. 설계를 맡은 김 교수는 대웅전과 나란히 있었던 기존의 전각을 대웅전 앞의 빈 공간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을 세웠다. 김 교수는 '대웅전과의 조화'라는 숙제를 가람의 구조를 재배열하는 것으로부터 풀어나갔다. 자칫 죽은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었던 자리에 기존의 전각을 재활용해 배치함으로써 새롭게 들어서게 될 현대적인 건축물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정자 형태로 해체되어 옮겨진 전각은 새로 지어진 현대건축의 공간과 대웅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공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자라는 기능성이 추가되어 실용적인 공간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었다.

새롭게 들어선 'ㄷ' 자 형태의 현대 건축물에는 관음전과 후원, 요사채가 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독립된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는 새롭게 시도된 북카페다. 기존의 절에서 볼 수 있었던 다실과 비슷한 개념의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황룡사가 신행활동과 더불어 문화적인 기능을 실천하는 중요한 건물이다. 북카페 건물과 정자 사이에는 현대식으로 디자인한 연못을 배치해 찾는 이들의 마음과 눈을 쉴 수 있게 했다. 공간의 재배열과 북카페 등 설계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실천 모두 새롭게 시도된 불사이다.


황룡사의 특별한 공간인 북카페.


'ㄷ' 자형으로 이어진 건물에 관음전과 후원, 요사채가 있다.


새롭게 디자인한 연못.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건축

그리고 김 교수는 전통(대웅전)과의 조화를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건축'으로 풀어갔다. 서로 '비슷함'으로써의 조화가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되 서로를 돋보이게 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산과 구름이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전통과 '어울리는 건축'이 아니라 전통을 '돋보이게 하는 건축'을 생각했다.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각자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결국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녀가고 싶은 절'
전통 대웅전과 현대 조화가 숙제
해법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건축

기존 전각 재활용으로 가람 재배열
석조의 3m 처마 새로운 디자인
신축 북카페-휴식 · 위로의 공간
전 건물 지열냉난방 방식 도입

구체적인 실천으로 김 교수가 생각한 상생의 건물은 '대웅전의 그림자'였다. 설계는 대웅전의 그림자를 그리는 것이었다. 다 짓고 나면 처음부터 같이 지은 건물처럼 생각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톤도 검정을 택했으며, 건물 전체가 형태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황룡사를 처음 찾으면 현대와 전통이 각자의 모습을 하고 서로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혀 다른 양식이 전혀 다른 양식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현대적 건축물 옆에 선 전통의 대웅전이 현대적 건물로 인해서 이상하지 않고 돋보이며, 그와 반대로 전통 건물 옆에 새롭게 들어선 현대적 건축물 역시 전통의 도움을 받아 더욱 현대적인 건물로 돋보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조화다. 선을 긋듯 현대와 전통을 양분시켜 놓은 가람은 양분의 느낌을 전혀 주지 않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전통' 의식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관음전이 있는 새 건물에는 새로운 디자인들이 적용됐다. 이 디자인들은 이전의 작업과는 다르게 전통을 응용하거나 리메이크하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들이다. '전통'을 의식하지 않은, 설계자의 디자인이다. 현대적인 사찰건축이 늘 숙제처럼 안고 왔던 전통의 문제를 이번 건축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었다. 설계를 맡은 김 교수는 전통을 생각하지 않은 디자인들이 후에 전통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 전통에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전통과 연결되는 디자인이길 바란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 중 두드러진 디자인은 관음전의 3m에 달하는 긴 처마이다. 사찰건축은 물론 일반건축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긴 처마로 인해 건물 본체의 모습은 그 모습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다. 석재의 긴 처마를 곡선의 목조 구조물이 받치고 있는데, 디자인은 전통의 처마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전통 처마의 공포를 연상케 한다. 새 건물이 대웅전의 그림자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배열을 탈피한 문살의 디자인이나, 유리 뒤에서 문살과 조명이 빚어내는 은은한 분위기 등은 그 동안 절에서 느껴왔던 정서의 새로운 형태로서 새로우면서도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징성을 이어가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공간

황룡사에는 다른 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번 신축 건물 중의 하나인 북카페다. 주지 스님은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잠시라도 고단한 일상을 놓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북카페를 생각했다고 했다. 황룡사의 북카페는 문화친화적이고 생활친화적인 황룡사의 특별한 건축이다. 스님은 북카페가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황룡사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황룡사에는 부처님을 뵐 수 있는 법당도 있고, 법당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북카페도 있는 것이다. 스님은 북카페를 잘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스님은 현대적인 공간인 북카페와 전통적인 공간인 정자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황룡사를 찾아오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 밖에도 황룡사의 모든 건물은 지열 냉난방 방식을 도입했다. 후원의 경우 바닥 난방 시스템을 병행하는 등 새로운 체계의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비 절감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공간을 연출한다. 이렇듯 황룡사는 절을 찾는 이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문화적으로 머물렀다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신 사찰건축이며, 전통과 현대가 상생하는 건축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건축가 김개천 교수 인터뷰



"종교가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종교가 그 역할을 실천하는 공간(건축)의 수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건물은 삶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건축은 건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효과적인 배경이 되어주기 위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특히나 그 건축이 종교적인 것일 경우 그 종교가 맡은 바 기능을 충분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의 불교 건축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계 최초, 3003위 大아라한 展
작품 조성 기간 10년
三千三
2014. 7. 16 (수) - 7. 29 (화)
오프닝 7.16(수) 오후 5:00 갤러리 미술세계 전관(3, 4, 5F)
수행과 예술 그리고 자신의 길 적산(寂山) 스님
모든 것을 던져 몰입했던 10년의 고행 끝에 탄생한 나한 연작에는 제가 유년시절부터 끊임없이 추구해온 작가로서의 꿈과, 출가 이후의 수행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나한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불교의 세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다양한 나한들은 다원화된 시대속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각 개인들의 구제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전시장 내 특설법당 (1일 3회 기도)
국태민안 · 남북통일 · 소원성취
*기도 접수 문의 : 010-6432-0086
4×6배판 / 총 3,072페이지(3003점 나한상 수록)
6권 세트 구입시 70만원(1권당 15만원)
후원 月刊美術世界 BTN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
Gallery MISUL SEGYE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4 Tel. 02-2278-8388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 영축산 통도사 적멸보궁

井자 격자틀로 짜맞춘 거대한 만다라

통도사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형상의 경계 너머로 상주하시는 적멸의 공간, 적멸보궁이다. 적멸의 공간은 번뇌의 불이 꺼진 고요의 세계다. 일체의 언어와 이론, 이것 저것 구별하는 사량분별을 멸하고, 아상을 여읜 열반적정의 공간이자, 대자유의 공간이다. 그래서 부처의 자리마저 텅 비어 있다.

법신은 비상(非相)이니 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볼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다. 〈금강경〉에서 형상으로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는 것은 삿된 도라 했다. 너무 큰 형상은 볼 수 없고, 큰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이치다.

통도사 대웅전은 17세기 중엽에 중건된 조선중기 건물이다. 남측면이 3칸, 동측면이 5칸인 정(丁)자형 목조건축이다. 조선왕릉의 조영에서 나타나는 능묘와 정자각의 배치구도를 종교건축에 재현한 흔적이 엿보인다.

금강계단이 있는 북쪽면을 제외하고는 어느 방위에서 보더라도 합각면이 보이는 독특한 건축인데, 사방면 저마다에 편액을 걸었다. 그에 따라 통도사 대웅전은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면서, 불멸의 금강계단이고, 진리의 빛인 법신불이 상주하시는 대방광전이다.

적멸보궁의 천정은 井자 모양의 격자 틀로 짜맞춘 우물천정이다. 그런데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천장(天障)인가, 천정(天井)인가하는 문제다. 여러 사전들을 들춰보면, '천정은 천장의 잘못' 이라고 설명한 사전도 있고, 명문 국어대사전의 경우, '천정=천장'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우물반자를 천정, 또는 조정이라 부르며, 때로 이 명칭을 천장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장(天障)' 이라는 말은 하늘을 가로막은 반자의 이면이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공간을 분리하고 차단하는 기능성을 설명할 뿐이다. 그런데 천정(天井)' 은 '하늘의 우물' 이다.

물은 곧 생명의 화수분이고, 대자대비다. 감로의 생명수로 가득한 하늘세계가 법계의 천정이다. 하늘을 가로막은 벽면이라는 '천장(天障)' 개념보다 철학적이며, '집 우(宇) 집 주(宙)' 의 우주적 건축개념을 담은 용어가 '천정' 이다. '천장' 이라는 개념으로는 전통사찰건축의 하늘공간에 장엄한 조형의 본질을 읽어내는 데 한 발짝을 내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불교건축에서 천정은 경전의 내용을 조형방편으로 경영한 방편반야로서 부처님과 불국토의 만다라인 까닭이다. '천정' 의 용어에는 개념 자체에 인문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미술사학의 용어로는 '천장' 보다는 '천정' 개념이 보다 타당하고 심미적이다. 이 글에서는 '천정' 의 용어로 일관할 것이다.

적멸보궁 내부의 천정은 우물천정이다. 우물천정에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정처럼 폭을 안으로 좁혀나가는 '평행 들여쌓기' 를 하여 상 중 하, 3층의 공간 깊이를 갖춘 층급천정이다. 게다가 3층의 층급천정을 세 곳에나 경영했다. 마치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실총 천정을 일직선으로 늘어놓은 형태다. 유례없는 희유의 전개방식이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처럼 닫집으로 세 개의 보궁을 만든 사례는 있지만, 천정에 세 곳의 감실을 둔 사례는 미증유의 일이다. 오랫동안 그 궁금증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그 갈피가 잡혔다.



희유의 아름다움으로 극적인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정 상층 중앙감실.



천정 상층 남쪽감실

세 곳의 천정감실은 곧 세 불전건물을 말한다. 사방 네 곳에 대웅전, 금강계단, 대광보전, 적멸보궁의 각기 다른 편액을 단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금강계단은 건물 북쪽 외부에 조영되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건물이 한 목조건축에 융합된 셈이다.

출입문도 동, 남, 서쪽 세 곳에만 있고, 북쪽 금강계단 출입문은 따로 시설해두었다.

그러니까 천정의 세 곳에 층급감실을 둔 것은 대웅전, 적멸보궁, 대방광전으로 이 건물이 부처님의 화신, 진신, 법신의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적멸보궁의 천정은 거대한 하나의 만다라다. 금강계만다라의 한 가로줄을 보는듯 하다.

먼저 천정의 하층에는 태극 나선문양이 장엄되어 있다. 정방형으로 구획한 칸칸마다 중심에 태극을 조영하고, 신령의 기운이 시계방향으로 여섯 날개처럼 뻗쳐 있어 한칸 한칸이 마치 나선은하를 보는듯 하다. 칸칸마다 파동에너지가 태극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친다. 칸칸이 생명력이 분출하는 영기의 세계다.

태극나선문양은 적멸보궁 천정 바깥쪽 가장자리에 두 줄로 한바퀴 돌려서 법계의 신성과 대생명력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총 124칸을 경영하였다.

평행들여쌓기한 상 중 하 3층

부처님 화신, 법신, 진신 공간

천정에 세 곳 감실 둔 사례 미증유

연꽃은 부처님과 묘법연화 상징

한편 천정의 중층은 하층과 평행하게 들여쌓기 하였는데,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 두 칸 폭으로 들여쌓았다. 중층의 문양은 여섯 잎을 갖춘 연꽃에 금니로 범자를 시문한 문양이다. 칸칸의 바탕엔 신령한 영기문이 뻗치고 있고, 반자가 교차하는 모든 꼭지점엔 다시 영기화된 연꽃조각을 얹어 장엄의 중층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여섯 연꽃잎에 시문한 범자는 진언과 여래를 상징하는 글자다. 이 연꽃은 편의상 연꽃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진여의 조형방편이다. 곧 천정의 연꽃은 부처이고, 묘법연화다. 그것이 진언의 꽃에 담긴 불이의 체용이다. 중층의 연화문은 남쪽 측면을 제외한 삼면을 따라 총 72칸에 베풀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형상의 경계 너머로 상주하시는 적멸의 공간인 통도사 적멸보궁.

적멸보궁 천정의 상층은 보다 심층적이며 아름답고 현묘하다. 천정상층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종보를 따라 3실을 내었다. 상층 3실의 장엄세계는 저마다 상이한 문양으로 조형했다.

남쪽 감실은 5×5 격자틀 속에서 두터운 금니로 아름다운 덩굴형 영기문양을 베풀었다. 우물반자 36개 격자점에는 붉은 오각형의 꽃을 얹어 밤하늘의 별을 보는듯 하다.

중앙감실의 장엄은 희유의 아름다움으로 극적인 환희심을 불러 일으킨다.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잎의 붉은 모란꽃, 밝은 금니의 담국화를 세로로 길게 각 각 여섯 줄, 다섯 줄씩 올려 공간의 신성함과 법열의 환희심을 최고조로 드러낸다.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는 검은 바탕의 천공에서 마치 영산회상의 만다라꽃, 만수사꽃이 쏟아져내리듯이 우화의 상서를 자내증으로 내보인다. 아마도 검은 천공서 별처럼 빛나는 금니 담국화는 법화경의 영산회상에서 범천이 세존에게 바친 금색바라화의 의미일터, 생명력의 황금빛 에너지가 천공에서 폭발하듯 미어터지고 있다.

북쪽 감실은 두 상층 감실과 달리 가로로 긴 장방형이어서 6×4 격자틀을 내고는 격자마다 중층과 같은 문양을 베풀었다. 여섯잎의 연꽃을 올리고 씨방부분과 여섯 꽃잎에 금니의 범자를 입혔다. 35개 격자점에는 대승으로 가는 육바라밀의 보현행원을 직지하듯 육각형 연꽃잎 형상이 금빛 씨방을 찬란히 여밀고 있다.



여섯 잎 갖춘 연꽃에 금니로 범자 시문한 문양인 천정 중층.



천정 하층 태극나선문양

뭇 사찰의 천정장엄은 프랙탈 기하학을 이룬다. 프랙탈 기하학은 자기유사성의 무한반복이다. 그 속성은 대칭과 회전, 변환, 확산에 있다. 대칭과 회전에 의한 닮음 변환으로 닮은 개체끼리 조화를 이룰뿐더러, 연속하고 이어지는 운동의 파동에너지를 가진다. 마치 카드섹션이 연출하는 집단의 힘과 동일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만유가 가진 생명력이다. 생명력으로 가득찬 우주만유는 연기법의 인연에 따라 상즉상입하는 연기법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천정장엄은 연기법의 화엄세계를 조형언어의 방편가설로 풀어 쓴 또 하나의 경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웅전 천정의 격자 칸 칸은 무진연기법계의 삼천대천세계의 은유이며, 부처의 세계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동시에 견성성불을 일깨우며 일불승의 환희심으로 중생의 머리 위로 흩뿌리는 우화의 상서라 할 것인데, 그것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일만 팔천 국토를 비춰 그 세계의 장엄을 모두 보게 하시고, 갖은 꽃을 비오듯 내리게 하신 희유의 일에 닿아있다. 그러므로 통도사 적멸보궁의 천정은 만유의 생명력과 불성, 부처로 가득한 삼천대천세계라 할 것인데, 그 세계는 불생불멸 부증불감하는 상주법계이다.

'천정' , 곧 '하늘의 우물' 은 마르는 법이 없이 모두의 생명력을 적시는 법이다.

뭇 유정과 무정에는 차별없이 불성이 깃들어 있다. 법신의 부처께선 시방세계 두루 미치는 빛처럼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께선 무량의 연잎 속에 나투셔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우물천정 칸칸에 베풀어진 신령의 꽃들이 곧 부처이고 여래이시다. 천정장엄 꽃의 조형에 卍자와 같은 범어를 베풀고, '옴 마니 반메 훔' 의 육자진언을 베풀며, 석가모니불의 명호를 적어 두는 것에서 우리는 조형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다. 꽃의 형식논리 너머 엄숙한 진리의 꽃, 화엄을 경영한 것이다. 천정에 장엄된 꽃은 곧 여래이며, 깨달음의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이니 부처께서 모든 곳에 두루 상주해 계신다. 일승법의 큰 수레바퀴가 적멸세계의 천정에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 노재학 불교사진작가는



1963년 태어나 부산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역사문화와 미술사학, 불교교리, 사진을 독학하였다. 부산에서 〈숨바꼭질〉 문화유산답사회를 이끌며, 부산불교청년회 등에서 200회 이상 답사 길라잡이를 하였다. 2003년부터 전국의 사찰을 기행하며 불교조형미술을 사진작업하고 있다.

귀신병, 신병, 퇴마, 천도재 전문

NAVER Daum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TV출연 다수의 현오스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단, 1번의 기도가 당신의
사주를 확 바꿀수도 있습니다.

퇴마술 / 최면술 / 기공 / 자극요법술 전수생 모집중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 퇴마 최면연합회본부

대한불교 약사불종 약천암

자연치유원

천혜의 자연환경
낙동강, 토곡산 청명함과
자연치유의 방편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만들어 드립니다.

상담 / 문의 1899-8108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누리의 참된 주인공, 색신으로서의 '나'

중생불 ①

경계에 들어앉기 때문에 그만 중생이 됐다 말이죠. 중생이 됐는데 이걸 중생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색해요. 그러나 부처님도 중생이라 말 하니까 따라서 말하는 거지만 이건 꼭 바로 말하자면 중생불이에요. 중생불. 왜 그러냐. 우리는 중생불이기 때문에 중생놀음 하는데 실은 우리가 부처거든요. 왜 부처냐. 말쑥한 그 자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 하면 말이지 말은 어떻게 하며 남 보기는 어떻게 보며 듣기는 어떻게 들으며 생각은 어떻게 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이거 부처자리라 말이죠. 또 번뇌망상 일으키는 이것도 부처자리에요. 솔직한 말로.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에 휘둘려서 번뇌망상을 일으킬 따름이지 사실에 있어서는 부처는 틀림없는 부처거든요. 달리 제도 받을 사람도 없고 제도할 사람도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내가 제도를 했느니라. 내가 제도를 했느니라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의 말마디가 떠올라. 따라서 또 제도를 받았느니라 하면 중생이란 말마디가 하나 딱 하게 나타나. 그러하면 이거 또 수작놀음이거든. 모습놀이라요. 상놀음이거든. 사상에 떨어져. 그러하기 때문에 제도를 해도 제도 받을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원리 원칙은 그러나 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부처 씨가 있고 또 열반묘심으로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놈이 열반묘심이 있기 때문에, 본래 적멸성인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본소식을 모르고 그만 경계에 나타난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만 내 세상이다 해서 말이지 그렇게 하니 이거 딱하단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중생은 중생이라. 부처는 부처인데 중생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그러면 실에 있어서는 중생불인데 그 마음자리, 니가 지금 술 먹고 싸움을 한단 말이지. 이 술 먹고 싸움을 하는 놈이 무엇이냐면 전부 망상덩어리거든. 알음알이 놀이거든. 요놈인데, 그러면 망상덩어리가 술을 먹고 싸움을 한다 말이여. 그러면 부처 아닌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거 아니라. 내가 술 먹고 싸움을 하는 걸 알아. 요놈이 부처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두 나 아니가? 둘 아니라 하난데 행동을 둘로 하는데 그만 싸워. 저 놈이 밉다 말이야. 저 놈 밉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부처자리거든. 그러나 그대로 행동을 옮겨. 미우면 밉다 좋으면 좋다 이런 행동을 옮긴다 말이지. 옮겨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알음알이여. 그렇게 보면 되요.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 알음알이하고 진심하고 둘 아니건만은 그러나 경계에 휘둘리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고 경계에 휘둘리지 안 해. 그대로 말쑥한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경계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에 있어서는. 처음에 공부할 땐 분별을 치워야 된다 이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거든. 잘 분별을 해. 분별을 하지만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가 부처 아니라요?

> **중생불이라 중생놀음 하는데**
> **실은 우리가 부처.**
> **번뇌망상 일으키는**
> **이것도 부처자리**
> **달리 제도 받을 사람도 없고**
> **제도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하겠어요. 나는 생각을 하기를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내가 모르겠어. 이전 어른들은, 이전 어른들은 망심이 본적하고, 망령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망령된 마음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 상대성으로 우리가 삶을 굴려가는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긴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망심의 당처가 공했다 말이여. 본공한 것이거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든지, 좋은 생각을 가져서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릇된 생각으로서 어긋난 행위를 한단 말이지.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씀씀이가 알음알이 놀이가 그 당처 빈 거라. 적적한 거라. 그러하고 진경(塵境). 경계. 집도 경계요 우리의 색신 몸뚱어리도 경계요 산도 경계요 나무도 경계요 부는 바람도 경계요. 모든 것을 뚤뚤 뭉쳐서 티끌경계라 이전 어른들은 말씀하셨는데 진경이 본공이라. 비었어. 일체가 비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아니라요? 아무리 태산준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빈 거 아니라요? 공성 아니라요? 그러니까 삽으로 푹푹 파지기도 하고 대포알을 집어던지면 그 놈 산이 뭉개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빈 성품이 아니면 절대 안 그래. 우리의 몸뚱어리 이것도 빈 성품이거든. 적혈구 백혈구로서 모아진 하나의 가죽주머니라 해도 사실은 이거 빈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당처 이것도 빈 것이거든. 이러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경계를 여의어라. 사상을 여의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라. 그것 전부 헛거니라. 또 산하대지도 여의어라. 산하대지를 여의라 해서 깡그리 없애버리고 빈 걸로 보지 말고, 산하대지를 그대로 두고 그걸 빈 성품으로 봐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하자면, 더 줄여서 말하자면은 망심이, 우리의 마음씀씀이, 망심이 본적하고 본래 적적하고. 진경, 티끌의 경계가 본래 비었단 말이여. 이것을 알면은 견성을 하느니라. 아마 이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했을 거여. 그러나 나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 조사님들 말씀을 거꾸로 한 번 뒤집어 볼 작정이여. 어떻게 하느냐 망념이 본적하고 망령된 여김이, 망심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공이니라. 이걸 알면은 견성, 성품을 보느니라 이래 하는데 나는 정반대로 우선 견성을 하면은 망념이 본적한 줄 알고 진경이 본공한 줄 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처님 말씀 거꾸로 뒤집는다 말이여.

왜 그러느냐. 다른 데 가서는 나 이렇게 설법을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이 누리의 참된 주인공, 색신으로서인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법신, 허공으로서인 내라 말이여. 이건 여러분들이 알았거든. 그러면 색신으로서인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내란 말이여.

허공 하면 허공을 위한 허공이 아니거든. 늘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허공이란 말을 써야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말하는 건데 허공 자체에 있어서 슬기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허공이지만은, 슬기가 있는 허공은 뭣이냐 하면 바로 영지거든. 법신자리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 '發' 하여 방향 잡아가는 '회향'

⑩ 보개회향(普皆廻向)

南無至心歸命禮西方彌陀佛(一拜)
所有與我同行者 於一切處同集會
身口音業皆同等 一切行願同修學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廻向
普願沈溺諸衆生 遠往無量光佛刹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보개(普皆)는 이제까지 말한 것 모두 ①, 예경제불(禮敬諸佛)에서 ⑨, 항순중생(恒順衆生)까지 거쳐 오면서 얘기한 것 모두라는 뜻.

회향(廻向)은 향방을 바꾸어서 나아간다. 회(廻)는 회전, 굴려서 돌린다, 돌이킨다. 향(向)은, 취향(趣向), 처음에 나무(南無)한 것처럼 나아가서 향한다. 어디로 나아가며, 무엇을 굴려서 돌리느냐, 돌이키느냐? 제가 닦은 선(善)을 돌이켜 보인다. 향(向)은 삼처(三處), 세 곳으로 향한다. 축원할 때 뇌는 회향삼처실원만(廻向三處悉圓滿)하는 삼처인데 이는 실제(實際) · 보리(普提) · 중생의 세 가지다. 실재는 실지로 있는 것, 이것이 원 주되는 것이고 본체다. 실제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일을 한다, 이것이 보리이다. 깨쳐 나간다는 그것이 실제의 상(相)이다. 제중생(諸衆生)은, 즉 모든 중생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덕을 베푸는 용(用)이다. 이렇듯 체상용(體相用)의 세 가지의 큰 것이 삼처가 된다.

회향이란 앞으로도 또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이는 마음이 좁고 용렬한 데에 꽉 막혀 있는 것을, 그것을 제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용렬하고 좁은, 협열(狹劣)한 생각을 낳게 한 장애(障碍)를 제거한다는 것은 광대한 선을 내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 회향이랑 우리로 하여금 결국 방향을 잡아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를 발취도상(發趣道相)이라고 한다. 마음을 발하여 부처들이 모두 증덕(證德)한 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또 대도(大道)를 밟아 나가는 거룩한 보살(菩薩)들이 발심(發心)하여 수행한다는 뜻이 있다. 그런데 발심이란 아주 중요한 말이다. 발심이 있어야만 회향이 되어진다. 회향은 그 중심이, 마음을 발하여 나아간다는 발심에 있다. 원효대사의 소년 시절의 작품으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달리 발심의 내용을 캐어 본다면 첫째는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둘째 해행발심(解行發心), 셋째 증발심(證發心)으로 되어 있다.

신성취발심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모든 것의 원 토대다. 믿음이 튼튼히 서고, 튼튼히 곽 섰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의 머무른다는 것은 십주(十住)다.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것, 믿음이 굳어졌다는 덕은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십주의 수행단계에 가서 서 있다. 십신위(十神位) 중에서, 즉 믿음을 닦아 나가는 절차 중에서 신심(信心)이 성취되면 자연스러이 이미 결정된 마음을 낸다. 결정된 마음이란 머물러 있고, 방일치 않고, 여실수행(如實修行)하기 때문에 이에 이르렀을 때는 그 발심은 믿음을 성취한 것이다.

둘째의 해방발심이란 오수(五修)의 십회향(十廻向)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된다. 믿음을 닦아나가는 실천적 행동을 돌

> **결정된 마음이란 머물러 있고**
> **방일치 않고, 여실수행하기에**
> **발심은 믿음을 성취한 것이다.**
>
> **믿음을 닦아 실천 · 행동하며**
> **경험 살려 나아가면 '회향'**

리어 더욱 경험을 살리고, 더 잘되게 해보자는 것이 회향이다. 회향은 십행(十行)에서 얻어진다. 그런데 이 회향의 지경에 이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든가, 내가 아는 것이 옳다든가, 나라는 것이 있어야겠다던가 하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법(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비어져 공(空)해진다. 자타(自他)의 관념이 없어져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내가 봉사해야겠다하는 능해법공(能解法空)을, 그러니까 진리가 공(空)된 것임을 알게 된다. 이에 이르렀을 땐 또 이 우주의 대사회, 즉 법계(法界)애 수순(隨順)을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순이란 굉장한 것이다. 법계에 수순한다는 것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닦고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가 순숙해져 회향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룩하는 것이 해행발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해행(解行)한다고 한다.

셋째번의 증발심은 초지(初地)에서 십지(十地)에 걸친 지경의 발심을 이른다. 초지와 십지 또는 십주(十住) 등이 따로 따로 떨어져 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설명의 한 방법일 것이고, 실상은 다 하나의 것이라고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신(信)이 굳어진 것이 곧 지(地)의 지경이고, 지는 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지경에 있어서 신성취(信成就)한 발심(發心)과 해행(解行)한 발심의 이 두 가지를 상사발심(相似發心)이라고 한다. 상사(相似), 즉 근사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진짜는 아니라는 뜻이다. 발심해서 옳게 마음을 낸다, 근사하다, 이런 말이다. 진짜 발심은 증득법신발진심(證得法身發眞心)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리의 몸둥이를 우리가 스스로 자체로써 체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이것이 증발심(證發心)이다. 그런데 실상은 해행발심(解行發心)이나 증발심은 나중에 일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중요하며 문제되는 것이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이다.

이 발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직심(直心)이다. 원효대사는 또 이를 불곡(不曲)이라 하였다.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념(正念眞如法)이다. 둘째에는 심심(深心)이다. 이는 궁원지의(窮源之義), 아주 깊은 궁극의 연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원류(原流)를 꿰뚫었다. 궁극하여 다 달았다. 여기 이르면 제선행(諸善行)을 참집(參集)하게 된다.

셋째는 대비심(大悲心)이다. 일체 중생의 고(苦)를 없애주어야겠다 하는 욕발일체중생고(欲拔一切衆生苦)다. 일체 중생이 괴로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심(直心) · 심심(深心) · 대비심(大悲心)의 셋으로써 신성취발심은 이루어졌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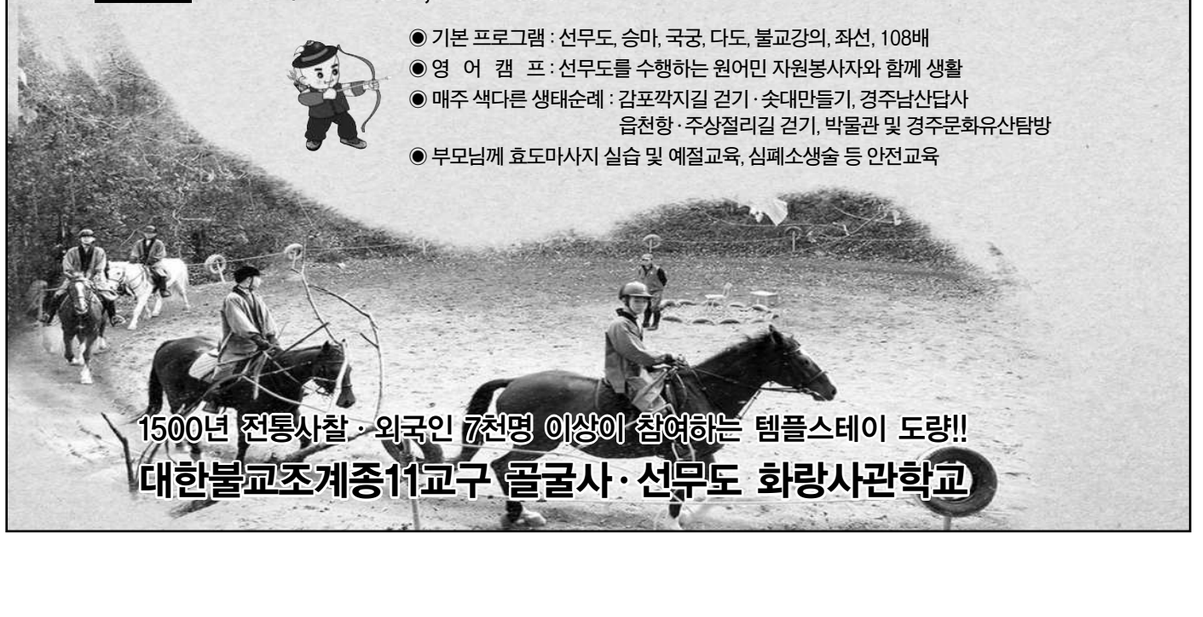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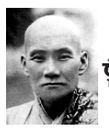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45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새 시대의 리더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화랑 수련회에는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는 **21세기** 신화랑 캠프입니다.

일 시 2014년 7월 20일 ~ 8월 23일
모집 인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 ~ 15시 입산 / 토요일 12시 하산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수련 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접수 문의 ☎ 054)775-1689, 744-1689 ※ 홈페이지 : www.sunmud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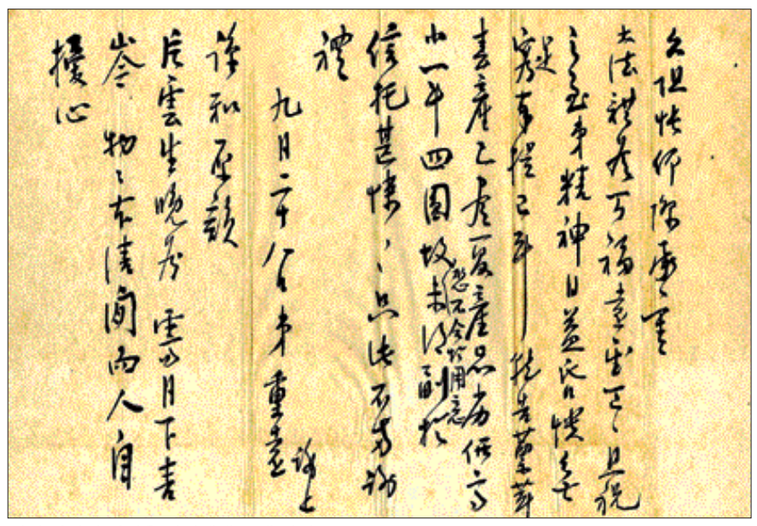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불교강의, 좌선,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솟대만들기, 경주남산답사
읍천항 · 주상절리길 걷기,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6〉

"표고버섯과 남은 돈 7원2전 보냅니다"



한암 선사가 진진응 화상에게 보낸 답서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통

1.

오랫동안 적조하여 그립던 차에 서찰을 받고서야 법체가 만복함을 알았습니다. 멀리서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 송축하는 마음 지극합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하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표고버섯을 사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봄에 나는 것은 이미 끝났고, 여름에 나는 것은 품질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싸서 소두 한 말에 4원씩이나 합니다. 마음에 들지 몰라 부탁을 못 들어드립니다. 심히 송구합니다. 이만 줄이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9월 28일

제(弟) 중원은 답서를 올립니다.

원운(原韻)에 화답함.
조각구름은 저물녘 골짜기에 피어오르고
맑은 달은 푸른 산봉우리에 지는구나.
만물은 모두 본래 청한(淸閑)하거늘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네.

경봉 스님에게 보낸 답서(答書)다. 경봉 스님이 표고버섯을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한 듯하다. 이에 대하여 한암 스님은 "표고버섯이 봄에 나오는 것은 이미 끝났고, 여름에 나는 것은 좋지도 않은데 값은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못 샀다고 말하고 있다. 편지 끝에 선시(禪詩)는 경봉 스님의 원운에 답한 것이다. "만물은 본래 청한(淸閑)한데, 중생은 부질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무심(無心), 무사(無事)를 읊고 있다.

2.

삼가 서찰을 받고서 법체 내내 만복함을 알았으니, 멀리서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부탁하신 표고버섯은 때가 늦어 구할 수가 없어서 월정사 종무소에 부탁을 했더니 사중(寺中)에서 사서 비축해 둔 것이 있는데, 매입(買入)했던 값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소두 한 말에 2원 49전, 두 말에 도합 4원 98전씩입니다. 보내온 돈 12원 중에서 이 금액을 제하면서 7원 2전이 남습니다. 소포 부치고 아울러 시장에 간 사람의 식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보내오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弟)는 병세가 여전하고 대중들도 그럭저럭 잘 있으니 다행입니다.

11월 6일

제(弟) 한암(漢岩) 배사(拜謝)

경봉 스님이 거듭 한암선사께 표고버섯을 사 달라고 부탁한 듯하다. 한암선사는 때가 늦어서 구할 수가 없고, 월정사 사중에서 쓸려고 사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산 값 그대로 구해서 보낸다는 것이다. 값은 소두 한 말에 2원 49전, 두 말에 도합 4원 98전이며, 보내온 돈 12원 가운데 이 금액을 제하면서 7원 2전이 남고, 소포 부치고 아울러 시장에 간 사람의 식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은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당시 오대산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멀리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는 경봉 스님이 부탁할 정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이즘은 한암선사는 건강이 매우 좋지 못했다. 두 편지 모두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편지는 모두 1942년에 보낸 편지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공동체 가치는 삶의 큰 대안" … 연기적 삶 구현한 생명 살림 20년

이정호 인드라망 생협 상무이사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귀농바람이 불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귀농가구 수는 5만 455가구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이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 · 귀촌을 할 정도로 귀농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농이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에서는 생소한 단어였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상무이사(46)는 귀농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그 시절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온 사람이다. 그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불교귀농학교'를 통해 농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 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인드라망 생협 상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주력, 도농 공동체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리산살리기, 천성산살리기를 비롯해 불교생협연합회 등에서 소임을 맡으며 불교적 생명살림 운동에 동참해왔다.

이정호 상무이사는 "불교의 대중화는 생명운동으로 회향돼야 한다. 중창불사나 복지사업들도 좋지만 다분히 인간중심적인 사업이다. 불자들이 조금만 인식을 바꾼다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교 생명살림 운동에 대해 강조했다.

목동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불교생명평화와 공동체 삶에 대해 들었다.

도법 스님과의 인연

이정호 상무이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으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청주 용화사 고등학교 불교학생회에 참여하면서 더욱 깊이 불교를 믿게 됐다. 대학 시절에는 대불련 서울지부에서 활동했다. 이때 지금의 아내이자 도반인 변혜준(45)씨를 만났다.

"시절이 시절인 만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통일운동이나 5공청산, 10 · 27법난 진상규명 촉구같은 투쟁을 하면서요."

이 상무이사 만큼 아내 변혜준 씨도 불교와 인연이 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동네 인근 사찰에 많이 다닌 변 씨는 초등학교부터 불교모임에 참여했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레 대불련에 가입해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결혼 18주년을 맞는 이들 부부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간다.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소양을 키운 이정호 상무이사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불교재가단체의 소임을 맡았다. 스님들이 만든 신행단체인 '선우도량'에서다. 선우도량은 '승풍진작, 올바른 수행자상 정립, 불교사상에 입각한 사회활동'을 모토로 1990년에 결성된 조계종의 비구결사로, 도법 스님은 당시 선우도량 창립과 활동 중심에 서 있었다. 이 상무이사와 도법 스님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불교학생회 · 대불련 활동하며 불교 심취
선우도량서 도법 스님과 인연 시작
생명 · 생태운동의 근원적 활동은 '농업'
귀농학교서 생명존중 배우며 농민 육성
생협은 "구성원들 생태사회 위한 활동 공간"
"불교대중화는 생명운동으로 회향돼야"

"제 법명은 '효원(曉園)'입니다. 1998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창립 무렵, 상임대표였던 도법 스님께서 '아침해를 가장 먼저 맞는 새벽동산처럼 늘 부지런하게 살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맞게 살고 있는지 못내 쑥스럽기만 합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귀농

1990년대 초 · 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과 가치에 중점을 두는 흐름이 점점 확대돼 왔다.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많이 생겼고 시민운동의 큰 흐름이 됐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도 이런 흐름에 맞춰 탄생했다. '모든 생명이 서로 관계되어 있으며 너 나 할 것 없이 존귀하다'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것이다.

"1970~80년대가 격동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모색의 시대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분출되고 억눌렸던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 하는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떠오르던 때였습니다. 도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당시 한국 사회를 '생명의 위기, 문명의 위기'로 진단내렸습니다."

당시 불교사상과 방법론에 입각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했던 도법 스님과 선우도량은 불교적 자원, 즉 사찰과 생명존중사상을 통한 생태운동을 고안했다. 그리고 1998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설립해 생활 속에서 새로운 '생태주의적 철학과 생활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 대안은 귀농운동, 공동체운동, 밥상살림운동, 빈그릇운동, 생협운동 등이었다.

"생명 · 생태 운동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해보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농업이었죠. 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국토의 생태계균형을 맞추는 일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정호 상무이사는 불교귀농학교, 실상사귀농학교, 현장귀농학교 등에서 다양한 이유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와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불교귀농학교'에서는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몇 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농업을 추구하는 농민을 육성하고, 두 번째가 흙과 함께 건강한 농촌문화를 만드는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연기적 세계관으로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보충하기위해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등에 의존하는 농업방식이 우리나라 모든 농촌에 보급됐다. 이러한 농업방식은 결과적으로 땅을 죽이고, 농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오염된 땅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먹는 도시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불교귀농학교에서는 생명유기농업을 통해 땅과 농민



인드라망 생협 물류센터 개소식때 도법 스님(가운데)과 함께.



2003년 강원도 횡성군 농민회와 서울 강남 봉은사간 농산물 직거래 협약을 맺어 불교계 최초의 도농 공동체 기반을 닦았다.



불교귀농학교에서 강의를 펼치는 이정호 상무이사.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고품격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189만원
(초특급 호텔, 모든경비 포함)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8월 26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9월 12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9월 18일. 9월 25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8월 16일. 9월 12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달라 5일 8월 20일 출발
양곤/바간/헤호 6일 8월 23일. 9월 27일 출발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8월 16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29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코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을 살리고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10여년간 귀농학교를 진행하면서 15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500명 정도가 귀농을 하고 생산자로 활동하면서, 생명유기농업을 통해 땅과 농촌을 살리고 도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불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해 귀농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핵심은 '바른 먹거리 운동' 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생명농업을 통해 생산된 생명농산물을 도시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알고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망생협은 귀농을 꿈꾸고 있는 도시인들과 농촌의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태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불자들 인식 개선 필요

하지만 생명평화와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은 생협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인드라망생협은 불교계 생협 중 가장 일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경부터 친환경공양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법당에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쓰자는 운동이었죠. 불교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소비하고 생협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봉은사, 화계사, 길상사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사찰이 인드라망생협과 협약을 맺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찰들이 관심을 갖고 협약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7곳의 사찰만이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정호 이사에 따르면 불교계 대표적 생협들의 회원수는 이웃 종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웃 종교 생협 중 가장 활성화된 가톨릭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명의 조합원들이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드라망 생협이 1500여 명, 대불청의 연꽃 생협이 340명, 대전불교생협이 520명이다. 세 단체의 조합원 모두 합쳐도 가톨릭 생협 1/10 수준에 그친다.

"조건이 형성돼야 일이 발생하듯 귀농운동이나 생명생태운동을 하려면 몇 가지 구성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귀농은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협운동은 생산자들이 강력하게 조직돼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만 따지면 가톨릭이 최고입니다. 가톨릭농민회라는 40년 넘은 단체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농민들 제값받기 등 농민을 규합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축적된 역량은 굉장하죠. 이들 농민회는 면단위로 구성돼 생명 · 유기농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런 농민회조차도 없어요. 아직까지 사찰은 근대적 가치에 머물러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가격만 저렴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생산이 어디서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 등 윤리적 소비를 신경쓰지 않아요."

이정호 이사는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되려면 각 지방마다 위치하고 있는 사찰들이 농촌과 연계해 불교 사회적 역할을 높이면 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생협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스님과 불자들의 생협과 조합원 제도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동이라는 것은 생태적 기술입니다.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양보, 배려 할 줄 아는 것이죠. 경쟁사회에서 경쟁적 인간으로 길러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그중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시중 가격보다 다소 높아도 불교 생협의 가치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 생협은 현재 씨앗을 틔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농업과 농촌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유기농업운동'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조직이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자들이 생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진 불자 귀농자를 모아 협동조합 운동 활성화를 발원했다.

"불교계에서는 생활협동조합이 대중화돼야 귀농하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귀농자들 대부분이 개인적 인연에 따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이때 인드라망 생협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찰과 지역 신도들을 연결해 지역 곳곳에 생협 매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다 많은 불자들이 생협에 관심을 갖고 조합원에 등록 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부지런히 살기 위해 쌀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는 이정호 상무이사. 그는 도법 스님이 준 법명대로 '새벽동산' 처럼 늘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정호 상무이사는 … 인드라망 생협 상무이사를 맡으며, 현재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정책위원장(준)의 소임과 불교생협연합회(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불교계의 활동으로는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 집행위원'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정책실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 '한국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기획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천성산살리기시민환경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잘린 손가락을 치유해 주다

2013년 초파일을 한 달 앞두고 우연히 뚜안을 만났다.

"스님, 안녕하세요. 센터에 친구 만나러 왔어요."

"반가워! 뚜안. 그런데 왼손이 아픈 거야? 붕대를 왜 감고 있어?"

그런데 단순히 붕대를 감은 수준이 아니었다. 새끼손가락을 빼고 모두 프레스기에 잘린 상태였다.

합장을 하게 했더니 사라진 부위가 너무 컸다. 사실은 새끼손가락도 안 남고 손바닥 안쪽까지 잘려나갔던 것이다. 손이 없으니 당연히 그에게 일자리를 줄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 산재보험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았단다. 하지만 한국에 올 때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모두 집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는 글과 함께 150만원의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의수 제작비 마련까지 다시 100km 마라톤을 뛰겠다고 올렸다.

한 달만에 후원금이 마련되었다. 의수 제작소로 동행해 더 나은 재질을 선택했다.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마침내 다친 손을 가리게 된 의수를 낀 뚜안의 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나는 이 기쁨을 2013년 초파일 날, 절에 오신 분들에게도 전했다.

"부처님은 큰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등을 올리면 복을 많이 받고, 작은 등을 올리면 적게 받는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 가까이에 등을 켜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법당 가까이 등을 키면 좋아하고 조금 구석진 곳에 밝히면 뭔가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결코 부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뒤에 있더라도 간절한 발원으로 밝힌 등이 더 오래간다고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가 전해집니다. 오늘 작은 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되새기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행사 발원문을 마치고 대둔사 노보살님들께는 따로 감사를 드렸다. 뚜안의 의수를 마련하는데 할머니들이 시주하신 1천원, 2천원이 모여서 보탬이 되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뚜안에게 의수를 선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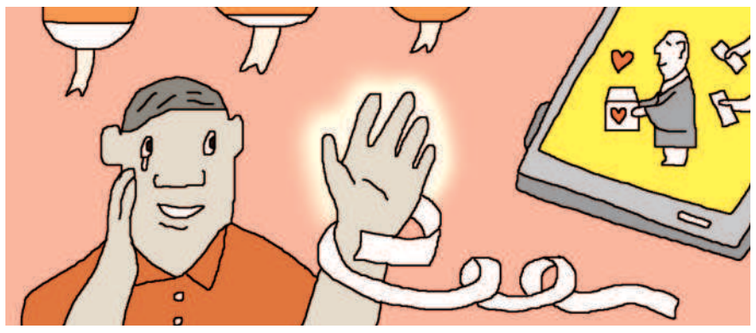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지는 커녕 업체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일부터 시키고 보는 일부 업자들의 잘못이 컸다.

다시 만난 뚜안은 더욱 의기소침해있었다. 무료하고 심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뚜안은 2주 뒤에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의수를 왜 안 했는지 물었다.

"비싸요."

30살 베트남 청년 뚜안의 어깨는 축 쳐져있었다. 150만원이 없어서 저 상태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뚜안은 고향 친구들을 만났을 때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나는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모금을 기획했다. 몸이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매일 자신의 없어진 손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다.

나는 그의 허락을 받고 잘린 부위의 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곳곳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동시대 불교 활용성에 주목한 美 젊은이들

50여 명의 USC 대학 재학생들 … LA 지역 불교사찰 명상센터 탐방
로리 믹스 종교학과 조교수, 현장 중심 '불교문학개론' 강좌 진행

미국 캘리포니아 USC 대학(USC Univ.) 종교학과 조교수가 불교를 주제로 LA 일대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USC News〉지는 7월 14일 보도를 통해 "이번 학기에 개설된 '불교문학개론' 강좌를 맡은 로리 믹스(Lori Meeks · 종교학) 조교수가 수강 학생들을 이끌고 LA 지역의 불교사찰과 명상센터를 방문하는 현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50여 명의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는 사실적인 불교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교양과목으로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된 '불교문학개론' 수업은 '고대 불교문헌과 동시대 사찰생활'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대 불교문학과 현대 불교생활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이 강좌에는 종교학은 물론 동양학, 물리학, 사회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USC 대학 재학생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대의 가르침이 동시대에 어떻게 전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번 수업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한 믹스 조교수는 "동양학, 물리학, 사회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불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최근 LA 도심에 있는 소토 젠(Soto Zen) 센터를 방문해, 명상 지도자인 슈모 코지마(Shumyo Kojima) 스님을 만났다. 이날 수강생들은 희미한 불빛에 감싸인 명상 공간에서 방석에 앉아 코지마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명상을 실수하고, 스님과의 인터뷰 시간도 가졌다.


슈모 코지마(Shumyo Kojima) 스님. 코지마 스님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로리 믹스(Lori Meeks · 종교학)의 '불교문학개론' 수강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안토니 케사돈트(Anthony Casadont, 물리학 전공) 씨. 그는 이번 현장 수업에서 일본불교인 일련종 계열 사찰과 명상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믹스 교수는 "기초 문헌을 조사한 수강생들은 코지마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불교가 고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동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강의 목적에 일정부분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며 소토 젠 센터에서의 현장 수업을 평가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현장 수업은 수강생들이 티베트 · 태국 · 베트남 · 한국 · 중국 · 일본불교계 등 LA 소재 사찰이나 명상센터 중 5곳을 선정, 각각 3차례에 걸쳐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재적 스님과의 인터뷰 등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강생들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교사찰과 명상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수업"이라는 마라 구에바라(Mara Guevarra, 동양학 전공) 씨는 "한국계 이민 세대의 사상과 문학를 연구하고 싶다"며 "달마 젠(Dharma Zen) 센터는 한국계 이민 1세대의 수행처였는데, 현재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도에 순수 백인 불자들이 교육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3세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며 일련종 계열 사찰을 여러 곳 방문 조사했다"는 안토니 케사돈트(Anthony Casadont, 물리학 전공) 씨는 "선(zen)은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련종의 경우 첸트(chant)를 통해 보다 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알게돼 흥미로웠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불교는 철학이나 이념의 어떤 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와 불교의 연관성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보리우스 알렌(Javorius Allen, 사회학 전공) 씨는 "순간 순간의 집중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 불교는 스포츠와 그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불교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역시 '지금 여기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끝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렌 씨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 역시 불교와 스포츠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USC News〉지는 이번 강좌를 기획?진행하고 있는 믹스 교수의 말을 인용, "고대 문헌을 읽는 것은 종교 교육의 오랜 전통이지만, 이번 강좌에서 그 문헌의 가르침이 동시대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종교 교육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일 평화' 싣고 건너는 미륵보살

한국과 일본 작가가 공동작업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이것이 의미있는 것은 불교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과정을 그대로 스토리텔링화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목조선은 백제에서 일본 오사카에 이르는 뱃길을 건너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은 한일 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미륵보살이다. 미륵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 이는 한일간 우호적 문화 교류를 이뤄낸 역사시기를 돌아보며 한일 양국간 조화로운 미래를 그려봤으면 한다는 작자들의 의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도기로 제작된 미륵보살상은 박동기(47) 작가가, 목조선은 다카시 기쿠치(53) 조각가가 만들었다. 두 작가는 한일 예술가 그룹 '포레스트 비욘드' 회원이며 양국에서 꾸준히 현대예술전을 열어왔다. 이 작품은 나라현립미술관에서 7월 21일까지 전시됐다. **배현진 기자**

샤마르 린포체, 히말라야 안장될 수 있을까

네팔 정부, 중국 '눈치' 등으로 장례위원회 요구 거절


지난 6월 독일에서 심장마비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

지난 6월 독일에서 심장마비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가 네팔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DX〉지는 7월 18일 "티베트 불교 주요 4대 종파 까규(Kagyu)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린포체 중 한 분, 샤마르 린포체의 장례위원회는 네팔에 린포체를 안장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네팔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히말라야 불교계의 상황으로 장례위원회 요구가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샤마르 린포체의 영구는 인도 뉴델리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켄포(샤마르 린포체 장례위원 · 카르마파 연구소장) 린포체는 "네팔 정부가 샤마르 린포체의 안장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과 함께 까르마파 환생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샤마르 린포체의 행보에 히말라야 불교계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히말라야 불교계에서 샤르마 린포체의 과거 위상을 생각하며 여법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2세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는 티베트 동부 더게에서 태어나 4살 때 까르마파 랑중 릭삐 도제로부터 14대 샤마르파로 공식 인정받았다.

샤마르는 까르마파의 중요 제자 3명 중 한명으로 16대 까르마파 사후 환생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틴래 타에 도제(Trinley Thaye Dorje)를 1994년 환생자로 추대했으나, 다른 린포체들은 현재 공식 까르마파인 오갠 틴래 도제(Orgyen Trinley Dorje)를 추대해 환생자 인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오갠 틴래 도제를 공식 17대 까르마파로 인정하면서 논쟁이 종식됐다.

중국 통치하에 있는 티베트를 탈출해 2000년 인도로 망명한 공식 까르마파 오갠 틴레 도제는 인도 다람살라 규또사원에 머물고 있으며 샤마르파가 추대한 틴래 타에 도제는 1994년 인도 망명 이후 인도 델리에 거주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급진 불교계, 교황 공식 사과 요구

교황 프란치스코, 내년 스리랑카 방문 예정


지난 8일 로마 교황청을 찾은 스리랑카 가톨릭교도들과 만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스리랑카 가톨릭교도들은 이날 교황의 요청으로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을 선보였다.

스리랑카 종교 분쟁의 정점에 서 있는 급진적 불교그룹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ABC News〉지는 7월 6일 "스리랑카의 급진적 불교그룹 보두 바라 세나(Bodu Bala Sena)가 교황의 내년 스리랑카 방문에 앞서 과거 기독교 식민통치 시절 남아시아 일대에서 저질러진 잔학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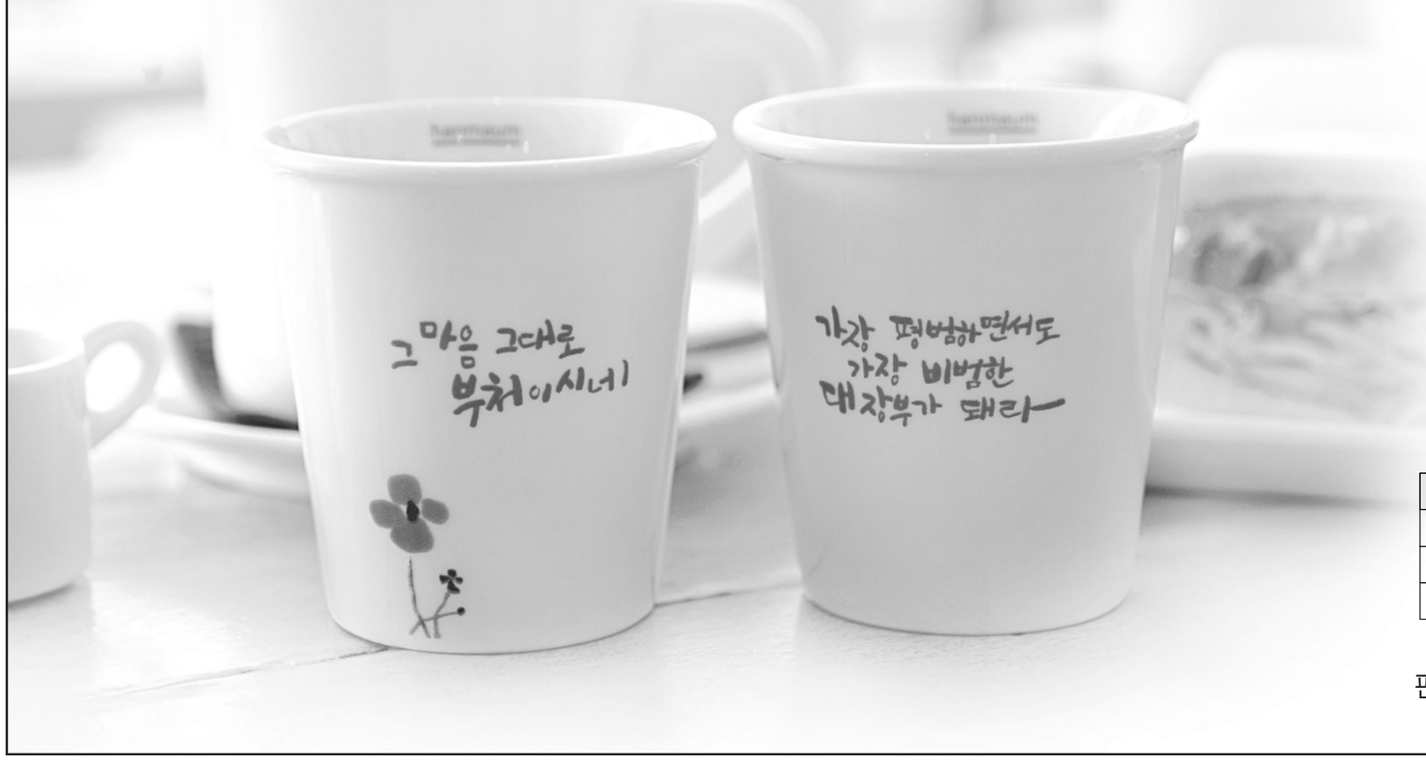
보두 바라 세나를 이끌고 있는 갈라고다 아트 가나사라(Galagoda Atte Gnanasara) 스님은 스리랑카 주재 외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남아시아 일대에서 과거 기독교의 만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칼라고다 아트 가나사라 스님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모두 우리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며 "당시 포르투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아 1505-1948년 사이에 스리랑카에 잇달아 식민지를 설립했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자신의 기독교 교단을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2월 8일 교황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스리랑카 순례객 약 1만2000명과 만나, 스리랑카 국민들의 종교간 화해를 요청하면서 스리랑카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앨버트 말콤 란지스 패터밴디지 돈 추기경(스리랑카 콜롬보대교구장)이 주례한 미사가 끝난 후 란지스 추기경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여러분의 초청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스리랑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백봉 거사의 맥을 잇는 거사풍 참선도량

부산 광안리 새말귀선원



2013년 겨울용맹정진을 마치고

새말귀선원 건립

자기 마음속에 들어 있는 심원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대승의 바른 믿음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수행의 길을 걷다보면 본질을 투시하고 실상을 관조하는 안목을 얻는다. 그렇게 발현된 지혜의 안목은 영원히 자기를 살린다. 그래서 수행은 생명을 걸어볼 만한 일대사의 일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생명을 걸어 생사가 둘 아닌 깨달음의 자리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선원장 춘당 이황우)이다. 새말귀선원에는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 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거사불교의 횃불을 지켜들었던 백봉 거사의 뜻을 이은 춘당(春堂)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새말귀선원은 도심에서 가정과 직장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거사풍의 참선도량이다. 1990년 1월,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춘당서예학원에서, 현재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미발표 법문록' 의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법제자인 춘당 이황우거사님을 모시고 금요법회와 토요철야좌선이 시작되었다. 이후 전세살이로 도반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해 오던 선원이 이전을 거듭하다 2013년, 안정된 수행처의 필요성을 인식한 도반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불사에 의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수영구 금련산 자락에 새말귀선원이 올해 6월 준공되었다.

새말귀(새로운 화두)란 무엇인가?

좌선 중에는 화두를 들지만, 재가불자들의 생업에서 화두를 들기란 어렵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백봉 김기추거사의 새말귀이다.

먼저, 선지식의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천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학인들에게 일깨우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주인공)이 유상색신(육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는 것을 규법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 도리를 깊이 인식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양변의 모습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中道)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말귀를 세워 나가자는 뜻으로 새말귀(新話頭)라 이름 한다.

새말귀선원장 춘당 거사는 '새말귀(새로운 화두)' 뜻을 부연 설명한다.

"스승님이 재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신화두(新話頭)의 우리말입니다. 재가자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속하지 않는 허공과도 같은 것이 내 육신을 끌고 다닌다는 법문을 이해하고 '마음' 이라고도 하고 '주인공' 이라도 하는 그 놈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곧 화두를 놓치지 않는 효과를 거두는 공부법이죠." 그래서 새말귀선원 도반들은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는 새말귀로 정진을 흩트리지 않고 이어간다.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

대승법문으로 출발

새말귀와 화두정진으로 수행의 관성을 높여가는 새말귀선원은 철저히 대승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데, 매주 금요일에는 선원장 춘당거사가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유마경을 강설하며, 토요철야좌선 때는 선문염송을 통하여 선사들의 화두거리에 대한 법문으로 이어진다. 평상시에도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인들은 의문점에 대해 선원장과 일대일 참문을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또한 일 년에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은 수행의 고비를 넘어서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3박4일 하계용맹정진의 일정이 잡혔다.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출현하신다' 고 한다. 일대사인연이란 생사문제를 해결한 무상의 활연무애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견이다. 이 인연이 있음을 부처님과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으며, 또한 스스로 불제자임을 자부한다면 부처님과 스승님의 지견을 받들어 따르고 행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새말귀선원의 학인은 불제자로서 할 일은 오직 수행뿐이라 확신한다.


새말귀선원 법회


새말귀선원 외부전경

법회안내

- **금요일 정기 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9시, 금강경 강론
- **토요일 정기 법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일요일 오전 5시
  (설법 : 11시 ~ 12시 선문염송요론 강론)
- **하계 · 동계 용맹정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4 ~ 5일 철야용맹정진
- **4 · 8절 법회**
  음력 4월 8일 오전 10시 설법 및 좌선
- **화 · 수요일 정진**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8시 ~ 12시 좌선
- **금요일 정진**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 12시 좌선

새말귀선원 이용안내

홈페이지 http://www.saemalgui.org

본 홈페이지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모든 법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에 영상법문 탑재

YouTube에서 '춘당 이황우거사' 를 검색하시거나 '慧明' 을 정기구독하시면 새말귀선원장의 법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말귀선원 오시는 길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로 68번길 37-1
(구주소,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22-4)

TEL : 051)759-1097
총무 : 010-3398-7945

2014년 여름용맹정진 안내

- 입제 : 2014년 7월 31일(목) 오후 9시
- 해제 : 2014년 8월 3일(일) 오전 10시

추천불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나의 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신문사 저 | 292쪽 | 값 12,000원 | 우리출판사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 나의 신행' 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인터뷰 글을 묶어 〈나의 서원 나의 삶〉으로 출간되었다.

"전국의 불자들이 염불삼매에 드는 모습을" 꿈꾸며 염불원 건립의 서원을 간직한 채 50년 동안 경전 강설에 매진해 온 각성스님. 서원과 정진은 항상 현재진행형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이끌고 있는 성운 스님. "찬불가 보급 운동을 한 30년쯤 하겠습니다." 하고 세운 서원이 어쩌다가 평생의 일이 되어 버렸다며 너털웃음을 지으시는 미수의 찬불가 작곡가 운문 스님. 잘못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발심할 것을 강조하시는 경전 한글화의 산증인 월운 스님.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갖춘 불교타운을 꿈꾸는 부산 불교복지의 대명사 혜총 스님.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이라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 작은손길의 김광하 대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불자이고 포교사인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며 청소년 포교의 멈춤 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 보현행원의 서원을 하루도 잊지 않고 27년간 108배 수행을 지속했다는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며, 현장을 떠난 뒤로 불서 저술과 법보시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거목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 등.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야말로 한평생 서원을 실천해 온 참다운 불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행과 신행의 각 분야에서 상구보리하면서 하화중생하고, 하화중생을 상구보리로 승화시키는 그분들의 수행과 신행담은, 이 시대의 사표로서 우리 불자들에게도 신행의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불교는 서원 세우고 실천하는 종교
불교계 명사 25인 서원과 신행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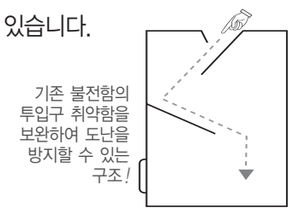


① 앞 뒤 ② 앞 뒤 ③ ④ ⑤ 앞 뒤 ⑥ ⑦ ⑧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 ~ 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

교성곡으로 만나는 '십우도'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 '수행의 여정' 연주



참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십우도를 교성곡으로 표현한 '수행의 여정'이 관객들을 찾는다.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천태종 관문사가 주관하는 십우도를 주제로 참 나를 찾아가는 교성곡 '수행의 여정'이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린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공연은 지휘자 한정일 씨〈사진 위〉가 1년여 끝에 완성한 곡으로 다문화 가족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한 씨는 "십우도는 참된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그림이다. 어렸을 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른이 되어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십우도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서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십우도가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자신의 아픔을 잘 견디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취지를 전한다.

지휘자 한정일 씨는 불자음악인으로 불교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방법으로 찬불가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다. 그동안 염원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찬불음반을 낸 바 있으며 최근 '인연의 끈'이라는 싱글 음반도 내놓았다.

천태종 합창단을 15년 동안 이끌어온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전법과 포교의 의미를 공연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지휘자 한정일 씨는 참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십우도를 교성곡으로 작곡한 '수행의 여정'을 7월 25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공연한다. 사진은 연습 장면.

합창, 독주곡 등 총 13곡 담아
한정일 지휘자가 1년에 걸쳐 작곡
7월 25일 세종대 대양홀서 발표
솔리스트와 합창단 등 2백여명 참여

천태종 관문사의 후원과 자비를 들여 기획한 이 공연에는 다문화 가족 3~4백 명을 초청해 놓은 상태다. 그는"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 회향한다는 의미에서 불자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이런 좋은 의미의 공연에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성곡 '수행의 여정'은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선의 실천을 통해 단계적으로 깊어가는 수행자의 심경을 열 개의 상징적 그림에 맞추어 구성, 목동과 소를 통해 잃어버린 참된 자신을 찾는 구도의 과정을 담았다. 음악은 혼성 합창과 솔리스트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통해 총13곡으로 표현된다.

한 씨는 "십우도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 핵심 내용을 챕터마다 정리했다. 노래 가사에 맞게끔 단어를 선정하고 운을 맞추면서 작곡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다. 이번 공연을 마치고 3년 후쯤에는 이 곡을 오케스트라로 장엄하게 만들어 다시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박소림, 바리톤 고일언 · 김재일 · 박경태와 서울프로아트오케스트라, 관문사 · 대광사 · 성룡사 · 천화사 · 황룡사 합창단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02)3460-53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空사상' 만다라 몸짓 언어로 풀어내

티베트 무용단 완마댄스컨퍼니 '샴발라' 공연



샴발라는 티베트의 민속춤인 토풍무와 티베트 불교의 금강무를 현대무용과의 조화로 이뤄낸 공연으로 공사상을 보여준다.

티베트의 토풍무 · 금강무
지안추오가 현대무용으로 '승화'
8월 2일~3일 국립극장서 공연

티베트의 만다라가 무대 위 춤사위로 그려지면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영혼의 여정이 펼쳐진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베트 안무가이자 연출가인 완마 지안추오(Wanma Jiancuo)는 '샴발라(Sham-bhala)'로 티베트 불교의 핵심과 티베트 문화의 정수를 무대 위에서 펼친다.

댄서들은 순결한 하얀색 소라, 날리는 연, 무게 없는 물고기, 무대에 수놓아지는 일곱가지 색의 모래 만다라 등의 상징적 도구로 티베트 불교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보여준다. 무용수들의 복장은 절제되어 신체의 선과 감정만으로 음악에 맞추어 움직인다. 또한 안무는 티베트의 민속춤인 토풍무(土風舞)와 티베트 불교의 금강무(金剛舞)를 현대무용과의 조화로 이뤄낸다.

공연을 연출한 완마 지안추오는 티베트 출신으로 중국 방송국 공연 연출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2년 완마댄스컨퍼니를 창단해 뉴욕 시카고 홍콩 상하이 북경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샴발라'란 정신의 낙토(樂土)와 쾌락(快樂)의 원천을 말하며, 전통 문화적 요소를 현대무용으로 풀어내며 관객과 함께 마음속 이상세계를 찾아나간다. 특히 무대에서 모래 만다라(sand mandala)를 그리는 행위는 다채로운 시각적 충격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댄서들이 즉흥적으로 그리는 모래 만다라는 상반부의 차가운 색조와 하반부의 따뜻한 색조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만다라는 티베트인이 생각하는 우주관의 집중된 표현이자 진리이다.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다색의 만다라를 조성하고 뒤이어 모든 색을 파괴한다. 이러한 파괴의 행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완마댄스컨퍼니 홍보 담당 구휘 씨는 "감독이 티베트 출신이지만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떠나 티베트의 예술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공연이다. 불교 공사상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며 금강무를 추는 댄서들은 회색조의 단촐한 옷만을 입고 등장해 불교 사상을 춤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연은 8월 2일~3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KB하늘극장에서 펼쳐지며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이다. 1544-1555

정혜숙 기자

고흥의 중세 불교문화 한자리에

광주박물관 9월 28일까지 '남도문화전V-고흥' 특별전

봉래사 관음보살상과 복장유물, 봉래사 신중탱화, 무술명 동종 등 남도의 불교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남도문화전Ⅴ-고흥' 특별전을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

고흥은 우리나라 고인돌 최대 밀집 지역의 하나로 청동기문화를 꽃피웠으며, 삼국시대의 고분문화는 고대 해상세력의 실체를 보여준다. 또한 분청사기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도자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전라좌수군의 중추로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유구한 역사 속의 고흥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흥의 중세와 근세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광주박물관은 "고흥의 불교문화는 고려 초기에 형성되어 17~19세기에 가장 성행했다. 고흥의 주요 사찰 소장 문화재 가운데 봉래사 관음보살상에서 나온 복장유물 등 그동안 잘 공개되지 않았던 불교문화재가 대거 소개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고흥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봉래사 관음보살상

이와 더불어 고흥의 도자문화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운대리 분청사기가마터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려시대 청자부터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는 고흥 지역 도자문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강진과 함께 고흥이 도자 제작의 중심이었음을 알려줄 것이다. (062)570-7000

정혜숙 기자

'만만브라더스와 함께하는 카툰 템플스테이'

불교카툰 사이트 만만한 뉴스(발행인 지찬) 작가들이 7월 12일~13일 서산 부석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만만브라더스와 함께하는 카툰 템플스테이'로 열린 이 행사는 카툰 그리기, 카툰 강의는 물론 염주꿰기, 명상, 운력 등 불교문화와 카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학부모, 학생, 만화작가 등으로 구성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총 19명이 참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사찰을 관찰하고 자신이 느끼는 불교 상징물을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불교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만만한뉴스 발행인 지찬 스님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참여해 사찰을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옮긴 후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불교문화와 카툰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행사가 끝나고 작가들이 직접 그린 액자들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해 참가자 모두 감격스러워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법관 스님 초대전 '禪-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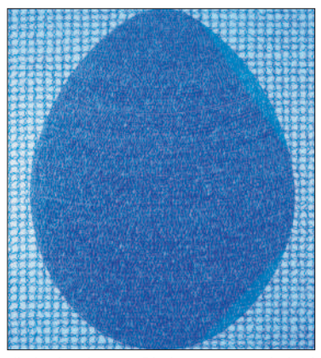
7월 29일까지 에이블파인아트NY갤러리서

법관 스님 초대전 '禪-2014'가 7월 29일까지 에이블파인아트NY갤러리에서 열린다. 주로 석채가루를 이용해 색과 선, 면 등 조형적 요소로 작품을 완성하는 스님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작화에 적용시키며 구도의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낸다.

법관 스님은 "마치 삼천 배를 하듯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 왔다. 정신을 놓지 않고 캔버스에 무수한 점을 찍는 과정은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니 수행과 다름없다. 이렇게 완성된 점과 선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제 각각 모두 다른 모습이다. 이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가는 구도의 과정과도 같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미술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독창적 미술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관 스님은 그림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가 작업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의 작품은 선(禪) 그 자체이기도 하다.

법관 스님은 "그림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작품을 봤다. 이 과정 동안 미(美)에 대한 개안(開眼)이 먼저 이루어진 것 같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색과 선, 면 등 조형적 요소로 표현한 법관 스님의 '禪'

법관 스님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개인전, 경인미술관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개인전 등 다수의 개인전과 한 · 중 문화교류전 등을 열었다. (02)546-3057

정혜숙 기자

지장보살님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 현신하신다!!

'영산불교 현지사 대구분원'은 지장보살님의 주처(住處)로서 영험한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로 학업을 성취하다

…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대구분원에 지장보살님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직 사춘기의 방황이 남아있고, 체력도 약하여 공부에 잘 집중하지 못해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어찌 견뎌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이라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반이 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반대로 아들은 지장보살님의 크신 가피로 반에서 1등을 해서 심화반 중에도 최상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던 둘째아들이 요즘은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 큰 아들은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분원에서 또 지장보살님께 대학 합격을 발원하면서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입학시험에서 아들은 심기 안정되어 실수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치과대학에 가고 싶어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들들 학업 문제로 얼마나 근심 걱정을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신 지장보살님. 세세생생 착한 불자 되어 오직 부처님을 찬탄 공경 칭명염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권은경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품씩 나누어 읽는다)
츰부다라니를 7회 정도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654-5557

지장보살님에 대해 처음으로 밝힙니다

지장보살님은 불명(佛名)이 시방여래불인 부처님으로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좌우보처는 선행장보살님 자원행보살님입니다. 명부(冥府)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명부는 살아생전 지은 선악업에 따라 죽음 이후 영혼체들의 갈 길을 결정하는 곳으로서 이 명부의 일을 도와서 좌우보처 역할을 대행하는 분이 도명존자 · 무독귀왕 (불격을 갖춘 최상수보살님)입니다. 그 아래에 열시왕(열분의 왕)이 계십니다.

–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 중에서 –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문화人

“현대와 전통 양극단 초월한 혼이 깃든 불상 조성이 원력”

서칠교 불교조각가



서칠교 작가는 현대와 전통 양 극단의 세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양과 전통 미술 동시에 수학
불상 조각 때 정신적 측면 천착
조계사 관음전 100관음상 좋은 예
10월 샤먼 불교박람회 출품 계획

10년 동안 서양 조각에 골몰하던 스물일곱의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며 어떤 길을 가야할지 망설였다. 그가 공부했던 홍익대 앞에 친구들과 입시미술학원을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마음속에는 창작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의 여자친구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다. 탱화를 그리기 위해 동국대 불교회화과로 편입했던 여자친구는 그에게 불교조각이 잘 맞을 거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보여준 불상들을 보는 순간 그는 주저 없이 이 세계로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전통과 현대미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불교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다. 현대와 전통 양 극단의 세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서칠교 작가(44).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고 낯선듯하면서도 익숙하다. 그동안 다섯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세계를 깨고 또 깨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서칠교 작가를 만났다.

“불교미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소운 김용우 선생님을 찾아가서 초 그리는 단계부터 연습을 했죠.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데생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제가 초를 그리면서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많이 힘들었죠. 사실 초 그리기는 몇 십년 숙련을 해야 익숙해지는 작업이고 또 일반 서양회화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요. 제가 배운 것은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했죠. 또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도 보충을 했어요.”

이렇게 서양 미술과 전통미술을 동시에 섭렵한 그가 추구하는 작품은 한동안 인체의 비례, 양감 등의 형태미를 강조한 인간미가 투영된 불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자신의 작품에 하나의 요소를 더 추가했다. 바로 불상에 깃든 정신이다. 그가 불상의 정신적인 측면에 천착하게 된 까닭은 서울 조계사 관음전의 100관음상을 조성하면서다. 그는 주불을 비롯해 과거 현재 미래의 33관음을 각각 조각해 총 100개의 관세음보살을 완성했다. 특히 주불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기존의 도상 형식에서 벗어나 공간적으로 펼쳐놓은 형태의 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완성했다. 2012년 12월에 시작해 2013년 9월까지 꼬박 10개월 동안 100관음을 조성하며 불상 작업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처음 기획 단계부터 조계사 창건 100주년, 도심포교 100주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조성을 계획했어요. 제각각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표정을 만들기 위해 경전을 읽으며 생각날 때마다 스케치하고 작업해나갔죠. 사실 혼자서 이 작업을 했다면 족히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개의 관세음보살님을 10개월 안에 조성해내면서 이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관음전 조성 이후 점안식에서 감동하며 환희심 내는 신도들을 보고 불상 작업은 단순히 조형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은 작가의 취향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고. “그동안 통일신라 작품이 미학적으로나 완성도 면에서 너무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고려 불상 역시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조선시대 불상은 균형미가 깨져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숭유억불 정책 때문에 불교가 숨겨져야 했던 시기에 모든 겉치레는 생략되고 조선시대 민중들이 진정 원하는 것만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인 힘이 크게 담겨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작업은 불상의 내재된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 작가는 10월 중국 샤먼불교박람회 참여와 동국미술회 그룹전 등의 준비로 분주하다. “늘 내가 좋고 남도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보는 이가 만족스럽다면 저에게 불행한 일이고, 또 혼자만 만족하고 관람객이 외면하는 작품이라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안에 개인전도 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인간미를 불어넣은 ‘수월관음상’.



서칠교 작가가 새롭게 해석한 서울 조계사 관음전의 100관음상. 오른쪽 맨끝은 주불의 천수천안을 해체한 모습.

거문고 줄처럼 좁은 길 지팡이 끌고 들어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㉙ 용문사 (上)





수령 1100살의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용문사의 변함없는 상징물이다.

천년고찰과 천년 은행나무

정상 해발고도 1157m의 용문산이 품고 있는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에 대경(大境)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이 천년고찰은 1100살 은행나무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는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담아 심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키가 40m로 우리나가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큰 키다.

큰 산과 큰 나무를 배경으로 한 도량은 깊은 역사와 함께 많은 고승들의 흔적이 있기 마련. 용문사도 예외는 아니다. 신라의 대경대사 창건 이후 고려 우왕 4년(1378)에 정지국사 지천이 대장전을 짓고 개성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이전하여 보관했다. 이 대장경은 원래 강화도 용장사에 있던 것으로 왜구의 노략질에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개성 경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용문사로 모셔 온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에는 용문사가 상당이 중요한 절이고 안전한 곳이었음을 알게 한다. 지금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조선조에서도 용문사는 세조와 그의 비 정희왕후의 후원에 의해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했었다. 세조 4년에 지어진 〈용문사기〉에는 용문사를 ‘동국제일의 사찰’로 묘사되고 있을 정도다.

산나물로 소통하는 인정

용문사가 있는 계곡은 1972년 일찌감치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근래 새롭게 정비된 주차장을 지나면 2008년 양평문화원 용문분원과 향사연회 등이 설립한 한시 비석이 빼곡하게 서 있어 산과 절 그리고 계곡의 역사와 운치를 전해준다. 시비들을 주마간산으로 보면 돌덩이에 불과하겠지만, 차분히 읽어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옛 선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산소향연천용문(山蔬香軟擅龍門)
원향심지후의존(遠餉深知厚意存)
방장고량하족선(方丈膏粱何足羨)
일단과패부영훤(一簞瓜瓠負榮暄)

유명한 용문산 나물 향기롭고 연하여
멀리 보내주시니 후한 뜻을 깊이 알겠네.
주지스님이 보낸 음식
부러울 것 없이 족하며
한 바구니 싸온 음식 다 먹고 나니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으로 〈동몽선습〉을 지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시다. 제목은 ‘용문승유선향연소사기(龍門僧惟善餉軟蔬謝寄)’로 ‘용문산 승려 유선이 연한 나물을 보내주어 감사하며 시를 보내다’는 뜻이다. 용문사의 스님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웠으면 봄날 연한 산나물 한 바구니를 보냈을까? 그 푸릇푸릇한 인정도 인정이지만, 한 바구니의 나물을 받아먹고 그 고마움을 시로 남긴 시인의 마음도 봄나물처럼 싱그럽다.

그렇게 인정과 인정이 서로 통하여 ‘한 바구니 싸온 음식 다 먹고 나니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라는 자족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다. 조선의 하늘 아래서는 스님과 선비들이 스스럼없이 정을 나누고 풍경과 문학을 즐긴 경우가 많다. 시대 이념과 상관없이 삶의 내용을 채워나간 지성인들의 몸짓이 아름답다.

세간과 출세간의 거리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도 스님들과 널리 사귄 대표적인 선비인데 용문사 스님과도 각별했던 모양이다.

회수용문삽벽천(回首龍門揷碧天)
초제일로세어현(招提一路細於絃)
휴공우입연라거(携笻又入烟蘿去)
사월산심속두견(四月山深屬杜鵑)

머리를 돌리니 용문산이 하늘에 꽂힌 듯
거문고 줄처럼 좁은 절집으로 가는 길
지팡이 끌고 무성한 숲으로 들어가니
초여름 깊은 산 두견새 소리만 이어지네.

이 시의 제목은 ‘용문사로 돌아가는 은상인을 전송하다(送閻上人還龍門寺)’인데 서거정 시의 특유한 섬세함과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상징체계가 돋보인다. 산으로 들어가는 스님을 배웅하고 보니 절을 품은 산은 아득히 높고 절로 향하는 길은 좁아 거문고 줄 같다. 지금 시인은 산이 하늘처럼 높다는 표현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극대화시키고, 절로 가는 길이 거문고 줄 같이 좁다고 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극적인 대비와 상징은 서거정의 학식과 감수성이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시의 전구와 결구는 앞의 상황을 더없이 장엄하게 완성시켜 간다. 즉 헤어진 스님이 지팡이를 끌고 무성한 숲으로 사라져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그림 같은 상황에 두견새 소리를 개입시켜 몽롱하던 정신에 번쩍 번개를 일게 한다. ‘무성한 숲’과 ‘두견새 소리’가 주는 대비의 힘이 아주 강하여 이별의 아쉬움이 해탈의 순간으로 돌변하는 듯하지 않은가?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도 용문산을 들러 오래된 절(용문사)의 풍경을 감상하고 애잔한 마음을 읊었다. ‘돌아가는 길에 용문산에 들어가다(還途入龍門山)’라는 작품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사고승희소(寺古僧稀小)
대경수노창(臺傾樹老蒼)
수성훤하간(水聲喧下磵)
인어정회랑(人語靜廻廊)
북망군산격(北望群山隔)
서귀일영량(西歸一影凉)
비가위하사(悲歌爲何事)
처단불성장(悽斷不成章)

절은 오래 되었으나 스님은 적으며
축대는 기울고 나무는 늙어 푸르렀네.
요란한 물소리 산골짝에 흐르고
고요한 말소리는 회랑에서 들려오네.
북쪽을 바라보니 산들로 막히었고
서쪽으로 돌아드니 그림자 서늘하네.
구슬픈 저 노래는 무슨 사연일까
처량한 생각에 시 한수도 못하겠네.





소승이 다라니를 매일 330독 기도 중 6월 15일 3시경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사문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불자들이 더욱 빛나게 하라”**는 계시와 붉은 글씨로 쓴 신묘장구대다라니(우측에서 좌측으로 쓰인 다라니)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후 다시 정성으로 다라니를 사경하여 고급액자로 표구한 후 법당에 모시고 기도하니 6월 27일 관세음보살님께서 다시 화현하시여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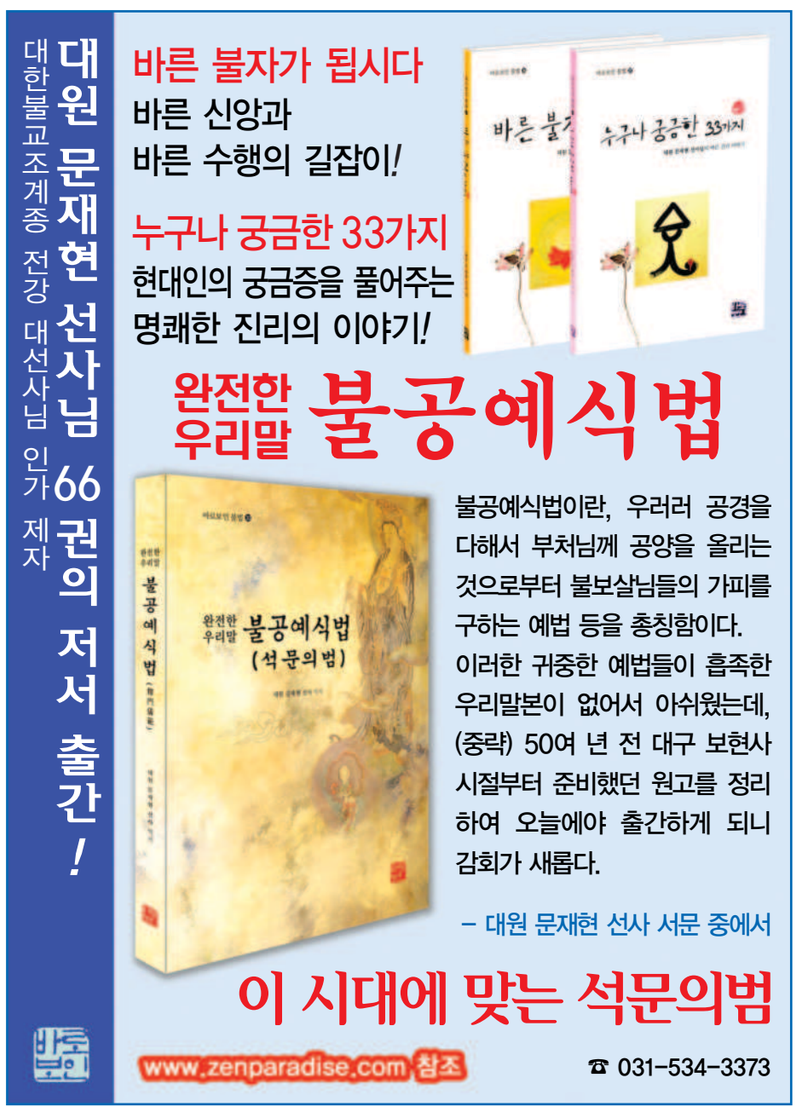
소승이 이뜻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 정진하였지만 사경한 다라니의 모습에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근래들어 그 답을 다시 찾으려다 문득 대 의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대 신심으로 매일 500독 1,0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불자님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시고 기도 동참하시여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동참 불자님은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셔드리고 전 가족의 소원성취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여 기도 발원 올려드립니다.

기도 입재일은 8월 17일이며
기도비는 1년에 한가족 30만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4번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 3번출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도량 수정사 혜명 합장
전화 053)621-6367 / 010-4028-3622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9 ~ 7/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성철 스님의 화두공부 하는 법	성철	해인사출판부
3	깨달음	법륜	정토
4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5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명상선물	현빈	이층버스
8	법구경(영문, 한문, 빠알리어 수록)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10	임종,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인광,홍일	운주사



중국불교의 '생성'을 본다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

런민대학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 도요대학동아학연구소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편
민족사 펴냄 | 2만3천원



책은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의 사상적 전개 양상을 다룬 것으로, 중국 런민대학과 일본 도요 대학 그리고 한국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2012년부터 '불교의 중국화'를 주제로 10년간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3국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는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서역 여러 나라와 해로를 거쳐 동아시아로 수용되기까지 역사, 문화, 사상, 사회 등 여러 방면의 상호적 영향과 교류의 결과에 관하여 3국의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성과물은 지난해의 성과물인 〈동아시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에 이은 것으로 2013년 6월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이라는 주제로 중국 런민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한말로부터 위진을 지나 남북조 시대까지 중국사회는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수용된 이국의 종교인 불교는 중국 사회의 여러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책에는 그러한 남북조시대의 불교사상에 관한 소중한 여러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가 거의 없었던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나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와 같은 이 시기의 중요 문헌을 분석하여 사상적 특징을 찾아내고, 남북조 시기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신앙과 사상을 살피고 있다.

이틀간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교수의 기조강연 '남북조 시대 불교 연구의 전망과 과제'를 포함하여, 김천학(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법상法上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가분(加分)석(釋)의 삼종진(三種盡)에 대해서' 등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책은 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을 포함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다시 배열했다.

제1장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를 바라보는 눈'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남북조 시대 불교연구에 대한 최근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연구자들의 시야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학적 연구에 있어서 삼국 간의 연구협력 강화, 사회사상적 접근의 필요성, 인도와 서역 그리고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리적 시야의 확장, 문화사 연구와 사상사 연구의 융합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제2장 '남북조 시대 불교사상의 저변(低邊)'에는 남북조 시대 불교사상의 경향을 결정하는 저변의 흐름을 보여주는 논고들을 모았다. 쉬엔팡(宣方)의 '거울 속의 꽃–구나발마전 재검토'는 〈고승전〉 〈구나발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차 성과물
남북조 불교의 전개 양상에 관한
3국의 발표 논문 10편 엮어
〈십지론의소〉, 〈대반열반…〉도 분석
남북조…불교, 사회전반에 영향
'중국적 불교' 성립되는 '연구기'

장쉬에송(張雪松)의 ''군주가 곧 현재의 여래'의 숨은 뜻 해명'은 중국불교 나아가 동아시아불교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국가불교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구라모토 히사노리의 '용문 북조수당 조상명문에 보이는 정토신앙의 변용'은 용문석굴의 북조수당 시기의 정토신앙 관련 조상명문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북조로부터 당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생천신앙 및 정토왕생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제3장 '남북조 시대의 교학 연구, 중국적 불교해석의 원형'에는 남북조 시대 교학 연구의 전형을 보여주는 논고들을 모았다.

제4장 '불성과 종성(種性), 중국적 사유의 형성'에는 남북조 시대에 불성과 종성 개념을 중국불교인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여 이해하였는가를 주제로 한 논고들을 모았다.

하유진의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 본 열반사(涅槃師)의 불성의(佛性義)'는 〈대반열반경집해〉를 통해서 남조 열반사들의 불성 및 열반사상에 대한 이해의 변화양상을 검토한 것이다.

김성철의 '종성무위론의 기원에 관한 한 고찰–〈보성론〉과 〈불성론〉의 'gotra'의 번역 용례를 중심으로–'는 현존 산스크리트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종성무위론이 동아시아 여래장 사상 전통에서 등장하는 배경을 탐색한 것이다. 이 논고를 통해서 인도불교와 중국불교 사이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다.

오카모토 잇페이의 '정영사 혜원의 삼불성과 이종성'은 혜원의 삼불성설 창안에 대하여 그 필연성을 인도의 여래장 사상 형성단계로 소급하여 그 필연성을 〈보성론〉에서 탐색한 것이다.

오쿠노 미츠요시의 '길장(吉藏) 교학과 진제(眞諦) 삼장'은 남북조 시대에 인도 혹은 서역으로부터 번경삼장이 도래하였을 때, 새롭게 이식되는 사상조류를 중국의 불교인들이 어떻게 수용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논고이다.

남북조 시대에 선행하는 위진 시대의 불교는 '수용(受容)'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가 사회 각층에 흡수되면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가 사회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역으로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은 인도불교와는 다른 중국불교를 낳은 분기점으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곧 중국불교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 남북조의 불교인 것이다. 인도불교의 중국 이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이면서, 그 이식의 결과 중국인들의 인도불교에 대한 이해가 구조화되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그 구조화를 바탕으로 '중국적 불교'를 성립시키게 되는 대부분의 독자적인 사유가 형성되고 성숙되어 가던 시대의 불교사상, 그것이 '연구기'라고 일컬어지는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문에서 시작한 〈금강경〉 읽기

산스끄리뜨문 금강경 강의

성열 지음 | 문화문고 펴냄 | 2만5천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금강경〉 읽기는 한역(漢譯)으로 된 경전 읽기가 주를 이루었다. 책은 한역이 아닌 산스끄리뜨 원문에서 시작하는 〈금강경〉 읽기다.

〈금강경〉이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중국선종의 다섯 번째 조사인 홍인 스님이 기주 황매현 동산에서 〈금강경〉을 가르치면서부터였다.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동산정문(東山淨門) 또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이라 불렀고, 중국 유일의 여황제였던 측천무후까지도 도를 닦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산법문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동산법문의 사람들이라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홍인의 문하에 혜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혜성 같이 나타나 여섯 번째 조사로 인정을 받고, 그의 문하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자 〈금강경〉은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의 원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금강경〉은 누구나 읽고 깨달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인들은 불교경전이라는 한계로 인해 〈금강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금강경〉을 깊이 이해하여야 할 불자들마저 내용에 대한 실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금강경〉이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면서도 정작 내용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전이 되어버렸다는 게 저자의 변이며, 이번 출간의 취지이다.

책은 저자 자신이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비롯됐다. 산스끄리뜨 〈금강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들이 나왔지만 단어의 해석이나 문법적 해설이 없기 때문에 의문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성열 스님은 〈금강경〉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산스끄리뜨 원뜻에 매달렸다.

책은 산스끄리뜨의 기초적인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그 동안 한문으로 읽어오던 〈금강경〉을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자는 취지의 책이므로 원전의 언어인 산스끄리뜨를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책은 산스끄리뜨 문법용어의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스끄리뜨 원문과 달마급다, 진제, 현장, 의정, 뮬러, 구마라집, 보리유지의 번역을 비교하여 각 번역자의 생각의도를 짚어준다. 또한 〈금강경〉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강경〉 이름의 유래, 역대 한역본, 성립 배경, 논증 방식 등을 통해 〈금강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정보를 총망라 했다.

박재완 기자

'명상', 꾸준한 실천이 중요해

명상선물

원빈 지음 | 이층버스 펴냄 | 1만6천8백원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은 명상에 대한 안내서이다.

세계적으로 힐링과 명상이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명상은 세계를 움직이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발휘하는 창의력과 통찰력의 근간으로 알려지면서 탁월한 자기계발법으로 자리 잡았다.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번뜩이는 직관의 힘을 키우고, 마음을 다스려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무엇보다 이 모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책은 명상 입문자를 위해 전국민 행복프로젝트 '매일 15분 명상' 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명상방법을 전달하고, 매일 오후 10시 회원들과 함께 명상을 진행하고 있는 원빈 스님이 그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중들과 명상에 관해 나눈 내용들을 정리한 명상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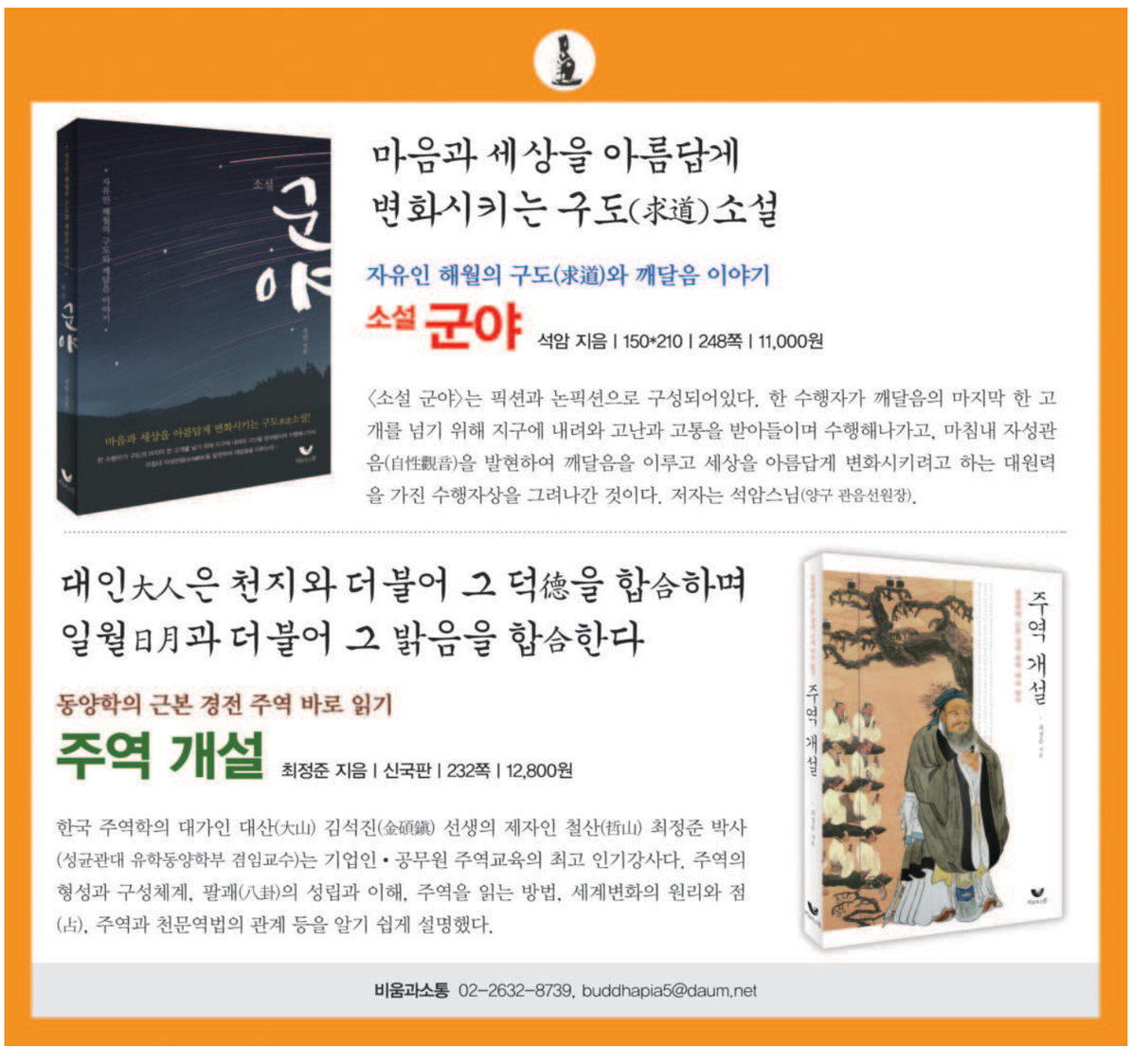
책 〈명상선물〉에서는 계, 정, 혜 삼학의 완성을 목표로, 명상내용을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표현된 친절한 안내 가이드 염라대왕과 함께 명상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다. 〈명상선물〉은 매일 15분 명상, 100일 완성 프로젝트다. 명상 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방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귀여운 염라대왕이 안내를 한다. 10명의 명부시왕과 지옥의 소개는 선업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 내가 만든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 이미 가득한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100일간 마음방을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명상록'이 탄생하게 된다.

명상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어 자제력과 창의력, 자기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상의 성과를 얻으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책은 말한다. 〈명상선물〉은 100일 수행계획과 명상을 수행하는 도반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명상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에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도와준다.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명상수행의 시작인 발원문 작성방법부터 제공되며, 발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발원문 양식, 실재적 수행인 명상방법, 명상을 시작하는 준비명상, 명상을 끝내는 마무리명상,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명상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100일 동안 명상수행을 할 수 있도록 10일 단위로 10명의 시왕과 시왕이 관장하는 지옥에 대한 소개를 하며, 하루하루 명상을 한 후 명상소감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음방과 10일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카툰으로 된 염라가 선행미션을 안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국민 행복프로젝트 '매일 15분 명상'에 대한 소개와 시왕과 십재일, 팔관재계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책은 매일 15분간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명상내용과 오디오 링크(다운로드)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몽중일여’ 돼야 선방 밥 먹을 자격 있어”

화두공부하는법

해인사출판부 펴냄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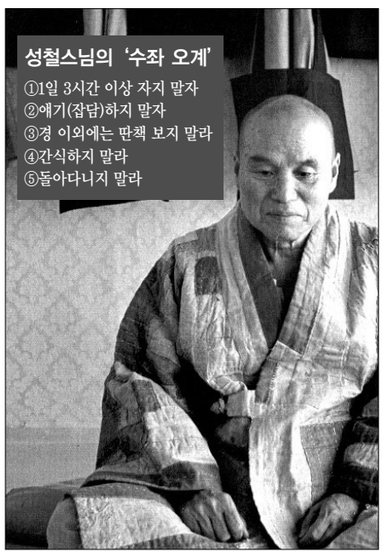
참선 수행 열풍은 불고 있지만 막상 앉아서 하려면 초심자들은 막막해진다. 화두를 들라고는 배웠지만, 어떤 방법으로 들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좀 수월해 질 것 같다. 성철 스님이 알려주신 팁(tip)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성철 스님은 “ ‘조주인심도무(趙州因甚道無)’ 조주는 어째서 무라했나? 조주가 어째서 하는 식으로 화두에 ‘어째서’ 를 넣으라고 했어.”라고 조언한다. 즉 ‘무(無)’ ‘마삼근(麻三斤)’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를 외우지 말고 ‘어째서’ 라는 의문을 가지라는 당부다. 예를 들어 ‘정전백수자’ 화두를 든 사람은 ‘어째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라고 ‘어째서’ 를 붙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화두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법은 불교 선승들 사이에서만 알음알이로 전해지는 ‘비밀노트’ 에 적혀있다. 간화선 수행을 하다 막힐때, 어른 스님들께 자꾸 여쭤보기 곤란할 때마다 들춰보는 공책이다. 이 노트는 바로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이신 성철 스님(1912~1993)이 선방 수좌스님들을 대상으로 화두 드는 법을 지도한 내용을 녹취 필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웠던 ‘비밀노트’ 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책들이 공개됐다. 해인사출판부가 최근 펴낸 〈성철스님의 화두공부하는법〉에 담겨졌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철 스님의 ‘화두하는 법’ 에 대한 소참법문을 기록 정리했다. 이전부터 이를 교재로 발간해 백련암 문중인 정안정사와 묘심선원에서 실참했고, 2006년 거창 심우사 일형 스님께서 2차로 정리했다. 이후 2013년 해인사 기획국장 원창 스님의 3차 정리를 거쳐 올해 〈월간해인〉 편집장 종현 스님이 해인사 출판부 활성화를 기치로 펴냈다. 성철 스님의 화두참구와 관련된 이전 출간물들과는 달리 이 책에는 성철 스님께서 화두참구에 ‘어째서?’ 를 강조하셨던 이유와 그 실참법을 어투 그대로 구어체로 담았다. 그리고 부록으로 화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대표적인 아홉 가지 화두를 추려 정리해 넣어 성철 스님께서 직접 지도해주시는 것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책은 굵은 활자로 총 167쪽 밖에 안돼 읽는데 채 1시간도 안걸린다. 하지만 깨달음의 문고리를 잡는 올바른 방법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간화선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에서 성철 스님은 ‘화두’ 는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 마음대로 뭘 갖다 화두로 삼아하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래 혼자하다보면 몸에 고장이 나서 병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화두 앞에 항상 ‘어째서’ 넣어라
구어체로 정리해 현장감 생생
화두는 선지식 지도 꼭 받아야

실제로 스님은 이 책에서 잘못된 공부법으로 인한 사례도 소개한다. 성철 스님이 김용사에 있을 때 찾아온 한 처사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도리사서 6년을 공부한 이 처사는 자기가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만심에 빠져 있었다. 스님들도 상대하지 않고 누구말도 안들었다.

성철 스님은 단박에 병에 걸린걸 알아차리고 물었다. “거참 공부 많이 했구먼, 그런데 그 경계가 꿈에서도 있나, 없나?”

그러자 그 처사는 ‘없다’ 고 답했다. 곧이어 성철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꿈에도 없는 그게 무슨 공부야, 공부가 됐다면 꿈속에서나 깊은 잠속에서나 한결 같아야지”라고. 성철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최고 단계인 ‘몽중일여’ 나 ‘숙면일여’ 의 경지를 시험에 보신 것이다. ‘몽중일여’ 도 안되면서 깨쳤다고 아만심에 빠지면 그건 바로 병이라는게 성철 스님이 내리치는 죽비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몽중일여’ 의 경지에는 올라야 선방의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 이 책에는 화두의 바른 참구법 외에 호흡과 화두, 조주 스님의 ‘무’ 자 화두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성철 스님의 해설도 실어 놓았다. 또한 ‘소참법문’ 편에서는 수좌들이 지켜야 할 오계가 소개했다. 작은 단행본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만큼은 묵직한 경전 못지 않게 속이 알차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욱’ 하는 그 순간만 넘기면 인생 술술 풀려

화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 강성욱 번역
경성라인 펴냄 | 1만3천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우리 주위에도 욕을 하거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요즈음은 화를 내는 건 당당한 태도라는 풍조도 있다. 하지만 ‘화’ 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화’ 라는 말을 쉽사리 입에 담을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화’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화’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화만 내는 인생은 어둡고 괴로울 따름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인생이 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원한, 경시, 경쟁, 질투, 인색함, 반항적, 후회, 격노 등 일상생활 모두 화에 찌들어 있는 것이다.

‘화를 내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말로 화를 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제하며 주의 깊게 생활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으며, 일단 화를 내버린 후에는 부끄러워서 잠자코 있기 마련이다.

화를 능숙하게 자제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으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는 화를 내고 싶어 한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다음, ‘화란 무엇인가?’ ,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한 사람이다. 용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어적 폭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들은 ‘화를 내는 것은 꼴불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화를 낸 순간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만약 화를 냈다면 바로 ‘아, 나는 약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화’ 는 인간의 불행 그 자체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비록 1분 1초라도 고통스럽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분해하거나 ‘아, 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이다. 따라서 마음은 항상 기쁨을 느끼면서 언제나 밝고 즐겁게 생활해야 한다.

‘화’ 는 인간의 불행 그 자체
화내는 원인 분석 선행 필요
마음 속의 독 빼내면 효과적

짧은 인생, 괴로워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화’ 만은 절대로 마음속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화를 치유하는 훈련을 쌓음으로써 지혜도 성장하고 사물을 보는 시야도 점점 분명해진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을 실천하는 것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한층 행복해지기 위한 길인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화는 자신의 속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해결 방법은 ‘독 그 자체’ 를 빼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화가 생기면 ‘아, 화다. 화다. 이것은 화의 감정이다.’ 라고 곧 자신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면 화는 생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다음 순간을 느끼려고 할 것이다. 화가 사라지면 곧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질 것이며 바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면 자신에게도 자신이 생기고 ‘아, 화가 사라졌다. 나도 자기 컨트롤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을 칭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화의 감정에 고통받는 일 없이 온화하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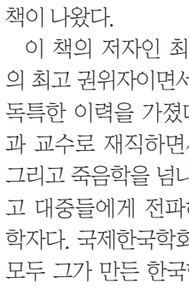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것으로 화는 바로 사라지고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김주일 기자

삶과 죽음은 결코 둘이 아니다… 죽음은 또다른 시작 인식 중요

너무 늦기전에 들어야할 죽음학 강의

최준식 지음 | 김호연 그림 | 김영사 펴냄 | 1만2천원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잘 맞이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섭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생각할 때 완성됩니다. 삶 하나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내용이나 질이 제대로 받쳐줄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작년에 출간되자마자 세계 출판가에 이례적인 기록을 남긴 책이 있다. 바로,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사후세계 체험기’ 를 담은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이다. 출간 이후 곧바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종합 1위 등에 랭크됐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사후세계의 존재를 생생히 각인시켜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국내 학자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의 저자인 최준식 교수는 한국학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죽음학의 대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학과 종교학 그리고 죽음학을 넘나드는 연구는 물론이고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인 학자다.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표현단이 모두 그가 만든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한국문화를 다각도로 공부하고 우리 예술문화를 공연형태로 소개하는 운동을 20년 넘게 해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내 처음으로 한국죽음학회를 발족시키고 인간의식연구센터를 세워 인간의 죽음과 무의식, 초의식, 전생, 최면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이번 책은 그가 ‘죽음’ 과 ‘의식’ 에 대해 공부해오고 연구 발표한 것을 총망라해 일반 독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내놓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삶은 죽음을 통해 나온다. 죽음을 배우라, 그래야만 삶이 완성된다고 강조한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저자는 말한다. 죽음 공부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한다.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늙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는 것이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노년을 맞이하면 인지상정상 죽음을 더 피하고 싶어지는 법이란다. 죽음이 실감날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성찰은 불구하고 두렵고 무섭기만 할 뿐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미리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한다. “죽음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 삶이 깊어집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나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죽음을 자신의 입장서 적극적으로 맞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피하고 피하다가 죽음에 휩쓸려가듯 어쩌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다. 조금 의식이 있을 때에는 무익한 연명 치료에 매달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된다.

‘죽음과 의식’ 총망라한 지침서
죽음 준비 일찍부터 시작해야

이 책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죽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환자실에서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환자실서 건강을 되찾고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곳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임종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치료는 다 거부하고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면서 죽음을 즐겁게 맞이해보십시오. 가능한 한 의식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임종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을 벗기 직전까지 의식을 갖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삶 속에 들어 있는 죽음은 물론 죽음 속에 들어 있는 삶도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당부한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생각할 때 완성되며, 삶은 죽음을 알게 될 때 깊어진다. 그리고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는게 저자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다.

김주일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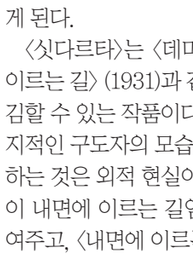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江' 에는 현재만 있을 뿐, 미래의 그림자는 없다

불교로 읽는 古典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유한근
문학평론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독일의 시인, 소설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가 자신의 명성을 우리에게 각인 시킨 작품은 〈데미안〉(1919)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을 세계 문학의 반열에 올린 소설은 194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유리알 유희〉(1943)다.

'인간의 길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 헤세는 신낭만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체험이 계기가 되어 그의 문학은 내면으로 향하여 심화되어 갔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평화라는 문학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독과 자유와 방랑을 사랑하는 소박한 낭만으로 넘치고 있으며, 주옥 같은 문장으로 아름답게 평가받고 있던 헤세는 〈싯다르타〉(1922)를 쓰게 된다.

〈싯다르타〉는 〈데미안〉(1919), 〈내면에 이르는 길〉 (1931)과 같은 맥락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작품이다. 〈데미안〉에서는 주지적인 구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가 구하는 것은 외적 현실이 아니라, 제2의 현실이 내면에 이르는 길임을 〈싯다르타〉에 보여주고, 〈내면에 이르는 길〉에서 유럽 문화의 몰락 의식과 동양인 신비에의 동경이 정점에 이르게 된다. 〈싯다르타〉는 실존 인물인 '싯다르타' 의 깨달음 과정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때문에 이 소설에 대한 담론 중 하나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쓴 전기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으나, 〈싯다르타〉는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로서 한 인간의 깨달음, 그 여정에서의 디테일한 심리묘사나 정신적 고뇌, 그리고 불교적 인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 초기불교 이해 산물

〈싯다르타〉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브라만의 아들' '사문들 곁에서' '고타마' '각성' 등 4장으로 되어 있고, 2부는 '카말라' '소인들 곁에서' '윤회' '강가에서' 와 '뱃사공' '아들' '옴' '고빈다' 등 전4장, 후4장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을 혹자는 4성제 8정도를 연상케 하는 구성법이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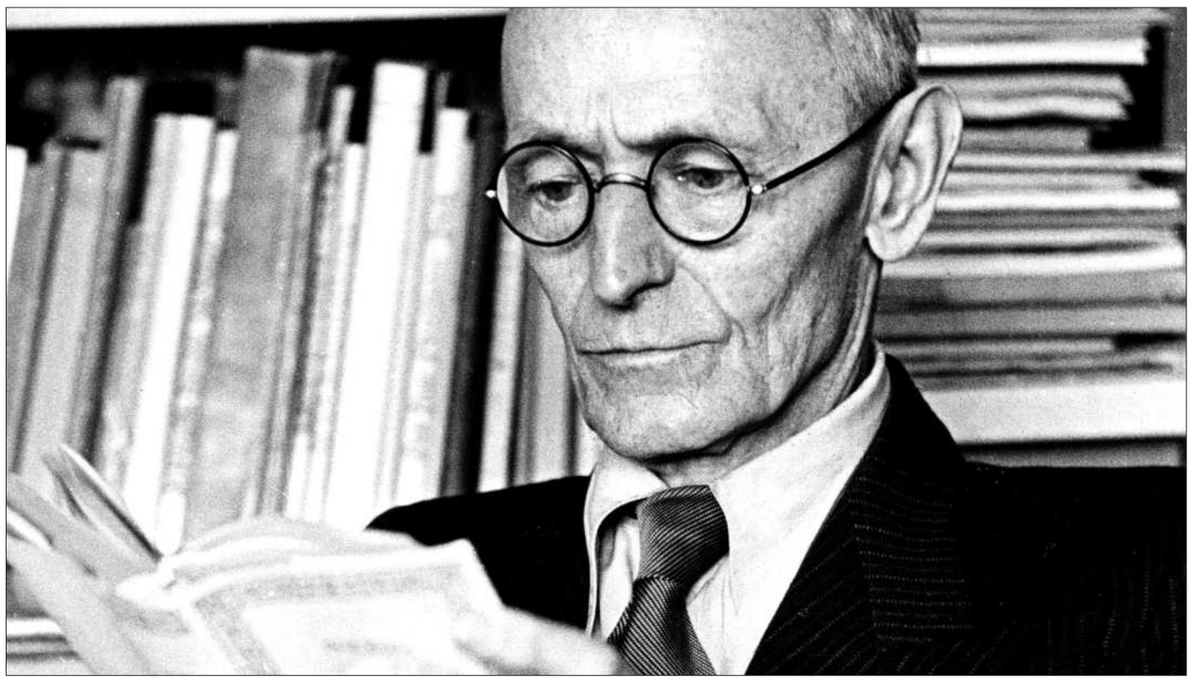
〈싯다르타〉에 대한 많은 연구가들이 이 작품의 사상적 종교적 경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은 '싯다르타' 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적 여정, 그리고 헤세가 섭렵한 사상들, 기독교 신비주의와 동양의 힌두교, 도교, 불교 등의 사상이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우리는 헤세가 어떻게 싯다르타를 이해하고 있고 불교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1부 '바라문의 아들' 에서 제일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싯다르타' 가 베다성전에서 '옴' 을 인식한다는 부분이다. '옴' 은 완성을 뜻하는 말로 기도와 주문에서 처음과 끝에 사용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싯다르타는 자신의 본성 속에 아트만 혹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빈다' 를 도반으로 삼는다. 이 부분에서 특히 관심 가는 부분은 싯다르타가 비난나무 밑에 앉아 "옴은 활, 영혼의 화살/범(梵)은 화살이 과녁/바로 쏘아라, 그 과녁을" 이라는 시를 응얼거리며 읊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초기불교 탄트라의 사라하(라휼)를 연상하게 된다. '사라' 는 '활' 이라는 뜻이고, '하' 는 적중한다는 뜻으로 "화살을 과녁에 적중하라" 는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라는 과녁에 적중시키려는 열망이 활로 표상된 노래로 보인다.

제1부 마지막 장 '각성' 에서는 "인연을 아는 것은 사유요, 그를 통해서만, 감각은 인식이 되어 소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되어, 그 속에 있는 것이 빛날 수 있음을 깨닫는 장이다. 그리고 자아를 각성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노랑 빛과 푸른 빛 산과 강이 오감을 통해 들어와 신비로운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제2부의 첫 장은 '카말라' 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믿고 길을 떠나기로 다시 결심한 싯다르타는 뱃사공 '바스데바' 와 만나게 된다. 바스데바는 싯다르타에게 뱃 삯도 받지 않고 "강물 소리를 들으며 강 눈동자를 들여다 보시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배워지는 것이 있소" 라고 말하면서 화두를 던진다. (그는 후에 싯다르타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싯다르타는 강 건너 빨래하는 여자로부터 처음으로 성적 유혹을 받는다. 그녀는 '나무 오르기' 라는 일종의 성행위의 교태로 그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는 그 치명적 유혹을 물리치고 참대밭을 지나 시내로 들어온다. 그곳에서 그는 카말라를 통해 카마스와미를 만나게 된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공통분모인 카마(Kama)이다. 이는 고대 인도의 성애에 관한 경전인 카마수트라를 의미하며, 사랑이 여신인 카마를 암시한다. 이들은 이름이 암시하는 대로 싯다르타에게 세속적 사랑과 욕망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설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 서양 기독교 신비주의부터 동양의 불교, 힌두교, 도교 등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섭렵한 그는 〈싯다르타〉를 비롯해 〈데미안〉, 〈내면에 이르는 길〉 등의 구도적 소설을 창작했다.

단순한 '부처님 일대기' 아닌
내면적 깨달음 이르는 길 그려내
헤세가 가진 '사상의 여적' 주목

강의 흐름으로 내면 의식 심화 표현
싯다르타 여정서 깨달음의 본령 찾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소인들 곁에서' 이다. 카말라는 싯다르타에서 사랑의 유희를 알게 해주고 후에는 아들을 낳아 준다. 그리고 그에게 세속의 갈등을 통해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여인이 된다.

제2부 세 번째 장인 '윤회' 이다. 이 장에서 싯타르타는 카말라와의 육체적 사랑이 끝없는 윤회임을 알게 되고, 육욕의 세계, 그 끝이 죽음임을 카말라의 얼굴에서 인식하게 된다. 세속적 삶이 권태롭고 카말라와의 이별을 생각할 때, 그는 꿈을 꾸게 된다. 카말라의 새장 안에서의 죽은 새 꿈이 그것이다. 그는 망고나무와 정원과 이별하고 길을 떠난다. 그리고 숲속을 한참을 방황하다가 강 쪽으로 간다.

모든 것은 강처럼 무상하라

'강가에서' 싯다르타는 강물을 바라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는 "부패되어 더러운 몸을, 쇠약하고 타락한 영혼" 을 강물에 던져버리려고 한다. 그 때, 한 마디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신성한 말, 완전한 것 혹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옴" 이라는 소리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야자수 밑에서 피로에 못 이기고 쓰러져 깊은 잠에 든다. 잠에서 깬 그는 도반인 고빈다를 만나게 되고, 고빈다를 통해 싯다르타는 '옴' 으로 마음이 충만한 자가 만물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다음의 장은 '뱃사공' 이다. 싯다르타는 "조용하게 흘러가는 물 속을, 투명한 물속을, 신비스러운 모양의 수정과 같은 물결" 을 들여다 본다. 거기에는 그가 강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물은 흐르고 흘러 영원히 흐르고 있으나,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그곳에 있어 어느 때나 같은 물이나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무상(無常)' 함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뱃사공 바스데바를 찾아간다. 그의 집에 초대되어 그로부터 노 젓기와 배 수선하는 법, 바구니 엮는 법, 밭 일 등도 배운다. 그러나 그는 강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어느 날, 싯다르타는 바스데바에게 당신은 강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밀을 배운 것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바스데바는 이렇게 대답한다. "강은 항상 동시에 있다. 근원에서나, 강어귀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에서나, 여울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동시에 있다. 강에는 현재가 있을 뿐이고,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다" 고. 이에 싯다르타는 모든 것은 그 본질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번뇌는 시간에 근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의 말에 동조한다. 싯다르타는 바스데바와 같이 머물며 뱃사공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불타의 제자들도 나루터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급기야는 카말라와 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카말라는 독사에 물려 싯다르타의 품에서 죽게 된다.

'아들' 장에서 싯다르타는 자신의 아들이 척박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끝내는 가출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로인해 자신의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이라는 인연에 묶여 사는 세속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옴' 장에서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강의 소리에서 '생명의 소리' 를 듣고, 강에서 아버지, 자신, 아들 3대의 모습을 보고 인연과 윤회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인간은 각 개인의 번뇌 속에서 혹은 그들의 각각의 행위 속에서 생명을, 생명 있는 물건을, 불멸하는 것을, 범(梵)을 보게 됨을 알게 되고 그바스데바를 통해서 강의 소리, 물의 소리를 그 본질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동경의 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의 소리, 선악의 소리, 웃으며 탄식하는 소리 등 수천의 소리" 이다.

그는 다만 듣기만 한다. 듣는 것에 도취되어 속을 텅 비게 하고 무엇을 모두 삼키려는 듯이 듣고 있다가 듣는 것을 끝까지 배웠다는 느낌을 가지게도 된다. 그리고 끝내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분별심을 놓아 버린 것이다. 소리의 경계를 무너뜨려버린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의 종합이었으며 그래서 "생성의 강이요, 생의 음악" 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

또한 그것은 수 천가지의 노래, 음악이었다. 그리고 유일한 말 '옴' 의 완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싯다르타의 얼굴에는 미소가 밝게 빛났고 상처에는 꽃이 피고, 그의 오뇌에서는 빛이 비치고, 그의 자아는 단일로 흘러 들었다. 이 때에 비로소 싯다르타는 운명과 싸우기를 그치고, 고뇌하기를 그치게 된다. 그러자 뱃사공 바스데바는 자신의 일이 끝났음을 말하고 떠난다. 그의 모습은 후광으로 빛난다.

헤세와 '나룻배와 행인'

마지막 장은 '고빈다 '이다. 싯다르타는 나루터에서 고빈다를 만난다. 둘이 지나온 일을 회상한다. 싯다르타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었음을 말한다. 특히 뱃사공 바스데바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으면 토로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어제든지 한번은 범(梵)이 될 것이고 극락세계에 들어갈 것이고, 부처가 될 것"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미 미래의 부처는 있는 것이오. 미래는 이미 모두 그 곳에 있는 것이오(…)가능한, 숨은 부처를 존경하여야 할 것이오 친구, 고반다". 이 두 노인들은 서로 존경을 표시하며 삶의 미망과 지혜를 나눈다.

고빈다가 싯다르타의 말대로 몸을 굽혀 싯다르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싯다르타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대신 다른 얼굴이 있었다. 많은 얼굴의 긴 행렬, 강물같이 흐르는 얼굴의 강, 수 백 수천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있는가 하며 없어지고, 또한 그 곳에 함께 있는 것도 같았다. 싯다르타는 조용히 웃는다. "자비스럽게, 조롱에 가득 찬 얼굴로, 마치 지존자가 웃는 것과 같이 웃는다. 고빈다는 허리를 푹 숙여 절하였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매우 깊은 사랑스런 감각, 그리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겸허한 존경의 빛이 불과 같이 빛났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싯다르타의 앞에 고빈다는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절하였다." 로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는 끝나게 된다.

조야한 줄거리를 통해서 본 〈싯다르타〉에서 헤세는 동양의 신비를, 불교의 사상을 '공간' 인식을 통해 찾는다. 그 공간 의식은 강에 대한 깨달음이다. 결국 헤세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깊어짐을 '신전' 과 '강' 을 통해 그려 나간다. '물' 혹은 '강' 이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그것이 곧 우주적 직관력이 되는 동양인의 의식을 갈파(喝破)하며 불교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찾아나간다. 그 과정을 픽션화한 것이다. 헤세가 그리는 낙원은 언제나 자연의 낙원이며 차안(此岸)의, 지상의 낙원이다. 싯다르타는 사고나 언어를 믿지 않는다. 그가 믿는 것은 강이다. 만해 한용운이 믿었던 '나룻배와 행인' 처럼.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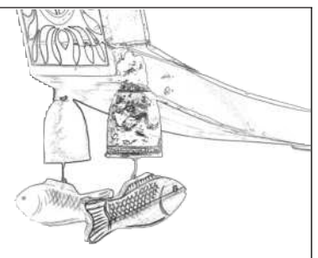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戒)의 연못은 청량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청량하게 해주나니, 만약 지혜 있는 이가 이 연못에 들면 무명의 어둠과 장애가 영원히 멸해 없어지리라.

- 마등가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
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어렵고 힘든 사찰과 스님이 안 계신 절을 도와드립니다

음식 솜씨 좋은
공양주도 함께 갑니다
010-4882-3838

최면 공부합시다

주1회 1시간 30분 (총 10회)
실전(다양한 장애에 즉면,
혹은 스스로 개선하고 싶은 일)에
대처하여 빠른 효과가 있도록 유도!
기법만 반복 공부
45만원, 3명 이상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010-9609-1919
덕인 합장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지장도량)
010-3774-4099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인연 찾습니다

조건 최상으로 학교와
종단 곰, 등록 인수하실 분
미국령 GUAM사이버대학교
미국령 종단
2007년 등록 현재 라이센스
010-8774-2040
인터넷 070-8844-203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사 찰 행 사

조상천도재, 49재, 각종점안식,
바라,나비작법, 살풀이, 지전무,
극락연등무, 축원무 등
영남범음범패[통범소리]로
여법하게 집전해드립니다
010-3189-06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가능)
010-8576-44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가족처럼 지내실 분,
중국교포 환영
011-212-9110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010-7859-9600

부전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010-8955-9485

특수기도법을 스님께 전수

?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달마일장금(경) 강의 (공양/숙식제공)

왕초보에서 고수로 3박 4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강의

•강사 : 유천명리학당 원장직강 011-838-1134
•내용 : 포태법, 십이신살, 십이운성, 불귀법, 혼령잡는법
•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동 540-5번지 3층 유천명리학당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1시) (오후 2시-6시)

신도를 자연스럽게 천도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비방법
법복안 손으로 짚어 1분 안에 당신의 과거10년 미래10년을 꿰뚫는다.
월요일 오후 2시 ~ 6시 수강 후 회비 입금가능 함

사 찰 건 축 전 문

- 상담분야 : 사찰건축 계획, 건축평면구성, 토목, 건축일체
풍부한 고(古)건축이론과 오랜 현장경험, 탁월한 직관력, 안목
* 짜임새 있고 정교한 책임시공으로 보람된 불사(佛事)가 되도록 함
- 시공상담 : 목조건축, 콘크리트건축, 기타 사찰건축일체
● 문의 : 고(古)건축전문 시공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시공 가능함)
031)677-1373. 010-6405-2060
천년 고(古)건축

중 풍 예 방

010-5096-98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전통 선묵화(禪墨畵)연구원

(마음 닦는 그림, 선묵화를 통해서 참나를 찾고자 하시는 분)



(연구회원 모집)
자격요건
1. 서예, 사군자, 문인화 중 1년 이상 공부 하신 분
2. 선(명상) 공부 1년 이상 하신 분으로 그림에 관심 있는 분
3. 초보자는 면담후 결정
지 도 월 2회 내외
1. 1회. 선강의, 명상체험 , 선묵화 지도
2. 1회. 통신 선묵화 지도
지도 법사 범주 스님 지도
(홈페이지: http://www.dalma-art.com)

속리산 선(禪)문화 예술원 054)535-037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백중 천도재
▶ 4재 : 7월 25일(음. 6. 29, 금), 조계종 대종사 현해큰스님
▶ 5재 : 7월 30일(음. 7. 4, 수), 봉선사 조실 월운큰스님
▶ 6재 : 8월 7일(음. 7. 12, 목), 조계종 대종사 암도큰스님
▶ 막재 : 8월 10일(음. 7. 15, 일),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밀허스님
※ 백중 천도재 동참하신 분께는 회주 無一 우학스님의 금강경 CD와 천도 법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 : ☎ 053)474-8228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인연 명리 강좌개설

삶은 인연생, 인연멸이라!
- 십이운성과 십신을 접목
- 토(土)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의
- 모집대상 : 기초반,통변반
- 강의장소 : 삼성역 8번출구(3분)
010-4047-0134
정인스님 직강

전화상담 안내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로 속 시원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대구은행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마음을 치유하는 심 리 상 담 사

자격취득안내 (국가등록자격 08-0538)
미술심리상담사 / 아동심리상담사
온라인동영상 120강좌(교재 9권) 제공
www.koredu.ac
한국심리상담교육원 ☎ 02)766-9400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3천년에 한번 핀다는 신비의 꽃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불사중인 스님,
사업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010-6707-6048
055)351-33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효사비결 2014

(효사활인천역집 제7판 육임 CD프로그램)

"뭐니 뭐니 해도 그거 하나면 끝나 데"
"자기만 아는 비밀한 사정들이 아예 다 써져 있는 거라!"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하면 딱 딱 맞는거야"
"가지가지 귀신, 부정이 다 드러나고,
'방법' 까지 있어서 참 좋더라고"

- 기존 것과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02)738-8680 고복자 효사

육임나라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309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높다는 것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며, 태어난 자 언젠가 는 죽어가고, 모이는 자 마침내는 흩어지 네."

- 찬집백연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 (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 5동 (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 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융자 1억 가능)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수도권 사찰 양도
- 수도권 역세권 목조사찰 90㎡
- 토지750㎡ 요사채 66㎡
- 도심부근산속역사있고 조용한사찰
- 양도금액 : 40억원(융자 있음)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1-297-4281 (창건주)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아파트 상가 대로변 2층 상가
- 규모 : 2층건물 2층 전체 80평, 법당 50평, 공양간, 방3개, 창고2개
- 시설: 삼존불 개금불, 신중단, 영가단
- 냉난방시설 완벽, 집기일체
-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주차공간 충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3574-3885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건천IC 7분소요
- 대지 730평, 법당 1동, 요사채 2동
-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담한 암자로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 2억 8천

010-4184-36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지적 : 14,509㎡
- 종교허가 면적 : 2,770㎡, 전 70평, 요사채 22평, 법당 30평(조립식), 산신각 9평(목조)외 토목공사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484-391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천안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4억5천
- 위치 : 대전시내
- 부지 : 1500평
- 건평 : 500평 신축
- 납골 : 5000기
- 양도가 : 가격협의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7억 5천, 조절가능

010-3604-54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 관계로 10억이상 되는 실 불사금 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부근 병풍산 아래
- 지장기도 도량 총평수 175평
- 법당 약 25평 / 방3개, 주방, 창고1개, 주차장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0-8330-0005
054)776-548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작은절
- 조용하고 깨끗한 사찰
- 지하철 버스가까운곳
- 기도와 공부하기 좋은 곳
- 대지 191㎡ , 건물 76㎡
- 가액 : 2억 5,500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중개보조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덕천동 지하철 1번출구 입구, 구포시장입구 최고요지,
- 3층 건물에 3층 45평
- 삼존불, 시설완벽 A급,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산 5-1 450-62
-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408평
- 정남향 조망수려
- 가액 : 6억5천만원

010-3755-874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108번길(당리동 대광빌딩)
- 6층에 5층(엘리베이터) 법당, 방 2개(45평)
- 약사, 관음, 500호신불
- 모든 준비 일체 되있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75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61-32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기공 교정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임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율하동 898-3
- 임대 40평
- 가액 : 보종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4825-5799

사찰(급)안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 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5천 4백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만오시면 됨,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4680-93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무거동 1196-2 삼호복개천
- 아미타 삼존 후불 탱화
- 대형신형에어컨1대, 붙박이장2 방2, 주방별도, 법당
- 총평수 43평, 3층 무료주차장 수십대 가능
-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비품대 1,300만원 조절가능

010-3589-8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방보살, 삼신당, 호신불 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66만 / 3천 월55만원 /4천 월 44만원 선택
- 시설비: 700만원

010-4590-6777
010-3869-67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목조, 천불전(목조),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가액 : 15억

010-8625-1225

절터로 좋은곳

-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을 낀곳
- 토성작업 한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평수 120평, 인법당 27평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M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5555-8744

사찰(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함
- 법당 33평, 방 6, 공양간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양도는 평당 20만원

010-3827-686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산 143-30 외
- 자연녹지 13,000㎡
- 청도군청 2분거리에 있고 최고의 조망권과 주택1동, 야외 음악당시설이 있습니다
- 가액 : 6억 1천만원

010-5658-667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소재
- 대지 128평, 법당25평, 삼존불, 아미타, 관세음, 지장, 칠성, 산신 6평, 용왕4평, 공양간, 방4개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10-2567-136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시장입구
- 평수 23평, 2층 , 집기설설,
- 스님이 건강이 안좋아서 안내
- 가액 : 전세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4860-9322

바다와 석양이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 약 7천평 / 가액 5억원

010-2671-72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큰도로 삼거리
- 카독 장소 최적 3층 중 2층, 20평
- 법당, 삼존불, 소불 108불
- 주방, 욕실, 창고, 에어컨1, 냉장고 1, 세탁기1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보살님 법사님도 안성맞춤

010-4880-1533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부곡 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IC에서 8분거리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요사채(60평) 화장실2,
- 석탑, 주차장, 창고, 150m암반수 및 상수도, 산밑에 위치 심양보일러, CCTV설치,
- 계곡물흐르는 청정도량, 비품 및 생활용품일체,
- 가액:3억 8천 5백만원(답사후 조정, 평당 70만원 시세)

010-8664-8259

토 굴 안 내

- 위치 : 강릉 경포대 옆 사천해수욕장 뒤(낮은동산) 최고의 위치
-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 야채 밭 포함 약 300평 (1년 도지 20만원) 법당 외
- 방4 화장실2, 목욕탕1,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일체
- 가액 : 3,850만원(건물 법당양도)

010-2461-30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지하철 2분 2층상가
- 60평(법당 30평, 방3, 사무실1, 창고1, 주방, 욕실, 앞뒤 베란다)
- 도시가스 생활편리
- 가액 : 전세 7,00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약간(상담후 조정가능)

010-9342-979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578㎡, 전 274㎡
- 건물 30평(삼존불) 법당, 방3개,
- 화장실 2개,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도 있음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6천만원 (가격 절충)

010-3058-56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81번지
- 뉴서울쇼핑 2층 총 80평
- 가액 : 5,500만원, 월 40만원

010-8552-39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

010-9395-667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감만동
- 평수 : 약 90평, 2층 - 공양간, 3층 - 법당, 4층 - 스님 친견실
- 전체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삼존불을 비롯한 완벽한 법당 시설 주방기구,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575-9876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1-895-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 평수: 58평
- 법당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법회가능 3층 엘리베이트 사용
- 전세 : 2,000만원 월세 80만원 (주인과 조절 가능)
  시설비: 답사후 조절 가능

010-3402-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층
- 평수 : 40평
- 시설 및 포교원 최상의 위치
- 전세 : 2,000만원, 월세 : 8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8616-573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010-8826-8373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번지
- 답 320평 건축허가 되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고 앞쪽 시원한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사찰 전원주택 팬션 적합
- 정남향 좌청룡 우 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7,500만원

010-3544-9777

삶에서 깨어나기

타라 브랙 (명상가 · 임상심리학자)

〈6〉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암 투병 (사례)

두려움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착한 사람이 되려는 투쟁

줄리아는 우리 명상 공동체의 소중한 도반이었다. 유방암이 재발했을 때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영적 수행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줄리아와 나는 항암치료 내내 그녀를 격려하는 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하자고 약속했다. 어느 날 오후에 줄리아가 머리카락이 다 빠진 머리에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벽에 기대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녀는 한 신입 회원을 따스하게 격려하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나는 줄리아에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인지 물었다. "도움을 주고 있을 때 내가 더 착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쉴 필요가 있어요." 라면서 곧바로 인정했다. "집에 가면 말도 못하게 녹초가 되긴 해요."

병원 근처에 살았던 줄리아는 동행이나 차량 도움을 거절하고 종종 혼자 걸어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다. 친구들은 그녀의 완고한 독립심,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단호한 결심을 우려했다.

얼마 후 다시 만났을 때 줄리아가 털어놓았다. "통증을 느낄 때는 어느 누구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해결하고 싶어요."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느낌이 들지요?" 내가 물었다.

"글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지독하게 외로워요. 세상이 이렇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까마득히 멀어지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느낌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암에 걸린 몸속에 묶여 있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줄리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싶어 할 이유가 있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세계는 아주 작아졌어요. 때로는 구역질을 안 하고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매순간 깨어서 자각하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거의 언제나 나 자신이 못마땅하고, 우울하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줄리아는 말을 멈추고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파묻혀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줄리아,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늘 궁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줄리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영성의 길에서 내가 항상 간직해온 믿음이 모두 사라질 때가 많아요. 두렵고 외롭기만 해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통제자와의 대면

투병생활이나 임박한 죽음은 착한 사람, 고결한 사람, 근엄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조각낸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우주복 자아의 핵심 정체성과 대면시킨다. 그 핵심 정체성을 나는 '통제자' 라고 부른다. 통제자는 에고의 최고책임자다. 우리는 이 자아가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는다. 통제자는 강박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안전 무사한 상황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어도 일시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 신뢰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크나큰 상실은 그 통제자를 권좌에서 몰아낸다. 마치 줄리아가 혹독한 투병 기간 중에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 보호막이 찢어져 열릴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취약하다. 때때로 우리는 허둥지둥 통제자를 재건해 바쁘게 활동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찢어진 틈을 기꺼이 내버려둘 때, 통제하지 않고 현재에 살 수 있을 때 치유가 가능해진다.

철저히 항복하기

나의 통제자는 한 번에 몇 달씩 축출될 위기에 몰린다. 일–강의, 명상 공동체에서 봉사, 상담–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나의 두 발은 튼튼한 대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전 명상 동안거에 들기 직전에 나의 몸이 무너졌다. 나는 입원을 했다. 가르칠 수도, 책을 읽을 수도, 걸어 다닐 수도 없었다.

입원한 첫날 밤, 침대에 누워 밤을 꼬박 샌 기억이 난다. 새벽 세 시에 나이 든 간호사가 들어와서 나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차트를 보았다. 내가 지켜보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내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저런, 많이 아프지요?"

간호사가 나가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 다정한 말은 내가 느끼는 극심한 취약함을 열어보였다. 이 병이 얼마나 악화될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명상 공동체 위원직을 그만둬야 하나? 미래에 관해서 나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루미의 시구가 기억났다. "미래는 잊어라…미래를 잊을 수 있는 자를 나는 숭배하리라…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고통의 치료제는 그 고통 속에 있다."

나는 이 구절을 숙고하며 반복하기 시작했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미래에 관한 생각들이 모두 멀리 물러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순전한 두려움이 들어찼다. 두려움은 내가 외면해왔던 나의 마음을 꽉 움켜쥐고 비틀었다. 두려움을 허락하자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려움과 함께 호흡하자– 가슴을 에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여기 있어, 이 슬픔을 받아들여." 그 고통은 내 마음을 잡아 뜯고 갈가리 찢었다. 나는 소리 죽여 울면서 연거푸 덮쳐오는 슬픔의 파도를 고스란히 감내했다.

울음이 잦아들면서 안도감이 찾아왔다. 평화로움은 결코 아니었다. 몸이 아프고 삶에서 밀려나는 것이 나는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미래를 조종할 수 있다거나 상실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나를 짓누르던 통제자가 잠시



질병으로 미래의 불안함 느낄 때
'앞 일 걱정할 것 없다. 그냥 여기 있어'
되뇌면서 겸손하게 항복하면
다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

축출된 것이다. 내 삶은 내 소관이 아니었다.

엿새의 입원 기간은 겸손하게 항복하는 것을 가르쳤다. 맥박은 분당 45회를 넘지 못했고 의사들은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퇴원 날짜는 자꾸 늦춰졌다. 하지만 통제자가 권좌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가장 아연했다.

입원한 지 사흘째, 심장질환 집중 치료실 둘레를 걸어 다니다가 나는 내가 얼마나 기진맥진해 있고 나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내 마음은 또다시 앞질러가서 내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갈수록 악화되는 이 육신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 계획하기 시작했다. 통제자가 행동을 재개했음을 깨달은 순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 위에 허물어졌다. 내가 침대에 눕자 끝없이 돌고 돌던 생각들 역시 허물어졌다. 그리고 나는 표면 밑으로, 고통 속으로 침잠했다.

티베트 승려 초감 트룽파는 자유에 이르는 영적 수행의 본질은 '자신의 날카로운 창끝을 접하고 누그러뜨리는 것' 이라고 가르쳤다. 지금 내가 접한 날카로운 창끝은 통렬한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과 완강한 두려움이었다. 그것을 누그러뜨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가장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했지만 통제자가 여전히 뒤에서 제지했다. 슬픔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머뭇거리며 나는 그 부위에 있는 통증을 느끼고 누그러뜨리라고 스스로를 온화하게 격려했다. 슬픔의 날카로운 창끝이 고통스러울수록 나는 더욱 다정하게 속삭였다. "타라, 그냥 누그러뜨려…그냥 내려놔, 괜찮아." 고통스런 슬픔의 블랙홀에 더욱더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나는 순수하고 다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감싸 안고, 나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 날카로운 창끝을 접하고 누그러뜨리는 것은 영원하고 다정한 자각 속으로 소멸하는 것이었다.

나를 사랑해주세요

인도의 영적 스승 스리 니사르가다타는 이렇게 말한다. "정신은 심연을 만들어내고,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때로는 두려움과 고립감의 심연이 너무 깊고 넓은 탓에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눌러서 현존이라는 귀의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얼어붙는다. 그러한 때에는 어느 것에서든 사랑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을 때의 줄리아가 바로 이 경우였다. 줄리아는 극도의 피로와 통증을 불평하지 않았지만 친구 애나는 이렇게 말했다. "줄리아는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혼자 해결' 하려는 단호한 결심에도 줄리아는 갈수록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줄리아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애나가 수프를 갖고 갔을 때 줄리아는 벽을 마주하고 잔뜩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며 지금 속이 메스꺼우니 수프를 스토브 위에 두라고 부탁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줄리아는 깜박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주 익숙한 극한의 외로움, 죽어가는 몸에 갇힌 느낌이 밀려왔다. 줄리아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어깨를 쓰다듬는 따스한 손길에 깜짝 놀랐다. 애나는 문을 닫은 후 가버리지 않고 줄리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울음은 깊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래, 울어, 그냥 울어 괜찮아." 애나가 속삭였다. 줄리아가 힘겹게 억눌러온 두려움과 슬픔에 항복할 때 애나는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함께 있잖아."

간간이 눈물을 닦고 물을 마시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줄리아는 진정됐다. 아직도 조금 메스껍고 울어서 기운이 빠진 느낌이었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더없이 편안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높이 쳐들었던 방패가 조금 무너졌어요." 그 다음 주에 줄리아가 내게 말했다. "애나가 돌아간 후에도 그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러고 며칠 후 방패는 다시 튼튼해졌다고 한다. 줄리아는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암이 퍼졌다는 말을 들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외로운 것 같아요."

줄리아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길 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

"줄리아, 그 바람,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을 있는 그대로, 그게 아무리 강렬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그걸 그냥 허락하세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느껴보세요."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당신이 누구의 사랑을 가장 원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바로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부탁하세요. 말로 표현하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세요."

줄리아는 속삭였다.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한 번 더 말했다. 감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줄리아가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줄리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다.

두 눈이 빛나고 있었다. "축복받은 느낌이에요.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줄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석 주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날 아침,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각에 애나는 줄리아를 공원에 데려갔다. 그들은 담요를 깔고 명상을 했고, 줄리아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나무에 기대 쉬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원에서 애나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의식을 치렀어요. 이제 곧 떠나게 될 이 소중한 삶을 하나씩 느껴보았어요. 친구들, 명상 공동체, 그리고 선생님, 스윙 댄스, 노래, 바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저 나무들…" 복받친 슬픔으로 눈물이 흘러 줄리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등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커다란 참나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참나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부탁했어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곧바로 사랑이 밀려와 나를 휘감았어요. 그 참나무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똑같이 살아있고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의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풀과 덤불, 새, 대지, 구름 그리고 애나,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존재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바로 사랑이었고, 모든 것의 일부였어요." 줄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타라,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면 '참 나' 와 하나가 되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타라 브랙의 〈삶에서 깨어나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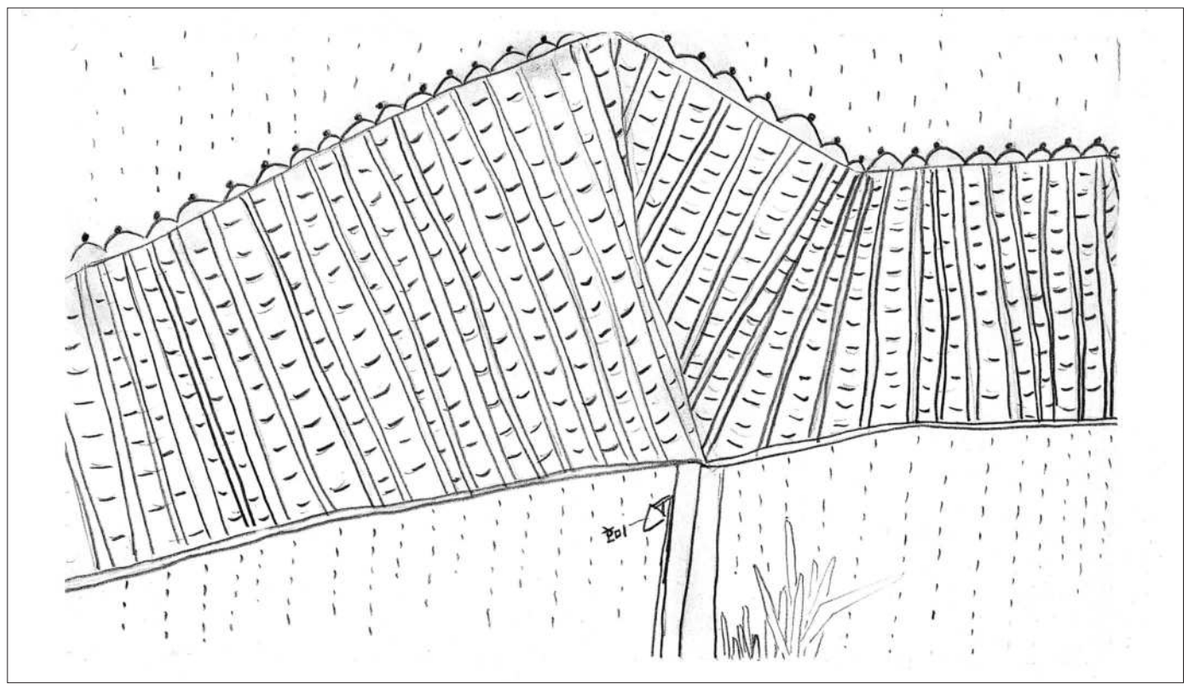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향다원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02·2004·8200

갤러리 색즉시공



휴식

한여름
장맛비 아래에
호미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스님도
밭을 내다보며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 마음도
조용해 졌습니다.

"지금"
평온합니다

그림·글=희상 스님

밥과 꿈, 당신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Buddha in Comic & Ani

⑬ 주호민의 〈무한동력〉



주호민의 〈무한동력〉 1권 표지

2014년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고달프다. 입시 경쟁을 거쳐 대학을 진학해도 캠퍼스 라이프라는 낭만대신 '스펙 쌓기'에 열을 올려야 하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인생 최대 장벽인 취업 관문이 존재한다. 어디 하나 쉽게 갈 수 있는 고개가 없다.

사실 한국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4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로 두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5월 들어 다시 8.7%로 소폭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3.6%)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늘어난 일자리도 임시직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늘면서 고용여건이나 임금은 기성세대보다 형편없이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는 88만원 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88만원 세대'부터 연애 · 결혼 ·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등의 2030세대를 묘사하는 신조어들이 생겨났다. 요즘에는 일자리 전쟁에 치여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4포 세대', 주택구입을 포기한다는 '5포 세대'까지 포기 항목은 계속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0년 중후반 발표되는 만화들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젊은이들이 만화를 웹툰이라는 플랫폼에서 소비하면서 이른바 1초 개그를 선보이는 병맛 · 잉여물들이 쏟아졌다. 굳이 이것들을 회피라고 설명한다면 몇몇은 진지하게 정면돌파를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2008년 포털사이트 야후(현재는 폐쇄)에 연재된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무한동력〉이다. 이 작품은 경쟁에 내몰린 백척간두에 서 있는 암울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낸 수작이다.

〈무한동력〉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젊은이 세 명이 등장한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 근처에 하숙(가장 저렴한)을 얻은 스물일곱 살 주인공 장선재. 그는 금융회사에 취직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게 꿈이지만 어설프고 비루한 그의 '스펙'은 자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

옆방에는 수능 387점을 맞고 한국 최고 대학 수의학과에 들어가 지금은 2년 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진기한이, 그 앞방에는 선재와 동갑내기 네일 아티스트 김솔이 있다.

또한 하숙집에는 무한동력 영구기관을 만드는 주인 한원식과 딸인 고3 수험생 수자와 동생 수동도 함께 살고 있다.

〈무한동력〉에서 한 씨 아저씨가 만드는 무한동력 영구기관은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타포다. 사실 현재 이론상으로 무한동력은 만들어질 수 없다.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의 소재로 아주 좋은 무한동력 영구기관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치환된다.

88만원 세대가 그리는 고군분투기
삶이 고달픈 당신, 목표는 있는가
스스로 바로 세울 '正見'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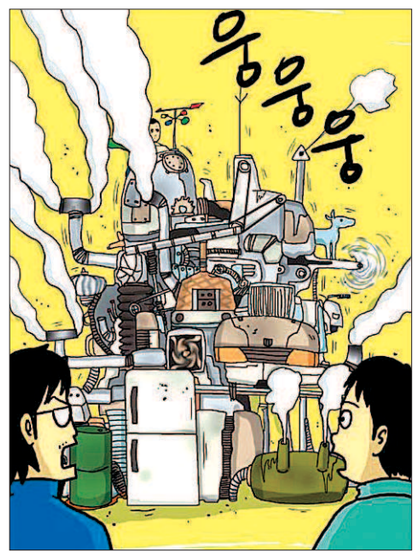
하숙 첫날, 황당한 기계를 만드는 것을 의아해 하는 주인공 선재에게 한 씨는 이렇게 묻는다. "자네는 꿈이 뭔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선재에게 다시 한 씨는 재차 묻는다.

"죽기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한 씨에게 무한동력은 못 이룬 꿈이다. 다시 말해 작품 이름이기도 한 '무한동력'은 경쟁 사회에 내몰려 어느 순간 잊어버린 주인공들, 우리들의 '꿈'이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시대에 경쟁의 귀결점은 성공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그 성공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한 씨 아저씨가 만드는 무한동력〈사진 왼쪽〉과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사진 오른쪽〉. 못 먹은 밥과 못 이룬 꿈, 당신은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현재 경쟁 사회에서 성공은 좋은 대학에 입학, 대기업에 취업해 높은 연봉을 받고, 능력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식 낳고 잘 사는 것 정도다. 이런 삶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성공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밥'만을 위한 것이라면 무언가 서글퍼지지 않겠는가.

기성세대가 만든 무한경쟁이라는 레일 위를 폭주 전차처럼 달리는 것 또한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은 '꿈의 가치'다. 현실에서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꿈'을 잊지 않을 때 자신의 목표가 생기고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한다. 올바로 보고 생각하고 노력함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팔정도(八正道)' 가르침은 어찌보면 2030세대에게 꼭 필요한 화두이다.

〈무한동력〉에 나오는 3명의 청년들은 소소한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각자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선재는 자신이 금융회사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냈고, 한 씨네 애견 난봉이를 구해낸 진기한은 원래 자신이 있던 수의학과로 돌아간다. 선재와 연인이 된 솔은 노력해온 보상,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된다.

이누도 잇신 감독의 영화 〈황색눈물(2007)〉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한다.

"'인생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인생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 라고…."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피어라,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대행 스님

천만 번 나를 죽인다 한들 내 마음이야 죽일 수 있겠는가!

주인공과 계합하기 위한 실천행은

문)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주인공에 계합이 되려면 어떤 실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열심히, 어떠한 것도 보지 말고 어떠한 분별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별을 하면은 통달을 못한다." 하셨습니다. 벌레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또 돼지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삼독이나 역시 일체 번뇌 망상, 이 속에서도 걸림이 없고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분별이 나오지 않고, 부처님 한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쾌활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그냥 이론으로는 알지만 진실히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리 꿰어 맞추고 저리 꿰어 맞춰도 다 아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거름 삼아서 행동으로써 실천궁행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하는 거라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안으로 천지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섯 가지 오신통, 다 보고 듣고, 가고 옴이 없이 행하고, 남의 속을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거를 알고. 이것을 타심통이니 숙명통이니 또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를 다 알면서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물이 여기 분명코 있는 것을 아시고 봤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했듯이, 이것을 내가 목마를 때에 아무 끄달림이 없이 마실 수 있고 줄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실천궁행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니라. 구름을 타고 오고 가고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심안으로 전체를 다 봐도 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어디서 온 거를 알고 남의 속을 뻔히 알고 이래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 도가 아니라고 했는가.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도 맘대로 못하고 보고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갖다 먹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가 아니지. 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도가 됩니까. 가고 온다 하더라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행할 줄 알아야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그 법을 무심법행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봤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오신통을 다 들어서, 마음으로부터 누진을 통해서 다 들 수 있다면, 바로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그걸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굴릴 수 있어야 하고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실천궁행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굴린다고 해서 안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모두 아니 된 게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 없고 평발 하나로써 모두 디뎠느니라 하는 것을 표현해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고, 모두 여러분을 내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거기 여러모로 말은 붙지 않았습니다마는 내 생각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을 다, 여러분을 다 건졌느니라 하는 뜻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거고, 나오셔서 휘휘 둘러본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정됨이 없고 공했어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항상 같이 있느니라. 평등하니라 하고 둘러보신 겁니다. 일곱 발자국을 디딘 것은 그 평등한 실천궁행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다 빼놓고 뭐가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은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평등한 진리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우리가 먹어 보지 않고 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나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셔서 참 우리의 스승으로서 여러분한테 설하신 그 뜻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바로 불제자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분별을 하고 벌레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벌레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침착하게 놓고,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내가 과거에 모르는 그 모습으로 보시고 아는 사람을 본다면,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바로 배우기도 하고 바로 내 마음속에, 주인공 안에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뜻으로써 바로 알 것이다 하는 생각. 그 주인공에 놓는 감사함.

'높은 거를 봐도 높게 보지 말고' 하는 것은, 저 부처님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니 항상 위로는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리드해 나가니까,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거와 같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뜻이.

그러니 모든 분별을 놓아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상대의 행동을 보고서 생각하는 거는 누구든지 각자 자기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 저이가 뭘 하고 들어왔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같아.'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지 남편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남의 소견을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뒤집어쓰기도 하고 뒤집어씌우기도 하는 이러한 분별은 버려야 하고, 아무리 죽인다 하는 걸 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나를 천번 만번 죽인다 한들 내 마음이야 죽일 수 있겠는가. 천번 만번 노예를 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움죽거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체가 없는 마음이,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천지를 탐험해도 손색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갖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북하면 부처님께서 "이 도리를 알면 삼십이상이 구족하고 삼십이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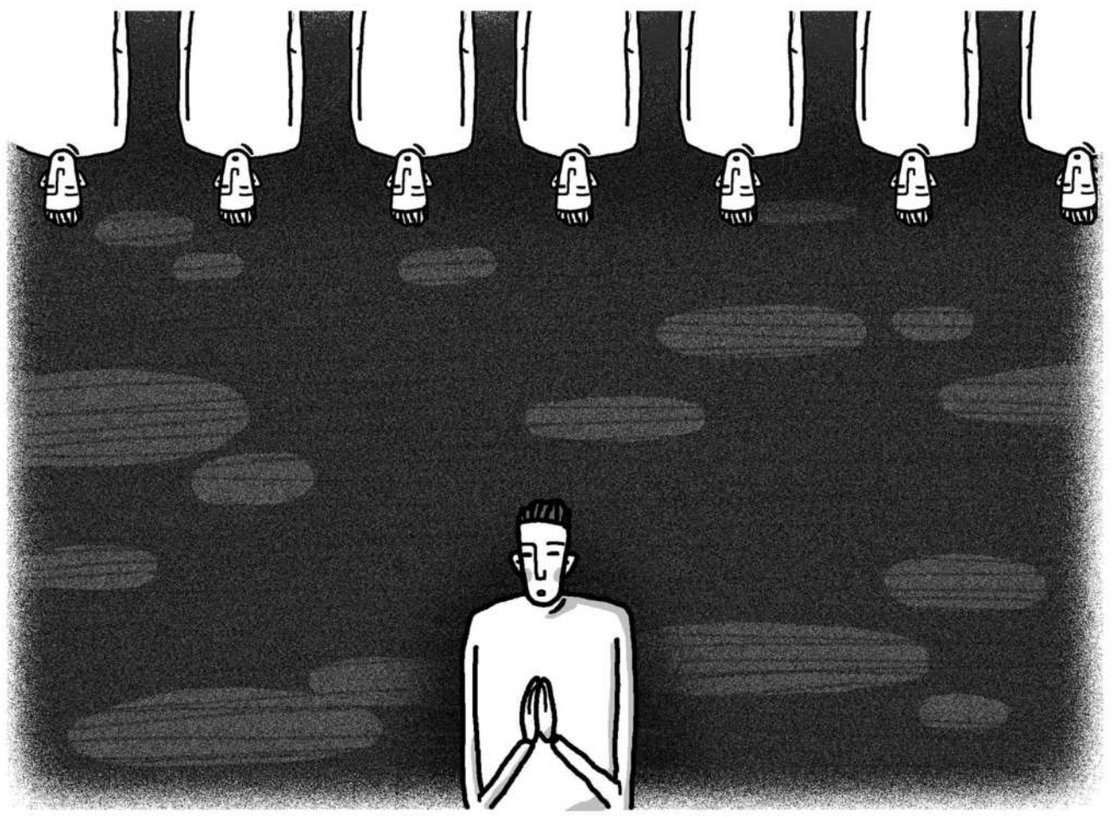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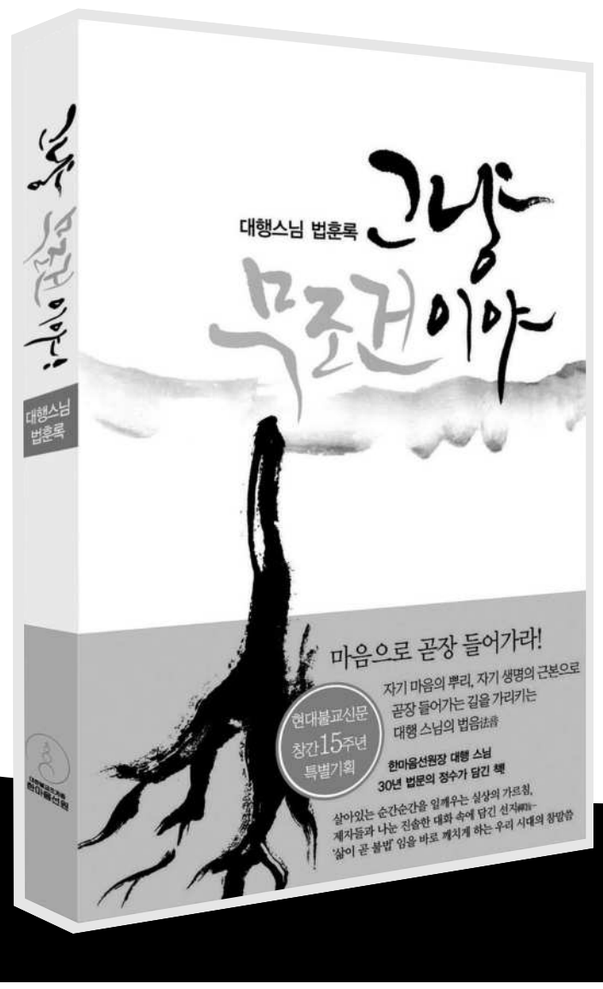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남의 소견을 자기가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분별은 버려야

☞ 29면에서 계속

는 이 뭉치 덩어리가 얽히고설켜서, 아주 벽을 두껍게 싸서 그걸 벗어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참나를 깨치지 못하고는 이 도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별에서 헤어나지 못하신다면, 영원히 위로 묵은 빚도 갚지 못하고 아래로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분이 된다면 세세생생에 항상 이런 고에서 헤어나질 못할 겁니다. 승진이 됐다 좌천이 되고, 인간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도 바라지 말고, 가난도 바라지 말고 잘난 것도 바라지 말고, 못난 것도 바라지 말고 오로지 '바로 내 주인공만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만이 감사하구나, 나도 형성시켰으니까.' 이것 두 가지만 알면 습도 다 뗄 수 있고, 일체를 다 버린다면은 일체를 얻을 수가 있고, 일체를 얻었다 하면 일체 항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써 영험을 보기도 하는데

문) 정성으로 기도하여 영험을 보신 분들도 많은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답) 그것은 소소한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묶여 있으니깐. 그래서 창살 없는 창살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옴쭉 못하는 거죠. 이 '주여! 아버지시여! 이거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는 거는 하나의 자기의 부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전화통부터 놔 놓아야 남의 집에도 전화하고 남의 집에서 내 집으로 전화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집에 전화는 안 해 놓고 남의 집에 전화 해 놓은 데다가 비는 거죠. 아이고, 관세음보살! 주여! 무슨 어쩌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깐 개선해야 할 것은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다 개선해야 돼요.

이게 전체 삼라만상 우주 천지가 다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과 천지의 근본, 이 월세계의 근본 또 태양의 근본, 전 혹성이 많지 않습니까. 은하계도 많잖아요. 그 은하계의 별성들도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이 물질로서의 연구를 자꾸 하잖아요. 요만하게 사람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그 입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나 망원경이나 탐지기나 다, 거기 그 시스템을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잠수함을 깨뜨리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그러한 연구보다도 이 사람에 가설된 한생각이, 수소폭탄이나 핵폭탄도 전부 죽이는 것만, 모두 태워 죽이는 것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좌우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렇게 위대합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주인, 주인이란 얘기예요.

인간은 지구 안에서 살지만 지구의 주인이요, 지구는 집과 같은 겁니다. 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은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이 모여 있는데 내 한생각에 의해서 악업 선업이 무너지는 거죠. 팔자 운명도 없어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그때에 자기를 깨달아서 너부터 알아야 모든 우주 전체를 감응할 수 있고 직결된 거를 알 수 있다, 이랬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 줬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가 고만 그 미개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늠름하게 이 우주의 모든 섭류를, 천문학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깐 천안통, 마음의 눈으로 전체 탐험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마음으로서 이게 천체 무전통신 할 수 있다. 일체 만물과도 더불어 같이 상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뭘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계가 팽창되거나 또는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태양이 220V고 우리 지구가 120V라면 지구를 집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먹을 수도 있으니깐 그거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이 마음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수화풍이거든요. 이 몸뚱이, 물질이 모두 다 말입니다. 수소폭탄도 지수화풍 아니면 못 만들어요. 이 컵도 지수화풍 아니면 못 만들고. 이거 하나 흙과 물을 한데 배합해 가지고 말렸지 않습니까, 바람에. 그래 가지고 불에 구웠죠? 그랬으니 어떻게 지수화풍 없이 이게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컵으로. 그러니깐 모든 게 이 내 주처에서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게 바깥으로 탁드립니다.

'아이고, 주여! 뭐가 우리를 나게 했느냐. 뭐 누가 먼저 만들고 태초가 어딨느냐?' 해야 되겠습니까. 난 내가 난 게 태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부터 알아야 모두 알 테니깐. 내가 났으니깐 세상을 알았고 세상이 벌어진 걸 알지 않았습니까, 각자. 또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죽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을이 돼서 이파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무뿌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 나와서 그 봄이 오면은 다시 잎이 피고 꽃이 피듯이 인간도 그렇게 돌아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 도리를 모르면 50%가 미완성이라는 얘깁니다.

나이에 걸맞는 덕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문)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분별심만 더 커져서 싫어지는 사람도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제 불혹의 나이가 지났는데 제 나이에 걸맞는 덕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무엇을 짊어지고 자꾸 갈 바가 뭐 있습니까? 자꾸 놓고 가야지. 사람 하나 몸뚱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생기는 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야지요. 조금만 뭐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이러면은, 또 나쁜 게 보이고 좋은 게 보이고, 미운 게 보이고 예쁜 게 보이고, 이걸 일일이 욕심내고 그 아집을 가지고 나라는 조건에서 영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한다면 거기 자기가 갈 수 있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도 공해서 놓고 터벅터벅 지금 가는 거 없이 가고 있는데 자꾸 짊어질 게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다 놓고 가다 보면 맨 산상봉 꼭대기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비로소 모두 그 위에서 내려다보이더라 이겁니다. 천체를 볼 때하고 조그만 거 한 개별적인 거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체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천체가 보이는 걸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로 인해 일어났고, 여기로 인해 여기서 일어났고 이렇게 되니깐,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눌러지고 이쪽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어떤 거를 손을 댈 게 없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보니까, 무의세계 유의 세계를 보니까, 다 합쳐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또 동서가 둘이 아니요, 남자 여자가 둘이 아니요, 대승 소승이 둘이 아니요, 어려운 사람 부자 사람 이것이 둘이 아니요, 권세 없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항상 뒤바뀌지더라 이겁니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주워 모아서 담아도 담긴 사이가 없더라. 담긴 사이가 없으니 내려와서는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내놔지더라.

그래서 그 마음 가짐가짐이 어느 누구든지 깔보지 말고, 하다못해 사람 아닌 벙어리, 생각이 없든지 있든지, 목석이든 목석이 아니든, 돌이든 꽃나무든, 죽어가는 나무든, 병신이든 병신이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웃으면서 대해 줄 수 있는 그 아량, 지혜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져서 '내가 못 배웠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올 때 저런 모습을 하고 거쳐 왔지 않나. 바로 나인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 몰락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이 마음도리를 배우는 데 열심히 익히고, 스스로서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자비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애들 사이가 안 좋아요

문) 저는 애들 둘이 있는데 저의 바깥양반이 주사가 좀 심해서 애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떡을 놓고 밥을 놓고 비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타의에서 타력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자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와서, 내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졌고 상대가 있고 또 내가, 즉 말하자면 나그네 생활로 살다가 나그네로 다시 빈 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 빈 몸으로 와서 빈 마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착, 욕심, 아집, 아상 또는 너, 나 둘로 보지 않고 살면은 이다음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항상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릇이 비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의 그 우주천하도, 사생의 모래알같이 수효가 헤아릴 수가 없는, 무량수의 공덕을 그 그릇에 다 담아도 손색이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좁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집에다가 말입니다, 담은 사이도 없고. 이 세상의 모두를,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 집에 담아도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넓지도 않고요. 다 내놔도 또 그것이 줄지도 않고 항상 풍족하죠.

그래서 마음으로서의 그 자비와 그 성스러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나라는 조건을 세워서 항상 여러분 가정에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죠, 뭐. 내가 짊어지고 나온 내 탓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저렇게 식구가 마음이 풍족하지 못한 것도 바로 우리가 차원이 똑같으니까. 금은 금방에 가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듯이, 우리 식구가 똑같이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나. 그러니 내가 그저 '주인공, 당신밖에 우리 가정 화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당신밖에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어요. 당신밖에 우리 우환을 없게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병고를 없앨 수 없어요.' '모든 거를 낫게 해 주시오.' 가 아니라 '당신밖에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낫게 할 수 없어요.' 이겁니다.

주인공 찾는 것도 아주 둘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인공을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런 소리 하시죠? 그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다리 건너가니까. 벌써 그것도 미신 짓이에요. 주인공이라고 이름만 해 놨지, '주인공, 낫게 해 주시오.' 이러면 벌써 아니 기복하고 뭣이 다릅니까?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고, 또 재차 말합니다. '주인공밖에 나의 병고를 낫게 할 수 없고,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우리 남편이 회사엘 나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고 잘 이끌어 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험하고 거기서 체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믿는 것이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참 불가사의 한 법도 거기에서 다 나오게끔 돼 있죠.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별에서 헤어나지 못하신다면
영원히 위로는 묵은 빚도 갚지 못하고 아래로도 주지 못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항상 고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무료배송 66%

엡손 AL-2310D
125,000원

무료배송 57%

교세라 FS-1120D
110,000원

무료배송 70%

OKI-B410D
90,000원

모델별 한정수량 특가 판매
하루사용 AAA급
브랜드 레이저프린트(흑백)
특별가 행사
-하루사용 특AAA급 중고
-전시상품 절대 아님
-16시 이전 주문 당일배송

구매문의
칠성상회 02-879-2007
네이버 다음에서 칠성상회검색
입금계좌:농협 1282-17-003433
예금주 한메소프트(주)

불자 세상보기

통일준비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본각 선교원장

박근혜 정부는 7월 15일 남북통일의 청사진을 그릴 통일준비위원회를 민관위원 50명으로 발족시켰다.

지난 2월 1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일대박론에 기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이어 그 구상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대참사 등으로 그 조직구성이 늦어졌었다. 이는 통일대박을 위한 기반구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의 남북통일은 역사적 지상과제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 대륙국가의 영광을 이어왔으나, 20세기 초 일제에 강점당해 극심한 고초를 겪었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종료와 함께 해방됐으나, 제국주의 세력 등에 의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년이 흘렀다. 그 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불행을 겪고, 휴전 상태가 계속되면서 통일은 더욱 멀어졌다.

우리는 이제 심기일전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고, 남 · 북 경쟁 속에서 평화공존 · 평화교류로 한 걸음 한 걸음 통일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홍익인간 광화세계와 보살도 실천의 불자 국민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 사회가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신뢰사회가 되려면 인연과보의 원칙,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법칙을 국민들이 철저히 알고 믿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 · 북 모두에 민족주체세력이 형성돼야 한다. 수처작주하는 주인의식과 계급사관 · 사대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자주사관적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자주적인 국학(국사학, 국어학, 국토학 등)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한마음으로 단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민족주체세력들은 주변강국인 미 · 일 · 중 · 러 등에게 분단지속보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각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 신동북아 질서를 재편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한반도 통일에는 평화를 대전제로 하고, 북쪽도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북쪽 백성들의 민생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크게 활용하는 등 남북간에 형재애로 뭉쳐진 평화교류를 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의 김정은 정권이 민주적 자본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한반도 6차 회담 등을 활용하여 북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유 · 평등 · 평화의 민주적 자본제로 한반도를 통일하여 민주통일정토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물론 낮은 단계의 연합제, 연방제로부터 시작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로 가야 한다.

네 번째는 그런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전체의 사상 · 생활 · 정서적 통일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은 불이중도(不二中道) 사상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분법적인 대립갈등이 극심하므로 불이중도 사상으로 통일하면서 원효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이 삼국통일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원융무애사상으로 불법은 육상(총 · 별 · 동 · 이 · 성 · 괴상)이 원융하여 무애한 것이므로 우리는 동체대비로 대동(大同)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이어 세계가 천민자본주의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제3의 세계경제체제로서 불교 사회경제체제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소유체제가 사유를 기본으로 하되, 출가수행자처럼 정신적 수준이 높은 만큼은 공유를 인정해주고, 무소유를 북극성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운행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우리 불자들은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 · 북 불교사찰 순례단 운영, 불교사상과 주체사상의 비교세미나 등 제방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 민족 통일에는 한겨레 한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할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땅밟기' 논란과 종교 평화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종교 갈등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부처님 정각지인 부다가야까지 찾아가서 개신교 청년들이 '땅밟기' 선교를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는 물론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종교 상생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종교 이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불교사회연구소장

부처님의 정각처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에서 벌어진 개신교인들의 '땅밟기'는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종교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들은 행태를 보면 이웃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알음알이와 이해가 없어보인다.

종교의 기본적 가치는 평화와 존재에 대한 존엄이다. 그럼에도 선교를 이유로 무례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종교관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에서는 이 같은 무례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나 증오방지법 제정을 주장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취지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켠으로는 서글퍼지기도 한다. '차별 금지'는 당연한 명제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 간 상생과 공존은 단순히 법제화로 이뤄질 것이 아니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가능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종교의 올바른 이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공존 · 화합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
평화협의회

(땅밟기와 같은)이 같은 행위는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것으로 기독교에도 엄청난 해를 입히는 행위다. 예수님은 공존과 화합의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닐뿐더러 선교도 아닌 어리석은 일이다. 무책임한 행위를 한 젊은이들의 행동은 비판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그동안 종교활동에 매진해 온 신자들도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몰지각한 선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교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주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등 그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있다. 최근 벌어진 종교간 갈등과 반목은 오히려 시민들이 종교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 전쟁을 치뤘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종교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서는 더욱 아니될 일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양식을 길러야 한다.

이웃종교 대한 예의 갖춰야



박대선 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 또한 전남 영광에 발상성지가 있다. 그 곳에서 근무할 때도 땅밝기와 같은 행위가 빈번했다. 다른 집에 가서는 그 집의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종교 성지에서는 최소한 그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를 다니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앞에서 벌이는 행위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자신의 신앙행위가 비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혐오감을 주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모두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나부터 내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아만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종교인으로서 각자의 종교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상대종교를 존중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우리 개개인에 이미 뿌리깊게 자리한 불신을 가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은 사회갈등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식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社說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시 땅밟기 선교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찬양인도자학교의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로 알려진 선교 방식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선교 행위는 매우 배타적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개신교의 배타적 선교행위는 이미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2006년 6월 부산기독청년회연합이 벡스코에서 'Again 1907 in Busan' 부흥회를 열고 "사찰이 무너지라"는 주제의 기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땅밟기도 이웃종교의 성소가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닌 저주다.

더 이상 일부 개신교인의 망동으로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을 보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올해에도 봉축기간에도 가로 연등들이 훼손됐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는 예수재단이라는 단체가 노상전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필요한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성직자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7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미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증오방지법과 같은 법은 제도화 돼있다. 실제 프랑스에서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르쳤지 반목과 갈등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에는 신념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월호 유족 불교계에 감동한 이유

오는 7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하고 안산시불교연합회는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100일 추모재'를 개최한다.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 진도 팽목항에서도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실종자 귀환 특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불교계는 시종일관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보여준 행동들은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현재 노동위원 도철 스님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김병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행동에 감동한 것은 유가족들이다. 실제 교회 신도인 유가족 대변인이 기독교 언론에서 "서명운동 요청에 제일 반응이 빨랐던 곳이 조계종이었다", "스님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랐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유가족들은 숫자보다 그들의 태도에 더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고산문화재단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계종의 대국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조사됐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보여준 불교의 행보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회와의 소통'이 불교계의 진정성있는 행보로 점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모든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야말로 부정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임을 잊어사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구불교의식 범음 · 범패 · 교육원
학 인 모 집



◈ 염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사모곡,회심곡,백발가,참회곡,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초 급 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중 급 반 : 교육과정 – 시련.대령관욕, 시왕불공, 시식편, 봉송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점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중급속성 : 10개월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여시아문 추천 불서(12)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그대 안의 신령스런 불씨를 되살려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불씨

지문스님 지음 | 양장 | A5 | 318쪽 | 13,000원

"허공은 가장자리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중심이자 가장자리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도 끝이 없고 미래로도 끝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입니다."(본문 중에서)
1970년 부산 범어사로 출가, 광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범어사,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등에서 수선안거 한 지문 스님의 법문집. 저자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완벽하다면서, 우리의 참된 성품도 신령스러운 빛으로 드러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욕심이 그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빛(불성)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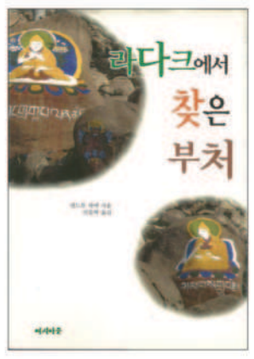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스님 이야기

저자 지묵 | 448쪽 | A5 | 148*210 | 12,000원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15명의 스님들에 의해 쓰여진 85명 스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솔한 수행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책이다. 잘 알려지거나 높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보다는 숨어있는 선지식과 수행자 위주로 구성을 하였다. 책에는 송광사 지묵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한국의 부루나존자'로 불리는 종범 스님, 20여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큰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英 시인이 티베트 스승을 통해 영적으로 눈뜬 여정을 그린 책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앤드류 하비/연호택 옮김 | 신국판 | 377쪽 | 12,000원

인도 태생의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가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링포체(Thuksey Rh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린 책. '라다크로 가기까지', '탐험', '링포체에게로' 순으로 구성된 이 책은 생태공동체의 한 원형공간으로 제기되고 있는 라다크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비록 책 속이지만 링포체를 만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의 말을 접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입정 상태에 들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라다크에서의 체험을 하나하나 살려내 글을 옮겼다고 한다. 이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에고(Ego)를 죽이고 링포체의 마음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지혜를 그대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 해설

염불환향곡 (해설집/독송집)

기성쾌선 지음 | A5 | 197쪽 | 7,000원(독송집 5,000원)

마음의 고향(본래면목)을 찾아가는 염불 게송과 그 수행법을 해설한 책. 18세기의 선지식인 '기성 쾌선' 스님이 지은 비교적 짧은 글로 부드러운 가요 형식을 취해서 알기 쉽게 불교를 소개한 글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그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여기서 고향이란 우리 마음의 본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중생들이 우주적 마음의 본원에서 빗나가, 고향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본원을 회복하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염불환향곡은 조선 영조43년에 경남 밀양군 화악산 운주암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환향곡은 장엄염불이면서 별곡처럼, 가요체로 엮어졌는데 가요체의 염불곡으로는 최초의 것으로 〈석문의범〉등에 나오는 장엄염불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다.



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 · 물 ·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흥교스님 지음 | A5 | 374쪽 | 15,000원

"이 빛깔 저 소리에 끄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려 한다면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본문 중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불성의 본디 모습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산속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풍경소리처럼 새로움을 일깨우는 흥교 스님(대각회 이사장)의 법문을 담고 있다. 저자는 33조사의 깨달음의 노래와 십우도 해설을 통해 마음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 본 불교의 가르침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석구석에 배치된 '달(진리)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들(방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는 자유의 삶을 추구한다.



대자유를 찾아 세속을 떠난 출가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산빛 물든 사람들

정과스님 지음 | 302쪽 | 148*210 | 10,000원

봉암사, 해인사, 칠불사, 송광사, 상원사 등지의 선원에서 화두수행을 한 정과 스님이 출가 수행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책. 자연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맡기고 진정 자유로운 삶을 찾아 세속을 떠난 스님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기슭 빈집', '무아에 대한 오해와 혼란', '참회와 발원', '차라리 흘러가는 구름에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편안함과 한가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억겁의 윤회를 끊고 영원한 진리 속으로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수행자들의 일상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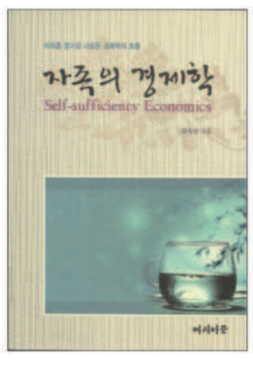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 담긴 수필 · 판화로 힐링을!

작대기 (힘들 때마다 당신의 삶을 받쳐 줄)

장용철 지음/정병례 판화 | 161쪽 | 148*210 | 9,000원

오가는 지하철 구내에서 인생에 대한 사색과 지혜의 편린을 만나게 해주는 '풍경소리'의 작가 시인 장용철의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긴 예화들을 담은 책. 여기에 전각작가 고암 정병례의 판화를 함께 엮었다. 이 책은 지하철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풍경소리'의 게시판에 실렸던 글과 수상집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에 수록되었던 글,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저자의 글이 담겨 있다.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지고 가기도 벅찬 등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받쳐주는 작대기 역할을 해주는 글을 모아 엮었다.



탐욕 · 집착 벗어난 새로운 불교경제학의 패러다임 제시

자족의 경제학

김옥암 지음 | 229쪽 | 128*188 | 11,000원

자유시장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며 순환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물욕을 좇는 만큼 그 희비쌍곡선은 클 수밖에 없고 그 어디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경제는 만날 수 없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파급력 역시 만만치 않다. 그 좋은 예가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한 지난 2008년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세계의 지성들은 다시 한번 따뜻한 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족의 경제학'은 그 따뜻한 경제론 중에서도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탐욕의 경제사상을 제어하고 소욕지족의 경제사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대 경제학과 김옥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소욕지족으로 만족하는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모색과 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정일선사의 인가를 받은 능허거사의 화두참선 구도기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 지음 | A5 | 238쪽 | 12,000원

정일 선사(선학원 이사장 역임)의 가르침과 그의 인가를 받은 능허 거사의 간화선 수행과 화두 타파 이야기. 저자는 한때 세속의 부와 영예를 누리고 살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전국의 유명 기도처를 오가며 불교의 깨달음을 갈구하던 중 1998년 서울 보광사 조실이었던 정일 큰스님을 만나 용맹정진하여 4년만에 부처님 법의 이치와 인과의 도리를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무(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1년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두 공안 '덕산탁발화'와 '파자소암'의 관문을 3년만에 타파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해에 바라밀선원을 세운 저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어찌해야 아이들의 삶 속에 불성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김종서 지음 | 231쪽 | 148*210 | 9,000원

지난 30여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 박사(2013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는 개인주의와 가족이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법의 도리를 풋대로 삼은 자녀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담고 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과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와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 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